

새로운 중화주의에 대한 대응 : 동아시아역사 속의 실체를 찾아서

동아시아역사의 실체와 새로운 청사연구의 방향을 찾아서

발 표 자 료 집

일 시_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10:00 ~ 18:00

장 소_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B동 203호 회의실

주최 및 주관_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후 원_ 동북아역사재단

대회 프로그램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 (정태현,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소장)

사회: 김보광(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10:30-11:20

1 발표 **滿鮮史, 滿學, 그리고 滿洲學**

김선민(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교수)

토론: 정다함(상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11:20-12:10

2 발표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對明·對淸 인식의 전개와 양상**

조성산(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토론: 김백철(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2:10-13:30 점심시간

13:30-14:20

3 발표 **구미 중국사학계의 지구사(Global History) 서술과 한국사**

—조선후기 정체성 연구로의 시사—

이정일(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토론: 홍성구(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14:20-15:10

4 발표 **청제국의 변경통치와 변경사회의 대응—臺灣과 新疆—**

문명기(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토론: 윤욱(고려대학교 HK연구교수)

중간 휴식 15:10-15:30

15:30-16:20

5 발표 **명·청 교체 이후 통신사 교류를 통한 조선/일본 지식인의 상호인식과 청 인식**

구지현(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토론: 신로사(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BK21 박사후과정)

16:20-17:10

6발표 **徳川幕府の清朝認識—清朝の支配體制と對外關係への關心をめぐって—**

彭浩(도쿄대학교 사료편찬소 연구원)

토론: 김시덕(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연구교수)

17:10-18:00

7발표 **清朝とモンゴルの相互認識—清朝宮廷儀禮を手がかりに—**

中村篤志(야마가타대학교 문학부 교수)

토론: 피터 윤(영산대학교 교수)

목 차

滿鮮史, 滿學, 그리고 滿洲學.....	1
김선민(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교수)	
滿鮮史、滿學、そして滿洲學.....	8
金宣玟(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HK教授)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對明·對淸 인식의 전개와 양상.....	17
趙成山(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HK研究教授)	
(日本語の翻譯文、なし)	
구미 중국사학계의 지구사(Global History) 서술과 한국사.....	37
—조선후기 정체성 연구로의 시사—	
이정일(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歐米中国史学界の地球史(global history)敘述と韓国史.....	43
—朝鮮後期アイデンティティ研究への示唆—	
李廷一(東北亞歴史財團 研究委員)	
정제국의 변경통치와 변경사회의 대응—臺灣과 新疆—.....	51
문명기(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淸帝国の辺境統治と辺境社会の対応—台湾と新疆—.....	63
文明基(國民大學校 國史學科 教授)	
명·淸 교체 이후 통신사 교류를 통한 조선/일본 지식인의 상호인식과淸 인식.....	71
구지현(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明・淸交替以後の通信使交流を通じて見た朝鮮/日本の知識人の相互認識と淸認識.....	79
具智賢(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學術研究教授)	

도쿠가와막부(徳川幕府)의 清朝認識.....	89
— 清朝의 지배체제와 대외관계에 대한 관심을 둘러싸고 —	
彭浩(도쿄대학교 사료편찬소 연구원)	
徳川幕府の 清朝認識— 清朝の支配體制と對外關係への關心をめぐって—	96
彭浩(東京大學校 史料編纂所 研究員)	
청조의 몽골의 상호인식—청조 궁정의례를 단서로—	111
나카무라 아츠시(中村篤志, 야마가타대학교 문학부 교수)	
清朝とモンゴルの相互認識— 清朝宮廷儀禮を手がかりに—	117
中村篤志(山形大學校 人文學部 教授)	

滿鮮史, 滿學, 그리고 滿洲學

김 선 민

1. 만주학의 정의

최근 몇 년간 한국 역사학계 전반에서 만주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국사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만주족이 건설한 청제국의 역사, 그들이 사용한 언어와 기록들, 그리고 그들이 현재의 중국과 동아시아 세계에 남긴 유산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배경으로 미국학계의 “신청사” 연구성과가 국내에 다수 소개된 점, 중국학계의 “동북공정” 및 “청사공정”에 대한 비판, 그리고 현재 중국의 팽창하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만주족, 청대사, 현재의 중국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정치적 관심이 이제 만주학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학문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주족과 만주학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만주학의 정의가 무엇인지, 만주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대표적인 만주학 연구자들이 설명하는 만주학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의 마크 엘리엇(Mark C. Elliott)은 만주학의 정의가 간단하지 않고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해왔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만주학은 만주어 연구에만 국한될 수도 없고, 청사와 완전히 일치시킬 수도 없다. 동시에 20세기 말에 새롭게 등장한 만주족의 종족의식, 현대 시보족 [錫伯族]의 詩歌와 민요, 혹은 중국고전의 만주어 번역서까지를 모두 만주학의 범위에 넣을 수도 없다. 그가 제시한 만주학의 정의는 “과거와 현재에 만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이 가진 언어, 역사, 문화를 다루는 것으로, 만주어나 다른 언어로 쓰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일본의 스기야마 키오히코(杉山清彦)는 일본학계의 “滿洲史”를 정의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일본에서 만주족과 관련된 연구는 淸朝史, 淸代史, 明清史, 滿洲史, 滿族史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분류된다. 첫째, 지리공간으로서 만주를 무대로 하여 그곳에서 전개된 역사를 다루는 “만주지역사,” 둘째, 여진의 金, 元·明이래 여진족-만주족의 역사를 다루는 “여진-만주민족사” 및 夫餘·靺鞨에서 만주족까지 퉁구스 계열의 여러 민족의 역사를 다루는 “滿族史,” 셋째, 만주어로 기록된 역사 혹은 그 기록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한편 중국의 趙志強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北京市 社會科學院 滿學研究所가 세계 “滿學”의 중심임을 자임하지만 만주학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시도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가 쓴 “중국의 만주학 연구 근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국학계에서 통용되는 만주학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만주어 및 만주어 문헌자료, 만주족의 역사 및 청대 제도사, 내몽고와 만주지역, 만주족 작가

및 민간문학, 만주족의 풍속·결혼관습·복식·건축, 만주족의 샤머니즘, 팔기제도 등에 관한 연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만주학은 주로 만주어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만주학의 전통과 큰 차이점을 보인다. 高東晷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만주어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 司譯院에서의 연구와 1950년대 이후의 연구로 나누어지며, 1950년대 이후의 연구는 다시 司譯院 淸學書에 대한 연구와 청에서 간행된 만주어 문헌에 대한 연구로 구분된다. 한편 洪性鳩는 한국 만주학의 전통을 조선시대 사상계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17세기 명청교체라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을 경험하며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독자적인 만주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許穆과 丁若鏞 등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만주라는 지리적 공간에 대한 관심과 그곳에 거주한 사람들, 즉 夷狄에 대한 관심을 분리시키는 독특한 이분법적 시각을 발전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적 만주학’의 초기적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만주학에 대한 접근방식이 학자들마다 이처럼 다양하다는 것은 만주학 연구가 각각의 지역과 시기에 따라, 특히 연구주체의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의 선교사들이 바라본 만주 황실의 모습, 일본의 제국주의 통치자가 파악하는 청과 만주의 위치, 중국의 민족주의 지식인이 바라본 만주족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조선시대 지식인이 생각하는 만주와 그곳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쌓아온 만주학 연구의 역사와 발전과정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연구 주체에 따라 혹자는 만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기도 하고, 혹자는 지역으로서의 만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2. 동아시아의 만주학과 민족주의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역과 국가에 따라 만주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접근방식이 발전해왔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의 만주학, 특히 20세기에 이르러 등장한 근대적 학문 분과로서의 만주학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프라센짓 두아라(Prasenjit Duara)가 지적하듯이 20세기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지역적 유통과 확산의 과정은 일본의 근대화화 제국주의가 중국과 한국의 민족주의에 끼친 영향을 통해 확인된다. 일본에 대한 저항이 동아시아의 민족주의를 촉발시킨 것처럼, 중국과 한국의 민족주의는 일본에 의해 중개된 담론이나 관행이 유통되면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민족에 대한 관념과 어휘가 메이지 시기 일본 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된 후 중국이나 한국에 재수입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동아시아 삼국에서 발전한 민족사는 모두 “민족적 주체의 단선적 진보사”로 표현되었다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지역적 유통과 확산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 중국, 한국의 근대적 역사학이 모두 같은 프레임의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었다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 발전한 만주학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연구주체의 구체적인 관심 대상은 달랐지만, 그들의 시각은 매우 유사했던 것이다.

20세기 동아시아 만주학의 또 다른 공통점은 만주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하는 “사람”보다 그 “지

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동아시아에서 민족주의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한 지역이 바로 만주였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만주학의 연구 대상지역을 정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하나의 지역은 “마치 현실적인 여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자의적으로 묶어 어떤 인위적인 구역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지역을 정의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은 매우 정치적인 작업이라는 것이다.

지역개념의 정치성은 동아시아의 만주학이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20세기 초 대외팽창의 과정에서 일본은 “滿韓”·“滿鮮”·“滿蒙” 등 다양한 지역개념을 만들어냈다. 1905년 이전에 일본에서 등장한 “만한”과 “만선”은 한반도에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만주에 진출한 러시아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라는 당시 일본의 정치적 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1910년에 이르러 한일합방으로 조선이 “만선”에서 탈락하고 일본으로 흡수되면서 “만선”은 점차 의미가 약해진 반면, 내몽골 진출이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되면서 일본에서는 새롭게 “만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지역개념의 정치성은 20세기 초 중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東北” 개념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1932년 傅斯年은 그의 저서 『東北史綱』의 앞에 붙인 「본서가 ‘만주’가 아니라 ‘동북’이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의 의의에 대하여」라는 별도의 글을 통해 이 지역은 “중국의 동북,” 줄여서 “동북”으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대항하여 만주는 “중국의 영토”이며 “근대의 동북”으로 새롭게 재발견된 것이다. “만선”이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지역개념이라면 “동북”은 중국 민족주의가 만들어낸 개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만선”과 “동북”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일본 만주학과 21세기 중국의 만학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다.

일본과 중국에서 만주학의 발전과정과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만주학에 공통적으로 민족주의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동양사와 이후 등장한 만주학은 19세기 말 유럽의 근대적 학문체제가 일본에 유입된 것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스테판 타나카(Stefan Tanaka)에 따르면, 메이지 시기 일본의 역사연구자들은 서양과 대비되는 “동양”이라는 지리적·문화적 구분을 수용하고, 동양에서 일본을 분리시킴으로써 일본을 유럽과 대등하게 설정하고, 나아가 “동양”에 속한 중국을 일본과 분리하여 차별화했다. 일본에서 동양사의 등장은 처음부터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서양과 동양, 일본과 아시아 이웃과의 위계적인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후 20세기 초에 이르러 일본의 만선사학자들은 조선과 만주에 대해 정태적이고 수동적인 역사상을 수립해왔는데, 이들의 역사인식은 일본의 동양사에 깔린 역사적 위계질서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일본의 동양사 연구에서 중국은 비록 지위는 일본보다 낮지만 언제나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조선과 만주는 주변부에 속하면서 중국보다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이나 만주는 다만 하나의 지리적인 공간으로 여겨질 뿐, 어떤 역사적 주체가 활동하는 장소로 간주되지 않았다. 만주와 조선의 역할은 일본을 위한 방어막이라는 점뿐이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일본의 만주학 연구는 크게 변화했다. 전쟁의 종결과 함께 대륙에서 후퇴하면서 만주학과 관련된 국가적 지원이나 국민적 관심이 사라지고 현지에 대한 접근도 불가능해졌다. 특히 만주학은 다른 지역보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불가분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학계에서 일종의 금기가 된 반면,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강해지면서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청대 및 만주족 연구는 만문 사료를 중시하는 “淸朝史” 연구와 한문사료에 의존하여 청을 중국사의 한 왕조시대로 이해하는 “淸代史” 연구의 두 흐름으로 나뉘게 되었다. 1945년 이후 등장한 일본의 淸朝史 연구는 만주인, 만주지역, 만주어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1945년 이전의 만주학이 만주라는 지리적 공간에 주목한 것과 대비된다. 이 점은 1986년 설립된 일본의 “滿族史硏究會”(The Japanese Association for Manchu and Qing Studies)가 의도적으로 “만주”라는 이름을 피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戰後 세대의 일본 연구자들은 19세기 말 일본에서 동양사 연구가 시작된 이래 1945년까지 선배 연구자들이 제국주의의 팽창을 위해 충실히 복무해왔다는 부담으로부터 자신들을 차별화시키기 위해 부득이 “滿族史”라는 중국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동양사가 등장하던 시기에 중국에서는 만주족과 청에 대한 비판과 계승을 통해 근대를 모색해왔다. 일본의 동양사와 만주학이 일본의 근대적 자아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전했듯이, 중국의 滿學[만주학] 역시 근대적 “중국”의 형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한족의 자아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전했다. 그러나 만주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까지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만주학은 근대의 일본이 동양, 특히 중국을 자신과 분리시키고, 중국의 문명을 타자화하고, 나아가 중국의 영토를 팽창대상으로 여기면서 발전했다. 반면 근대 중국은 자신의 모체인 청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대상화시키면서 등장한 것이었다. 따라서 만주학이라는 학문영역 역시 근대 중국이 청과 만주족을 대상화시킬 때에만 성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중국의 만주학은 청이 붕괴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등장한 중국이 주체가 되어서 청과 만주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발전한 학문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만주학이 등장하기 위한 전제, 즉 청과 근대 중국의 분리, 그리고 연구 주체와 연구 대상의 분리는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다.

20세기 초 한족중심주의와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민당 정부가 청을 무너뜨리고 만주족의 한화를 주장하던 시기에 진정한 의미의 만주학 연구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근대의 중화민국이 과거 청의 영토적·민족적 유산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20세기 초에 만주족의 언어와 역사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부정되거나 비판되어야 할 것이었다. 키청거(Kicengge, 承志)가 지적하듯이 당시 “청사”가 “만주역사”로 불리지 못한 것은 중국의 청사 연구가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었다. 민국시기의 청사 연구는 “중국”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배층인 만주족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적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민국시기의 중국은 만주학이 발전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만주학은 새로운 연구환경을 맞게 되었다.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서에서 1988년에 출판한 『滿族史硏究集』에 따르면 “滿族은 모두 民族大家庭의 일원이 되어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여 과거와 달리 만주족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청사와 만주학 연구에는 여전히 민족주의적, 목적론적 역사관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란 역사 초기의 핵심적인 요소가 부단히 진화하여 일관성을 갖추게 된 하나의 실체이며 오늘날 중국의 영토 안에서 최초의 국가가 수립된 이래 중국 역사의

모든 시기에는 오직 단 하나의 합법적인 통치권력만이 존재했다는 믿음이 중국의 청사 연구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의 학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중국의 ‘淸史工程’은 이러한 목적론적 역사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청사공정은 『淸史稿』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청사를 편찬하고 이를 중국 전통의 正史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형중이 지적하듯이, 청사공정은 중국 역대 왕조의 관찬 정사 편찬의 전통을 명백히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공개적으로 표명한다. 학술적으로는 국가주도의 역사 편찬의 전통을 계승하고 정치적으로는 역사 편찬의 지원을 통해 현재 중국의 강성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다. 청사공정은 학문과 정치의 가운데에서 위험한 줄다리를 할 가능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욕망 혹은 이데올로기를 과거의 역사 서술 속에 투영시켜온 정사 편찬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초 중국의 만주학은 백 년 전과 비교하여 극적으로 다른 연구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민국시기의 중국에게는 청을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따라서 이 시기 만주족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 역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현재의 중국에게 청은 계승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청과 만주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만주학 역시 청의 긍정적 유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만주학과 21세기 초의 만주학 모두 민족주의적·애국주의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지난 백여년간 중국학계에서 청과 만주족에 대한 평가는 극적으로 달라졌지만, 평가의 주체인 중국의 자아인식은 똑같은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3. 변경사적 관점의 만주학

일본의 만선사와 중국의 만학에 근대 동아시아의 민족주의가 이처럼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면,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변경사적 관점의 만주학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변경사적 관점은 인접하는 두 정치세력, 혹은 사회집단이나 문화 사이에는 경계가 모호한 공간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접촉의 양상에 주목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공간은 시기적 추이에 따라, 혹은 두 세력의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변경(frontier)·국경지대(borderland)·국경(border)으로 성격이 달라져갔다고 여긴다. 일반적으로 전근대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변경은 경계가 모호한 공간인 반면, 근대에 형성된 국경은 인접하는 두 세력이 서로의 영토적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정한 선을 뜻한다. 한편 두 세력 사이의 공간이 변경에서 국경으로 변화하기 전에 일종의 전환기인 국경지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중간단계로서 국경지대는 변경의 성격과 국경의 성격을 모두 지니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경지대는 변경과 같은 모호한 경계를 둘러싸고 빈번한 접촉이 발생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인접하는 두 국가가 서로의 세력을

인정하고 타협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변경사적 관점의 만주학을 가능하게 할 자료로 『琿春副都統衙門檔』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혼춘은 중국 吉林省 동부에 위치한 국경도시로서, 동남으로는 러시아, 서남으로는 북한과 접경한다. 1714년부터 1909년까지 혼춘 일대를 관할한 청대의 팔기 관리들은 군정·민정·사법과 관련한 다량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이곳에 보관되어 있던 청대 공문서는 1900년 러시아에 의해 약탈되었다가 1956년 소련정부에 의해 반환되어 현재 중국제일역사당안관에 보존되어 있다. 혼춘부도통아문 자료 가운데 초기의 문서는 주로 滿文으로 작성되다가 중기에는 만문과 한문이 겸용되었고 후기에는 한문이 주로 사용되었다. 혼춘부도통아문당은 238책에 달하며 그 방대한 수량만큼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역시 혼춘 일대의 병사를 관리하고 파견·교대하는 일 등 군사관련 업무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조선과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혼춘은 두만강에 인접한 국경도시였기 때문에 조선인과의 접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다. 양국 간의 범인 인도 문제, 회령 개시에 참여하는 일, 범월자와 밀무역자 검거, 외국물자의 밀매 금지, 변경의 토지개간이나 목재채취 단속 등이 자주 거론된다. 후기에는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도 등장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조사와 경계비 설치, 범월 및 밀무역 단속 등이 거론된다.

변경사적 관점은 시기적 범위(temporality), 공간적 배경(spatiality), 사용하는 언어(language), 그리고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human agency)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혼춘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혼춘부도통아문당』은 18세기 초 청의 세력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중앙유라시아까지 미치던 시기에서 20세기 초 청이 쇠퇴하여 멸망할 때까지 특정한 하나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특징과 변화를 통시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자료를 통해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 청 제국의 흥망을 한 장소에서 조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혼춘이라는 국경도시가 가진 공간적 특징은 청 제국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리한 지점을 제공한다. 혼춘을 포함한 동북지역은 청 황실의 신성한 발상지로서 19세기 중반까지 일반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된 곳이었고, 청 제국을 지키는 만주족의 근거지이자 훈련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러시아를 포함한 서양 열강의 압력으로 제국의 변경이 위태로워지자 청 정부는 민간인의 변경 이주와 개발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외세를 방어하고자 했다. 1880년대 혼춘이 개발되면서 淸人 뿐만 아니라 조선인 이주자들도 모여들어 이른바 “間島 問題”를 야기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특정 지역에 대한 청 정부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시기와 공간뿐만 아니라 이 자료가 만문과 한문이라는 두 가지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점 역시 혼춘이라는 지역을 이해하는 데 변경사적 관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만주어는 언어적으로 알타이어에 속하며 만주문자는 몽고문자를 차용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만주족이 중원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한어의 영향을 크게 받기 시작했다. 청의 국경도시이자 만주족의 고향인 혼춘에서 작성된 공문서가 초기에는 대부분 만문으로 쓰였지만 후대로 갈수록 한문이 점차 지배적인 언어가 되었다는 사실은 만주족의 문화변용이 언어 사용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또한 만주족, 한인, 조선인, 그리고 나중에는 러시아인들이 이 국경도시를 공유하며 서로 접촉하고 융합하면서, 명확한 국경선을 확정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독특한 변경적 공간을 만들어냈다. 중앙의 정책결정자들, 지방의 관료들, 그리고 변경의 거주민 등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

(human agency)이 변경적 특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변경사적 관점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혼춘 일대 두만강 유역은 국경지대에서 국경으로의 전환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은 청과 조선 정부가 근대적 개념의 외교관계를 새롭게 수립하고 양국의 국경을 명확한 선으로 구획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흥미롭게도 20세기 초 이 지역이 국경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변경적인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 시기 양국의 지식인들은 민족국가의 건설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배타적인 영토를 확보해야 함을 역설한 반면, 일반인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경작할 토지를 찾아 국경을 넘었다. 그 결과 혼춘은 여러 민족 집단이 접촉하고 교류하는 변경으로서의 특징을 다시 드러내게 된 것이다. 20세기 초 혼춘 일대에서는 민족국가의 건설과 제국주의의 팽창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이 결합되어 국경으로서의 특징과 변경으로서의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이야말로 청과 조선의 관계가 16세기에서 20세기까지 변화하는 양상과, 20세기 이래 일본의 제국주의가 진출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민족주의와 충돌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동아시아의 정치세력이 교류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혼춘이라는 변경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만주학의 지평을 새롭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滿鮮史、滿學、そして滿州學

金宣旼

1. 滿州學の定義

最近數年間、韓國歴史學界全般で滿州族に對する關心が高い。中國史研究者のみならず、韓國史研究者達の間でも滿州族が建設した清帝國の歴史、彼等が使用した言語と記録、そして彼等が現在の中國と東アジア世界に残した遺産に注目する人が増えている。このような關心の背景としてアメリカ學界の「新清史」研究成果が國內に多數紹介された点、中國學界の「東北工程」及び「清史工程」に對する批判、そして現在中國の膨張する政治・經濟的影響力に對する憂慮等、様々な要素が擧論され得るだろう。滿州族、清代史、現在の中國に對する多様な學問的・政治的關心が、今、滿州學というひとつの新しい學問領域に對する關心として集まっていると見ることができる。

滿州族と滿州學についての高い關心に比べ、滿州學の定義が何なのか、滿州學の範囲がどこまでなのかについては未だ十分な理解と合意が成されていないように思われる。これはアメリカ、日本、中國、韓國の代表的な滿州學研究者達が説明する滿州學の内容が互いに一致しないという点からよく表れている。アメリカのマーク・エリオット(Mark C. Elliott)は滿州學の定義が簡單ではなく、學者毎に多様に解釋されてきたことを指摘する。氏によれば、滿州學は滿州語研究にのみ限定されることもなく、清史と完全に一致させることもできない。同時に20世紀末に新しく登場した滿州族の宗族意識、現代錫伯族の詩歌と民謠、或いは中國古典の滿州語翻譯書までを全て滿州學の範囲に入れることもできない。氏が提示した滿州學の定義は「過去と現在に滿州語を使用する人達と彼等の後孫が持った言語・歴史・文化を扱うことで、滿州語や他の言語に書かれた資料を基にする」。

日本の杉山清彦は日本學界の「滿州史」を定義することもやはり難しいと指摘する。氏によれば、日本における滿州族と關連した研究には清朝史、清代史、明清史、滿州史、滿族史等、多様な名で呼ばれたが、およそ次のみつつの方向に分類される。第一に、地理空間として滿州を舞台にし、そこで展開された歴史を扱う「滿州地域史」。第二に、女眞の金、元・明以來、女眞族-滿州族の歴史を扱う「女眞-滿州滿族史」及び夫餘・靺鞨から滿州族までツングース系列の諸民族の歴史を扱う「滿族史」。第三に、滿州語で記録された歴史或いはその記録についての研究がそれである。

一方、中國の趙志强は自身が所長を務めている北京市社會科學院滿學研究所が世界「滿學」の中心であることを自認するが、滿州學についての性格な定義を試みていない。代わりに

氏が書いた「中國の滿州學研究近況についての評価」を通じて滿州學界において通用される滿州學の範囲を推測することができる。ここには滿州語及び滿州語文獻資料、滿州族の歴史及び清代制度史、内蒙古と滿州地域、滿州族作家及び民間文學、滿州族の風俗・結婚慣習・服飾・建築、滿州族のシャーマニズム、八旗制度等に関する研究が全て含まれている。

韓國の滿州學は主に滿州語研究に集中してきたという点から中國や日本の滿州學の伝統と大きな差異点を見せる。高東昊によれば、韓國における滿州語研究は時期的には朝鮮時代司譯院における研究と1950年代以降の研究に分けられ、1950年代以降の研究は再び司譯院清學書についての研究と清で刊行された滿州語文獻についての研究に区分される。一方洪性鳩は韓國滿州學の伝統を朝鮮時代思想界に求めている。氏によれば、17世紀明清交代という東アジア國際秩序の変動を経験し朝鮮時代知識人達は獨立的な滿州認識を形成するようになった。許穆や丁若鏞等、朝鮮時代の知識人達は滿州という地理的空間に対する關心とそこに居住する人々、即ち夷狄に対する關心を分離させる獨特の二分法的視角を發展させたのだが、これが即ち「韓國的滿州學」の初期的特徴を示しているという。

滿州學に対する接近方式が學者毎にこのように多様であることは、滿州學研究が各々の地域と時期により、特に研究主体の視角により互いに異なった意味を持っ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ヨーロッパの宣教師達が見た滿州皇室の姿、日本の帝國主義統治者が把握する清と滿州の位置、中國の滿族主義知識人が見た滿州族と中國との關係、そして朝鮮時代知識人が考える滿州とそこの人達についての理解が互いに異なったため、彼等が蓄積してきた滿州學研究の歴史と發展過程もまた相異せざるを得なかったのである。一方、研究主体によりある者は滿州に居住する人々に対する研究を強調したりもし、ある者は地域としての滿州により多くの關心を示している。

2. 東アジアの滿州學と民族主義

上で言及したように地域と國家により滿州學に対する多様な定義と接近方式が發展してきた。しかし東アジアにおける滿州學、特に20世紀に至り登場した近代的學問分科としての滿州學には明らかな共通点が見い出せる。プラセンジット・ドゥアラ(Prasenjit Duara)が指摘するように、20世紀東アジア民族主義の地域的流通と擴散の過程が日本の近代化と帝國主義の民族主義を觸發させたように、中國と韓國の民族主義は日本により仲介された談論や慣行が流通しながら具体化したものである。民族についての觀念と語彙が明治時期日本の學者達によって体系化された後、中國や韓國に再輸入されたという事實以外にも、東アジア三國における發展した民族史は全て「民族的主体の單線的進歩史」として表現されたという点がまさに東アジア民族主義の地域的流通と擴散をよく示している。日本、中國、韓國の近代的歴史學が全て同じフレームの民族主義に基礎を置いた事實はこの地域で發展した滿州學もやはり似たような方向で展開

されたのだろうと推測させる。研究主体の具体的な關心對象は異なっても、彼等の視角はたいへん類似したものであった。

20世紀東アジア満州學のもうひとつの共通点は満州において生まれたり居住する「人」より、その「地域」により多くの關心を傾けてきたという点である。このような特徴は東アジアにおいて民族主義が最も先鋭に衝突した地域がまさに満州であったという事実と密接に関連している。満州學の研究對象地域を定義する問題と関連してまず指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ひとつの地域は「まるで現実的な与件として存在するかのように客観的な定義を下すこともできるが、同時にたいへん恣意的に纏められ、ある人爲的な區域を作り出すこともある」という点である。つまり、ひとつの地域を定義し概念化する過程はたいへん政治的な作業なのである。

地域概念の政治性は東アジアの満州學が研究對象を具体化し發展させる過程においてよく表れている。20世紀初、對外膨張の過程で日本は「滿韓」「滿鮮」「滿蒙」等多様な地域概念を創り出した。1905年以前に日本で登場した「滿韓」と「滿鮮」は韓半島で優越な地位を獲得するため満州に進出したロシアをどのように相手にするのかという当時日本の政治的課題と密接に連結していた。1910年に至り韓日合邦で朝鮮が「滿鮮」から脱落し日本に吸収することで「滿鮮」は次第に意味が弱まる一方、内蒙古進出が重要な政治的課題となることで日本では新しく「滿蒙」という概念が登場した。

地域概念の政治性は20世紀初、中國で登場し始めた「東北」概念でもはっきりと現れる。1932年、伝斯年は氏の著書『東北史綱』の前に付けた「本書が「滿州」ではなく「東北」という名詞を使用していることの意義について」という別途の文を通じて、この地域は「中國の東北」、略して「東北」と呼ぶべきだと主張した。帝國主義列強の侵奪に對抗し、満州は「中國の領土」であり「近代の東北」として新しく再発見されたのである。「滿鮮」が日本帝國主義が創り出した概念であれば、「東北」は中國民族主義が創り出した概念だったのである。そして「滿鮮」と「東北」に對する研究は20世紀日本満州學と21世紀中國の滿學において核心的な主題となった。

日本と中國において満州學の發展過程とその時代的背景を探ってみると、東アジア満州學に共通して民族主義的視角が内在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日本の東洋史と以後登場する満州學は19世紀末ヨーロッパの近代的學問体制が日本に流入したことにその起源を見いだすことができる。ステファン・タナカ(Stefan Tanaka)によれば、明治時期日本の歴史研究者達は西洋と對比される「東洋」という地理的・文化的區分を受容し、東洋から日本を分離し差別化した。日本において東洋史の登場は最初から日本の近代化過程において形成された西洋と東洋、日本とアジア隣國との位階的な國際秩序に對する認識を前提としたものであった。以後、20世紀初に至り、日本の滿鮮史學者達は朝鮮と満州に對して停態的で受動的な歴史像を樹立していくのだが、この歴史認識は日本の東洋史の基になった歴史的位階秩序を再度示してくれる。日本の東洋史研究において中國はたとえその地位は日本より低くても、常に主となる關心對象であった。しかし朝鮮と満州は周辺部に屬し中國より低い位置を占めていた。朝鮮や満州はただひとつの地理

的な空間として考えられただけで、ある歴史的な主体が活動する場として見なされなかった。満州と朝鮮の役割は日本のための防禦壁という点のみであった。

1945年、第2次世界大戦が終わった後、日本の満州學研究は大きく変化した。戦争の集結と共に大陸から後退することで満州學と関連した國家的資源や國民的關心が消えて、現地に対する接近も不可能になった。特に満州學は他の地域よりも日本の帝國主義的膨張と不可分の領域であったため、學界において一種の禁忌となった一方、マルクス主義歴史學が強まることで明清時代社會經濟史研究が活發化した。この過程で日本の清代及び満州族研究は滿文史料を重視する「清朝史」研究と漢文史料に依存して清を中國史の一王朝時代と理解する「清代史」研究のふたつの流れに分けられた。1945年以後に登場した日本の清朝史研究は満州人、満州地域、満州語を重視するという点から1945年以前の満州學が満州という地域的空間に注目したのと對比される。この点は1986年に設立された日本の「滿族史研究會(The Japanese Association for Manchu and Qing Studies)」が意図的に「満州」という呼称を避けている点からも分かる。戦後時代の日本研究者達は19世紀末日本で東洋史研究が始まって以来1945年まで先輩研究者達が帝國主義の膨張のため忠實に服務してきたという負担から自分達を差別化させるため、仕方なく「滿族史」という中國式用語を使用している。

一方、日本において東洋史が登場した時期に中國では満州族と清に対する批判と継承を通じて近代を模索していった。日本の東洋史と満州學が日本の近代的自我認識が形成される過程から發展したように、中國の滿學[満州學]も近代的「中國」の形成、そしてこの過程から現れた漢族の自我認識と密接に関連して發展した。しかし満州學が本格的に登場するまで中國は日本よりずっと長く難しい過程を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先に見てきたように、日本の満州學は近代の日本が東洋、特に中國を自身と分離させ、中國の文明を他者化し、更に中國の領土を膨張對象と見なして發展した。一方、近代中國は自身の母体である清から自らを分離し對象化させながら登場したのである。よって満州學という學問領域も近代中國が清と満州族を對象化させる時にのみ成立が可能であった。つまり、中國の満州學は清が崩壊しその地位に新しく登場した中國が主体となって清と満州族を研究の對象とすることで發展した學問だったのである。しかし中國の満州學が登場するための前提、即ち清と近代中國の分離、そして研究主体と研究對象の分離は簡単に成され得る作業ではなかった。

20世紀初、漢族中心主義と民族主義に基づいた國民黨政府が清を打ち倒して民族主義漢化を主張した時期に本当の意味の満州學研究とは事實上不可能であった。近代の中華明國が過去、清の領土的・民族的遺産をどのように継承するのかを苦心していた20世紀初に満州族の言語と歴史についての研究はむしろ否定されるか批判されるべきものであった。キチョンゲ(Kicengge, 承志)が指摘するように、当時「清史」が「満州歴史」として分離され得なかったのは、中國の清史研究が近代的民族國家建設という時代的課業と密接な関係の中で觸發したためであった。民國時期の清史研究は「中國」を定義するためのものであり、支配層である満州族は腐敗し墮落した夷狄と思われたのである。民國時期の中國は満州學が發展するにはたいへん難しい環境であった。

1980年代に入り中国の満州學は新しい研究環境を迎えることになった。中国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で1988年に出版した『滿族史研究集』によれば、「滿族は全て民族大家庭の一言となり中国の長期的な發展過程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担った」とあり、過去とは異なり滿州族に対する評価が高まっ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中国の清史と滿州學研究には依然として民族主義的、目的論的歴史觀が強く内在されている。つまり、中国という歴史初期の核心的な要素が不斷に進化し一貫性を保つようになったひとつの實態であり、今日の中国の領土内で最初の國家が樹立して以來、中国歴史の全ての時期にはただひとつの合法的な統治權力のみが存在したという信仰が中国の清史研究に前提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

最近、國內外學界で關心を引いている中国の「清史工程」はこのような目的論的歴史認識をよく示している事例として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中国の清史工程は『清史稿』に替えられる新しい清史を編纂し、これを中国伝統の正史のひとつに含めることを目標とする。キム・ヒョンジョン(김형중)が指摘するように、清史工程は中国歴代王朝の官撰正史編纂の伝統を明白に継承しているのみならず、中華民族に対する誇りと國家に対する忠誠心を鼓吹させるという政治的目標を公開的に表明している。學術的には國家主導の歴史編纂の伝統を継承し政治的には歴史編纂の支援を通じて現在中国の強盛を對内外に誇示する機會としたのである。清史工程は學問の政治の中で危険な綱渡りをする可能性を内包しているのみならず、現在の政治的欲望或いはイデオロギーを過去の歴史叙述の中に投影させた正史編纂の伝統に忠實に従うものと見るべきであろう。

21世紀初、中国の滿州學は百年前と比べて劇的に異なる研究環境を迎えている。民國時期の中国には清を政治的・イデオロギー的に克服することが最も大きな課題であった。よってこの時期滿州族に対する關心や研究もやはりこのような課題を遂行するための目的から成された。一方、現在の中国に清は継承しなければならない對象となった。清と滿州族を研究對象とする滿州學も清の肯定的な遺産を強調する方向に進まざるを得ない。しかし20世紀初の滿州學も21世紀初の滿州學も民族主義的・愛國主義的觀點に基づいていると点では共通している。去る百余年間、中国學界で清と滿州族に対する評価は劇的に変化したが、評価の主体である中国の自我認識は全く同じ民族主義に基盤を置いていたのである。

3. 辺境史的觀點の滿州學

日本の滿鮮史と中国の滿學に近代東アジアの民族主義がこのように強く内在していたのならば、これを批判的に克服するための代案として辺境史的觀點の滿州學を提案す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辺境史的觀點は隣接するふたつの政治勢力、或いは社會集團や文化間には境界が曖昧な空間が存在することを認め、ここから發生する頻繁な接触の様相に注目する視角だと言える。またこの空間は時期的推移により、或いはふたつの勢力の關係が変化することに従い、辺

境(frontier)・國境地帯(borderland)・國境(border)と性格が変わったと思われる。一般的に前近代社會でよく発見される辺境は境界が曖昧な空間である反面、近代に形成された國境は隣接するふたつの勢力が互いの領土的境界を明白に区分し設定した線を意味する。一方、ふたつの勢力間の空間が辺境で國境に変化する前に一種の轉換期である國境地帯の段階を経ることになるのだが、この時、中間段階としての國境地帯は辺境の性格と國境の性格を併せ持つと見るべきである。國境地帯は辺境のような曖昧な境界をめぐって頻繁な接触が発生する空間であるが、同時に隣接するふたつの國家が互いの勢力を認め妥協する地点だと呼ぶ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辺境史的觀點の滿州學を可能にする資料として『琿春副都統衙門檔』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琿春は中國吉林省東部に位置した國境都市として、東南にはロシア、西南には北韓と接境する。1714年から1909年まで琿春一帯を管轄した清代の八旗官吏達は軍情・民情・司法と関連した大量の公文書を作成した。ここに保管されていた清代公文書は1900年ロシアにより略奪され、1956年ソ連政府により返還され、今は中國第一歴史檔案館に保存されている。琿春副都統衙門資料の中で初期の文書は主に滿文で作成され、中期には滿文と漢文が兼用され、後期は漢文が主に使用された。琿春副都統衙門檔は238冊に及び、その膨大な數量なだけに内容もたいへん多様である。最も目を引く内容はやはり琿春一帯の兵士を管理して派遣・交代する事等、軍事関連業務である。しかし我々に最も興味深い部分は朝鮮と関連した内容だと言える。琿春は豆滿江に隣接した國境都市であったため、朝鮮人との接触がたいへん頻繁な所であった。兩國間の犯人引渡し問題、會寧開市に参与する事、犯越者と密貿易者の檢舉、外國物資の密賣禁止、辺境の土地開墾や木材伐採取締などがしばしば擧論される。後期はロシアと関連した内容も登場し、ロシアと中國の國境調査と境界碑設置、犯越及び密貿易取締等が擧論される。

辺境史的觀點は時期的範圍(temporality)、空間的背景(spatiality)、使用する言語(language)、そして対象とする人々と彼等の活動(human agency)というよっつの側面から琿春の特徴を分析することができる。『琿春副都統衙門檔』は18世紀初清の勢力が東北アジアを超えて中央ユーラシアまで及んだ時期から20世紀初清が衰退し滅亡する時まで、特定のひとつの場として現れる時代的特徴と変化を通時的に示している。換言すれば、この資料を通じて18世紀から20世紀まで清帝國の攻防をひとつの場所から眺望できるのである。また琿春という國境都市が持つ空間的特徴は清帝國の特徴を把握するのにたいへん有利な地点を提供してくれる。琿春を含む東北地域は清皇室の神聖な發祥地として19世紀中盤まで一般民間人の接近が禁止された場所であり、清帝國を守る滿州族の根據地であり訓練所と思われてきた。しかし、19世紀後半、ロシアを含む西洋列強の壓力で帝國の辺境が危うくなると、清政府は民間人の辺境移住と開發を許容しこれを通じて外勢を防禦しようとした。1880年代琿春が開發されながら清人のみならず朝鮮人移住者まで集まり、いわば「間島問題」を惹起することになったのは、まさにこのような時代的な流れが特定地域に對する清政府の政策に変化をもたらしたためであった。

時期と空間のみならず、この資料が滿文と漢文というふたつの言語で作成されたという点もやはり琿春という地域を理解するのに辺境史的觀點が必要となることを示している。滿州語は言語的にアルタイ語に屬し、滿州文字はモンゴル文字を借用し作られたものであるが、滿州

族が中原を征服する前から漢語の影響を大きく受け始めた。清の國境都市であり満州族の故郷である琿春で作成された公文書が初期には大部分満文で書かれたが後代に下がるほど漢文が徐々に支配的な言語となる事實は、満州族の文化変容が言語使用面で端的に現れるという事實をよく示している。また満州族、漢人、朝鮮人、そして後にはロシア人達がこの國境都市を共有して互いに接触し融合しながら、明確な國境線を確定しようとする中央政府の努力を無力化させ、獨特の邊境的空間を創り出した。中央の政策決定者達、地方の官僚達、そして邊境の住民達等、多様な集団の人々(human agency)が邊境的特徴を形成する過程において各々どのような役割を担ったのかを分析し理解するのに邊境史的觀點はたいへん有用である。

19世紀末に至り琿春一帯豆滿江流域は國境地帯から國境への轉換を経ることになった。この過程は清と朝鮮政府が近代的觀念の外交關係を新しく樹立し兩國の國境を明確な線で區畫することで表現される。興味深いのは20世紀初、この地域が國境として変化する過程で邊境的な姿が同時に現れる。この時期、兩國の知識人達は民族國家の建設を議論し、このため排他的な領土を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力説する一方、一般人達は勞働力を提供したり耕作する土地を求めて國境を越えた。その結果、琿春は諸民族集団が接触し交流する邊境としての特徴を再び現す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20世紀初、琿春一帯では民族國家の建設と帝國主義膨張による諸様相が結合し、國境としての特徴と邊境としての特徴が同時に現れることになった。よってこの地域こそ清と朝鮮の關係が16世紀から20世紀まで変化する様相と、20世紀以來日本の帝國主義が進出し中國と韓國の民族主義が衝突する姿を鮮やかに確認できる空間なのである。東アジアの政治勢力が交流し競走する過程を琿春という邊境を通じて確認することで滿州學の指標を新しく擴大できるものと期待する。

(翻譯：高麗大 韓國史學科 博士課程 榎谷祐一)

參考文獻

- 마크 엘리엇, 「중심으로서의 주변: 만주학의 미래를 위한 서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초청강연, 2010년 8월 23일.
- 『만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발표집, 2011년 4월 15일.
- 스기야마 키오히코(杉山清彦), 「大清帝國史研究の現在-日本における概況と展望」, 『東洋文化研究』 10 (2008年).
- 홍성구, 「만주 역사를 바라보는 한국적 시각의 한 모색」, 『역사와 담론』 55집 (2010).
- 프라센짓 두아라, 「민족의 지구적, 지역적 구성: 동아시아로부터의 관점」, 심재훈 엮음, 『화이부동의 동아시아학- 민족사와 고대 중국 연구 자료 성찰』 (서울: 푸른역사, 2012년).
- 프레신짓트 두아라 저,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서울: 나남, 2006), 327-331쪽.
- 나카미 다쓰오(中見立夫), 김준영 역, 「地域概念의 政治性」 『만주연구』 9집 (2009년).
- 나카미 타쓰오(中見立夫), 「日本的『東洋學』の形成と構圖」, 岸本美緒 編, 『『帝國』日本の學知』, 제 3권, 『東洋學の磁場』 (東京: 岩波書店, 2006).
- 나카미 다쓰오(中見立夫), 「日本の東洋史學黎明期における史料への探求」, 『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 清朝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1992).
- 성근제, 「『東北』인가, 『滿洲』인가 - 근대 동북 지역연구과제 설정의 가능성」, 『중국현대문학』 56호 (2011).
- Stef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p. 12-13 [스테판 다나카 저, 박영재·함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 寺内威太郎, 「『滿鮮史』研究と稻葉岩吉」, 『植民地主義と歴史學-そのままさしか残したもの』, (東京: 刀水書房, 2004).
- 고바야시 히데오 저, 임성모 역, 『만철: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서울: 산치럼, 2004).
- 야마무로 신이치 저, 윤대석 역,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서울: 소명출판, 2009).
- Joshua A. Fogel, ed., *The Teleology of the Modern Nation-State: Japan and Chin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5).
- 오병수, 「중국 국민사학의 인종·강역문제-梁啓超·章炳麟의 만주 인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14호 (2006).
- 요시자와 세이치로 저, 정지호 역, 『내셔널리즘으로 본 근대 중국: 애국주의의 형성』 (서울: 논형, 2006).
- 사카모토 히로코 저, 양일모·조경란 역,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인종·신체·젠더로 본 중국의 근대』 (서울: 지식의 풍경, 2004).
- 키칭거(承志), 「中國における『滿族史』研究」, 『東洋文化研究』 10호 (2008年).
- 王鍾翰, 「清史滿族史研究百年回顧及未來展望」, 趙志强 主編 『滿學論叢』 第1輯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11).

정혜중 외,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년.

유장근 외,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한국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년.

김형중 외, 『중국의 청사 편찬과 청사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년.

김한규, 『요동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對淸·對明 인식의 전개와 양상

趙成山

1. 머리말
2. 대명리론의 의례화·형식화
3. 청나라에 대한 이해와 분석
4. 同文 의식과 조선의 安危 우선론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후기 對淸·對明 인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최근 들어서 대청·대명 인식에 대한 관심은 中華主義 문제와 함께 더욱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아마도 이는 대청·대명 인식을 통하여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밝혀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 대청인식과 대명인식의 관계는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경향이 많았다. 예컨대, 대명리론은 반청인식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17세기에서 18세기 초반에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시기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시기가 되면 대명리론과 청나라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이 같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여전히 대명리론만을 목수하는 이들 또한 상당수 있었지만 지식인들 가운데 많은 수에서 대청인식은 호의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대청인식의 변화문제를 대명인식과 관련하여 파악하는 것은 당시 그들의 의식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양자의 관계는 이분법적인 것은 아니었고, 그 이상의 다른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사상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조망함으로써, 당시 지식인들의 대중국 인식을 좀더 상세히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명리론의 의례화·형식화

18세기 들어서 대청인식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南明 정권이 멸망하고 청나라가 번영을 유지해가자, 대청인식은 서서히 변화하게 되었다. 물론 청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후 많은 시사점을 주는 논의들이 등장하였다. 우선, 北學論의 원형이 될 만한 사유가 나타났다. 老論 洛論 학맥의 金昌協(1651~1708)은 비록 중국이 청나라에 의해서 더럽혀졌지만, 그래도 중화의 유적들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¹⁾ 이와 비슷한 사유는 李喜朝(1655~1724)에게서도 발견되었는데, 그는 비록 여진족이 집권했다고 하더라도 宋·元·明의 諸儒들의 문집과 성리서들은 書肆에 있을 것이니 이를 구해줄 것을 중국에 사신 가는 이에게 부탁하기도 하였다.²⁾ 이는 이적인 청나라와 그 안의 중화문화는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로 18세기 후반 북학론의 원형이 될 만한 사유였다.

이와 함께 청나라가 망하는 것이 조선에 커다란 이로움은 아니라는 지극히 현실론적인 사유도 나타났다. 일찍이 英祖는 “비록 雪恥할 마음이야 있지만,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어찌 시리지 않겠는가? 청나라 황제는 우리나라를 돌봐 주는데 우리 나라는 빈들거리며 지내고 있다”³⁾고 말한 바 있었다. 또한 少論 학맥의 李夏坤(1677~1724)은 청나라가 망할 경우 조선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⁴⁾ 그 이유로 첫째 청나라가 망하면 몽고가 강성해져 조선을 공격할 것이고, 둘째 중국에 眞主가 나와 조선이 청나라에게 협조했던 것을 문책할 것이며, 셋째, 전쟁에서 진 군졸들이 조선에 들이닥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유는 19세기 현실적인 대청인식의 전초를 이룰 만한 것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현실론과 관련하여 李端相(1628~1669)은 명청교체는 後天世의 八八 運數를 거듭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하였고,⁵⁾ 丁範祖(1728~1801)의 경우, 명청교체와 청나라를 氣數의 대변화로써 그대로 인정하자는 논의도 주장하였다.⁶⁾ 이러한 논의들은 명청교체와 그로 인한 변화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유와 함께 17세기 북벌론을 계승한 보수적인 흐름도 극단화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宋時烈(1607~1689)-韓元震(1682~1751)의 湖論 학맥을 계승했던 金若行(1718~1788)은 조선이 황제의 나라가 되어 명나라를 계승해야 한다는 논의를 펼쳤다.⁷⁾ 이 논의는 비록 조선왕의 皇帝 추대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논의가 가졌던 기조 자체는 매우 오래도록 제야의 보수적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이렇게 볼 때 18세기 초반에 이미 이후 대명, 대청인식의 원형이 될 만한 사유들이 대부분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는 조선이 명나라 중화의 전통을 계승한 유일한 나라이며,⁸⁾ 이에 따라서 청나라를 부정적으로 보려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1) 金昌協, 『農巖集』 卷22 「贈黃敬之欽赴燕序」.

2) 李喜朝, 『芝村集』 卷19 「別趙令公錫五赴燕序」.

3) 『英祖實錄』 卷28, 英祖 6年 11月 17日(壬午)

4) 李夏坤, 『頭陀草』 冊18 「送徐平甫命均赴燕序」.

5) 李端相, 『靜觀齋集』 卷14 「寄濟州牧使李候序」, “崇禎甲申 天王之禍 當後天一百二十八世 而再逢八八之灾者也 以大運小運元經會會經運經世之例 參以掛一既濟圖之卦而觀之 則雖不敢明言顯說以漏天機 而運世年直卦與爻之應 亦可有推而知之者矣”

6) 丁範祖, 『海左集』 卷37 「氣數論」

7) 『英祖實錄』 卷110, 英祖 44年 6月 11日(丁卯)

8) 다음과 같은 魚有鳳(1672~1744)의 말은 이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魚有鳳, 『杞園集』 卷19 「送雲沙李尚書世白赴燕序」, “若夫身不去先王之法服 口不絕先王之法言 而彷彿乎諸夏之遺風者 則求之海內外而惟我國然耳”

있었다. 이러할 때, 청나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분석은 사실 불가능하였다. 18세기 후반경 청나라가 중국뿐만 아니라 내륙아시아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하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전성기를 구가하자, 조선 지식인들의 대청인식에도 비로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청나라의 번성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일련의 사상적 움직임들이 등장하였다. 이 동향을 대표했던 것은 北學派였다. 북학파는 현실 권력으로서의 청나라를 인정하고 청나라 속에 남아 있는 중화문물을 적극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조선 사회에 수용되기 어려웠다. 보수적인 지식인들은 북학의 주장이 대명의리론을 버리고 청나라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春秋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¹⁰⁾

하지만 흥미롭게도 북학파 논의의 근간 또한 최소한 그들의 의식 세계 속에서 볼 때, 다른 보수적인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春秋 정신이었다. 박지원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聖인이 春秋를 지은 것은 진실로 尊華攘夷를 위함이었지, 아직 오랑캐가 중국을 어지럽힌 것에 분개하여 중국의 숭상할 만한 실제까지 아울러 배척하라는 것은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들이 진실로 오랑캐를 배척하려고 한다면 중국의 남은 법도를 모두 배우는 것만 같은 것이 없으니, 자기 나라의 무던 습속을 먼저 바꿔서 밭 갈고 누에치고 질그릇 굽고 쇠 녹이는 야장이 일로부터 공업을 고루 보급하고 장사의 혜택을 보이는 데 이르기까지 모두가 배우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열 가지를 배울 때에 자신은 백 가지를 배우고 먼저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어야만 할 것이다.¹¹⁾

박지원은 夷狄이라는 이유로 청나라를 함부로 배척하지 않고, 그것을 섬세하게 분석하여 옳은 것은 옳다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면서 춘추 의리의 선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훗날 박지원을 계승했던 洪吉周(1786~1841)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중국을 받들고 오랑캐를 내치는 것이 춘추의 대의이나, 중국이라도 도가 없으면 배척하여 오랑캐로 여기고 오랑캐라도 도가 있으면 중국으로 여겼다. 지금의 군자는 사람이 현명한지 불초한지, 일이 옳은지 그른지 묻지 않고 오직 자기와 같은 편인지 아닌지에 따라 주거나 빼앗는다.¹²⁾

그들이 청나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春秋에 입각해 있었던 대명의리론의 의미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청인식의 변화에는 그 근간에 기존 대명의리론에 대한 비판과 그로 인한 인식의 변화가 내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북학파의 대명의리론은 어떠한 성격의 것이었는가. 물론 북학파에게 있어서도 대명의리론의 내용이 어느 지식인들의 그것과 크게 달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들도 당대 일반적인 지식인들의 대명의리론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 대명의리론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9) 朴趾源, 『燕巖集』 卷7 別集 「北學議序」.

10) 金履安, 『三山齋集』 卷10 「華夷辨」 上·下;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3 「與金直齋鍾厚書」, 「直齋答書」, 「又答直齋書」.

11) 朴趾源, 『燕巖集』 卷12 別集 熱河日記 「駟汎隨筆」.

12) 洪吉周, 『峴首甲藁』 卷7 藏書紀 一 「春秋默誦」.

18세기 대명의리론은 大報壇으로 상징되었다. 대보단은 국가의 공식적인 대명의리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대보단은 1704년(숙종 30)에 설치된 이래로 19세기말까지 장기간 지속되었다.¹³⁾ 그 안에서의 다양한 변화와 의미들이 있지만, 대보단은 기존의 대명의리론을 하나로 종합, 귀결하는 동시에 대명의리론의 열정이 정리, 해소되는 과정의 한 단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대보단 이전의 과거 대명의리론은 復讐雪恥로서 대표되며, 통일적이거나 정리되지 않은 면들이 있었고 때로는 매우 적극적인 모습도 띠었다. 이를 국왕 중심의 대보단 의례로 통제함으로써 부가적으로 국왕권의 강화와 국가권력의 확장을 도모할 수도 있었다. 대보단의 형성배경을 보면, 현실적으로 청나라에 대한 복수가 어렵고 이에 따라 北伐論에서 尊周論으로 대명의리론이 순화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명의리론은 대보단으로 정리되면서 하나의 ‘의례’와 ‘형식’으로 귀결되어갔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대보단의 성립은 대명의리론이 온건화되고 의례화되는 과정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18세기 초반 들어 李玄錫(1647~1703)의 『明史綱目』(1703)의 편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명나라는 역사화를 통하여 기억의 대상으로 점차 인식되었으며, 현실적인 의미 즉 그것이 갖는 예측할 수 없는 유동성은 사라져갔다. 17세기 동안, 조선의 지식인들은 명나라의 실질적인 회복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 명나라는 관념의 영역이 아닌 현실의 영역에서 존립하였고 역사화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남명정권의 몰락과 청나라의 안정으로 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대명의리론의 형식화는 18세기 중후반 특히 잘 보였다. 이 시기에는 『明朝陪臣傳』, 『風泉錄』, 『華陽尊周錄』, 『尊周錄』, 『尊周彙編』과 같은 대명의리론을 정리한 서적들이 다수 출간되었다. 이러한 서적들의 출간은 대명의리론의 정리·선양 작업인 동시에 한편으로 그것과 결별하는 이중의 행위일 수 있었다. 즉 대명의리론을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이유로 대명의리론 논의가 어떠한 형식으로 일단락되어 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명나라가 현실이 아닌 과거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은 대명의리론이 액자 속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南有容(1698~1773)의 『明史正綱』, 黃景源(1709~1787)의 『南明書』, 徐命膺(1716~1787)의 『資治通鑑綱目新編』, 그 밖에 『明紀提挈』 등은 명나라의 역사화를 의미했다. 명나라의 역사화는 그것을 기억하여 후대에 전승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이제는 망한 과거의 왕조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작용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南明의 존재가 18세기 중후반 史書에서 적극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명나라의 존재가 전적으로 역사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남명의 존재가 문자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남명이 청나라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노론 내에서도 특히 보수적인 입장에 있었던 李麟祥(1710~1760)이 黃景源에게 주는 글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¹⁴⁾ 그들은 젊을 적에 몰래 大義를 강하면서 천하가 다스려지기를 기다렸다. 그러한 가운데 황경원은 『남명서』와 『명조배신전』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관직에 올라서

13) 조선후기 大報壇 문제에 대해서는 정옥자,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66~99쪽; 계승범, 2011, 『정지된 시간-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 출판부 참조.

14) 李麟祥, 『凌壺集』 卷3 「送黃參判赴燕序」 乙亥

젊을 적의 대의를 펼 수 없었고, 조정의 명으로 청나라에 사신 가기에 이르렀다. 이를 이인상은 애석해하면서 글을 썼다. 노론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의견을 견지했던 인물들로서 당시 대청의식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입장에 섰던 이들이 보여준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 대명, 대청인식의 교착지점들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명나라의 역사 정리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명나라를 추억하는 최선의 행위였고, 대명의리론을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들 행위의 어떠한 임계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주목해야 할 것은 황경원이 『명조배신전』을 써서 대명의리론을 선양했다는 사실보다는 그가 그것 이외에는 대명의리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17세기 후반 현종대 대명의리를 놓고 벌인 公義, 私義 논쟁과 같은 것이 보여준 역동성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사실이다.¹⁵⁾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청나라의 乾隆帝가 1776년 명나라 멸망 시에 청나라에 협조한 명나라 인물 120여 명을 『貳臣傳』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다.¹⁶⁾ 당시 명나라에 대한 의리 선양은 청나라라고 해서 크게 반대할 사항이 아니었다. 그러한 점에서 조선의 陪臣傳과 청나라의 貳臣傳은 서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었다.

명나라가 망한 지 100여 년이 넘은 1788년(정조 12)에 명나라 개국일을 맞아 대보단의 예를 행하고 명나라 사람들의 자손들을 대거 서용한 일¹⁷⁾ 또한 조선 정부의 명나라에 대한 태도가 이중적이었음을 보여준다. 成大中(1732~1809)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중국인 가운데 우리나라로 망명을 와서 귀족으로 혁혁한 것은 삼국시대가 으뜸이었다. 고려 때에 송나라 상인으로 망명 온 자와 원나라 신하로서 공주를 모시고 온 자들은 본관을 받고 현달하여 자손도 번성하지 않은 자가 없었지만 유독 명나라의 유민으로 우리나라에 온 자들은 모두들 어려움이 많고 士類에도 끼지 못하니 어찌서 고금이 같지 않은가.¹⁸⁾

사실 조선 지식인들은 명나라 유민들을 좋게 볼 수 없었다. 그들은 조선에 와 약탈 등을 일삼았고 많은 폐해를 조선에 끼쳤다. 그러한 점에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명나라 유민들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성대중의 증언에 따르면 正祖가 그들을 서용하려고 하자, 兵曹에서는 처음에 이를 반대하였다고 하며 정조가 강력히 주장하여 겨우 그들이 서용되었다고 한다.¹⁹⁾

박지원의 「許生傳」에서도 명나라 유민에 대한 조선 정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허생은 명나라 장사들의 자손들이 많이 조선에 와 흠아비 신세로 유랑하고 있으니 종실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보내고 훈척 세가들의 저택들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느냐고 李浣에게 물었지만 이완은 어렵다고 대답하

15) 私義·公義 논쟁에 대해서는 정만조, 1991, 「朝鮮 顯宗朝의 私義·公義 論爭」 『韓國學論叢』 1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이원택, 2000, 「현종대의 服制論爭과 公私義理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16) 乾隆帝는 이들을 大節에 있어서 흠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欽定四庫全書』 御製文 二集 卷7 「命國史館編列明季貳臣傳諭」, “朕思此等大節有虧之人”

17) 『正祖實錄』 卷25, 正祖 12年 1月 12日(乙亥)

18) 成大中, 『青城雜記』 卷3 「醒言」.

19) 成大中, 『青城雜記』 卷3 「醒言」, “今上命以爲騎士將 兵曹難之 上曰 天朝名臣之裔 豈不足爲外國大將 而況騎士將乎 卒除之”

였다. 이 또한 조선 정부의 명나라 유민들에 대한 태도를 시사한다.

명나라 유민에 대한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관념으로서의 명나라와 실질적인 명나라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명나라는 멸망한 왕조였다. 따라서 명나라는 스스로 말할 수 없었다. 조선은 명나라를 대신 말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문화적 권위를 증진시켰다.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중화인 명나라를 조선이 대신 말한다는 것은 그 중화가 사실 조선에 귀속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때 명나라는 조선에 의해서 해석된 조선의 중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²⁰⁾

대명의리론은 그러한 심리적 기저 속에서 만들어졌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대명의리론이 고착상태에 빠지는 것은 18세기 후반경부터였다. 물론 이는 대명의리론 자체가 폐기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대명의리론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문제는 대명의리론이 새로운 형태로 전화되지 못하고 관련된 논의들을 새롭게 양산해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청나라가 ‘제국’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또한 그 의미들이 조선의 지식인 사이에서도 점차 공감을 얻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제국으로서의 성격을 처음 포착했던 이들은 북학과 지식인들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에게 맹목적인 대명의리론은 비판적으로 인식되었다. 대명의리론의 비판과 반성 속에서 그들은 청나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청나라에 대한 이해와 분석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명의리론은 점차 형식화, 의례화되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관념적인 영역으로 들어갔고 이는 현실에서 역동성을 보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당시 북학사상과 같은 적극적인 대청인식이 등장하는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과거 청나라는 분석과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절대악’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북학파에 의하여 청나라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박지원은 『熱河日記』에서 조선의 사대부들이 건성으로 春秋만 떠들고 尊王攘夷의 空談만 백여년 동안 일삼았다고 지적하였다.²¹⁾ 또한 이와 함께 18세기 후반 북학파를 기점으로 중국에 다녀온 지식인들은 청나라의 번성을 인정하고 이를 칭송하기 시작하였다.²²⁾ 대청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온 것이다. 洪良浩와 같은 이들도 청나라의 국가규모가 엄청하고 선왕의 유제가 남아 있어 가벼이 볼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²³⁾

20) 그러한 점에서 尊明은 明에 대한 事大 의식뿐만 아니라 일반 민인들에게 군신질서를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만조, 1997,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01쪽 각주 42) 참조.

21) 朴趾源, 『燕巖集』 卷14 別集 口外異聞 「羅約國書」, “余謂趙譯曰 君年少不解事 我國士大夫白地春秋 空談尊攘百有餘年”

22) 조성산, 2009a,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對淸認識의 변화와 새로운 中華 관념의 형성」 『韓國史研究』 145, 69~75쪽.

23) 洪良浩, 『耳溪集』 卷11 「送李學士鼎運赴燕序」, “然徐察其規模之大 法度之嚴 與夫利用厚生之具 猶有先王

대청인식의 변화배경에는 청나라에 대한 심리적 안도감이 작용하고 있었다. 청나라에 대한 두려움은 辮髮, 衣服 등 조선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가해질지 모르는 강압적 폭력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나라가 그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오히려 조선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였다.²⁴⁾ 또한 18세기 후반경 四庫全書 편찬 등 漢化 정책이 촉진되면서 청나라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태도는 변화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대명의리론의 의례화·형식화 속에서 청나라에 대한 호의적인 이해와 분석으로 단순히 이동해 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쳤지만 여기에는 명나라, 청나라라는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매개가 필요했다. 청나라에 대한 호의가 단순한 親淸의(=親夷狄의)인 태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중화 관념의 새로운 이해가 있었다.

이는 청나라의 제국적 성격과도 긴밀하게 관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만주족의 청나라가 아닌, 천명을 받은 제국으로서 청나라는 만주족 이상의 보편성을 획득해야 했다. 그 보편성은 물론 중원과 내륙아시아를 포괄하는 보편성이었다. 하지만, 중화 개념만 놓고 볼 때에는 청나라는 漢字를 공유하는 지역과 종족들에게 보편성을 가진 제국임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한 점에서 중화개념에 대한 개조와 변형은 그들에게 중요했다.

중화개념은 단순히 중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편문명을 의미하였다. 중화는 원래부터 문화적인 개념이었지만 그 의미는 역사상 계속해서 변화 발전되었고, 이 시기에 더욱 확장되었다. 이 시기 중화 개념의 확대에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준 것은 雍正帝(在位 1723~1735)의 『大義覺迷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⁵⁾ 옹정제는 이곳에서 中華, 夷狄이 갖는 의미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해서 새로운 중화 관념을 설정하였다. 『대의각미록』은 지역과 종족 중심의 고정적인 ‘중화·이적’ 논의를 흔들면서 새로운 보편성과 이에 따른 윤리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청나라가 중화·이적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고 새로운 보편성을 창출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본 논의와 관련된 주요 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의각미록』은 성인이며 중화문명의 대표적인 인물인 舜과 文王을 東夷, 西夷로서 규정하고, 그들의 이적성이 聖德에 전혀 해가 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²⁶⁾ 또한 종래의 華夷之說은 南北朝 시대의 잘못된 유산임을 강조하였다.²⁷⁾ 흥미로운 것은 『대의각미록』이 중화와 이적을 고정적인 것이 아닌 역사상 계속 변화했던 개념으로 설정했다는 사실이다. 『대의각미록』은 과거에 이적으로 규정되던 苗荊楚獫狁은 지금 湖南, 湖北, 山西의 땅인데 오늘날 夷狄으로 지목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말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蒙古도 중국의 판도 안에 들어오면 중국의 강토이니 이를 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²⁸⁾ 묘형초협윤이 지금 중화이듯 몽고도 중국의 판도 안에 들어왔으

之遺制焉 余於是始知大國未可輕也”

24) 俞漢鵠, 『自著』 準本 一 「送族父止軒相公赴燕序 丁未」, “今清人之所以懷好我國者 靡不用極 隆其待遇 厚其贈遺 略其征人 簡其使命 其意豈專以禮義冠裳重我國哉 必有以也”

25) 『大義覺迷錄』에 대해서는 민두기, 1964, 「대의각미록에 대하여」, 『진단학보』 25; 조너선 스펜스 지음·이준갑 옮김, 2004, 『반역의 책』, 이산 참조.

26) 『大義覺迷錄』(近代中國史料叢刊 第三十六輯, 文海出版社, 1967) 卷1 4쪽.

27) 『大義覺迷錄』(近代中國史料叢刊 第三十六輯, 文海出版社, 1967) 卷1 5쪽.

니 중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중화와 이적을 고정적인 것이 아닌, 형성되는 개념으로 이해한 것으로 기존 중화-이적에 대한 상식을 흔들어놓았다.

『대의각미록』은 또한 중화와 이적이 하나의 근원을 갖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天下一家이며 萬物一源인데 중화와 이적이 어찌 구분이 있겠느냐는 논리였다.²⁹⁾ 이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논의로서 인물성동론, 성범심동론을 주장한 낙론의 논리와 흡사하며, 인간의 성품과 호랑이의 성품의 동일성을 주장한 박지원의 「虎叱」과도 사실 동일한 맥락의 논리였다. 이러한 점은 『대의각미록』이 어떠한 이론적 기반에 서있었는가를 말해준다.

옹정제는 이러한 중화, 이적의 논의를 통하여 보편적인 인륜도덕을 강조하였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倫常이 있기 때문이니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君臣의 윤리가 오륜 가운데 가장 첫 번째임을 강조하였고, 이어 華夷로써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³⁰⁾ 이러한 논리는 천명과 군신윤리를 강조하여 청 제국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서 청 제국이 기초한 윤리도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대의각미록』은 심지어 군신의 윤리가 부자보다 더욱 중하다고도 하였다.³¹⁾ 그러한 점에서 군신의리는 『대의각미록』이 주목한 가장 중요한 윤리도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君臣 윤리는 雍正帝가 지은 「朋黨論」에서도 잘 나타나있다.³²⁾

『대의각미록』은 의관제도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의관제도는 땅과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각각 편안함을 취할 뿐, 그 사람의 현부나 정치의 득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였다.³³⁾ 그러한 점에서 『대의각미록』은 의관제도의 우열이 따로 없음을 말하고자 하였고, 자신들의 의관제도가 갖는 특수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위의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 『대의각미록』이 지향했던 이념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대의각미록』은 군신의리를 강조하였으며, 보편성에 기초하여 華夷無分の 원칙을 주장하였다. 또한 중화와 이적 개념은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고자 하였고, 의관제도에 대해서도 고정적인 것이 아닌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대의각미록』이 어떠한 이념에 주목하였고, 그 이념을 통하여 청나라 제국을 운용하고자 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대의각미록』이 중요한 것은 유학적 도덕질서를 통하여 한자문화권, 즉 유학적 도덕질서에 익숙한 지식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대의각미록』이 군신지의를 강조함으로써 曾靜(1679~1736)을 공박하는 것은 유학의 논리로 유학자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는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듯하다.³⁴⁾ 『대의각미록』은 李瀾(1681~1763), 俞漢雋(1732~1811), 宋能相(1710~1758), 李德懋(1741~1793), 成海應(1760~1839),

28) 『大義覺迷錄』(近代中國史料叢刊 第三十六輯, 文海出版社, 1967) 卷1 9쪽.

29) 『大義覺迷錄』(近代中國史料叢刊 第三十六輯, 文海出版社, 1967) 卷2 178쪽.

30) 『大義覺迷錄』(近代中國史料叢刊 第三十六輯, 文海出版社, 1967) 卷1 21쪽.

31) 『大義覺迷錄』(近代中國史料叢刊 第三十六輯, 文海出版社, 1967) 卷1 101쪽.

32) 『欽定四庫全書』『世宗憲皇帝御製文集』卷5 「朋黨論」.

33) 『大義覺迷錄』(近代中國史料叢刊 第三十六輯, 文海出版社, 1967) 卷2 211쪽.

34) 조성산, 2009b,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朝鮮學’ 형성의 전제와 가능성」 『東方學志』 148, 208~209쪽.

李贄(士+甲)(1737~1795) 등의 저작 속에서도 보였다. 이를 통해 본다면 『대의각미록』이 조선 지식인 사회에 상당 부분 널리 유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⁵⁾ 박지원의 경우를 놓고 볼 때, 그는 曾靜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으며,³⁶⁾ 청나라가 이문 업적에 대하여 적극 인정하고자 하였다.³⁷⁾ 『대의각미록』과 당대 조선 지식인, 특히 북학과 사유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君臣之義 강조의 경우를 살펴보면, 韓元震처럼 華夷之辨을 君臣之義보다 강조한 이들도 다수였지만,³⁸⁾ 화이지분과 군신지의는 조선후기 동안 오랫동안 중요한 갈등의 요소였고 북학파의 경우 군신지의를 더욱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洪大容(1731~1783)은 康熙 이후에는 漢人이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은 책망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고,³⁹⁾ 朴趾源은 “중국의 인사들은 康熙 이전에는 모두가 명나라의 遺民들이었으나 康熙 이후는 청나라 황실의 신하요 백성들이니 당연히 지금 왕조에 충절을 다하고 법제를 준봉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⁴⁰⁾ 이는 한편으로 17세기 후반 경부터 있어 왔던 漢黨의 군신지의 윤리를 강조하는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였다.⁴¹⁾

또한 중화와 이적 개념의 유동성을 주목하는 언급들도 보였다. 다음 성대중의 언급은 『대의각미록』의 논리와 거의 흡사함을 보게 된다.

南北朝 시기에 南朝에서는 北朝 사람들을 索虜라고 욕하고 北朝에서는 南朝 사람들을 鱗介라고 욕하

35) 『大義覺迷錄』의 유포현황에 대해서는 김홍백, 2011, 『『大義覺迷錄』과 조선후기 華夷論』 『한국문화』 56, 54~56쪽 참조.

36) 朴趾源, 『燕巖集』 卷14 別集 熱河日記 口外異聞 「羅約國書」, “所以年羹堯 查嗣庭 曾靜輩 指祥瑞爲災咎 誣治績爲疵政 鼓扇四海 播騰文字 有若危亡之象迫在朝夕”

37) 朴趾源, 『燕巖集』 卷12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今清之御宇纔四世 而莫不文武壽考 昇平百年 四海寧謐 此漢唐之所無也 觀其全安扶植之意 殆亦上天所置之命吏也” 이 밖에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청나라를 중화제국으로서 인정하고자 하였다. 洪義俊, 『傳舊』 4 「清國創業君臣論」, “今觀清人爲人柔順寬厚 非如匈奴之頑悍猾賊 是蓋生於東方稟得仁善之性而然也 … 然則非但今皇帝之賢也 蓋當今之時景運重回熙風 廣被天方 啓小康之時 故今皇帝自是福厚之人 又值適來之時 能享六十年太平也 清人之入中國 夫豈偶然乎哉 上觀天意 下考人事 固不可以清人之入中國爲中國之否運也”; 洪敬模, 『冠巖存藁』 7冊 「皇都記」, “清之御宇 今爲六世 而休養昇平 四海寧謐 此漢唐之所未有者 觀其全安扶植之意 殆亦上天所置之命吏也” 이에 관해서는 조성산, 앞의 논문(2009a), 69~75쪽 참조.

38) 韓元震, 『南塘集』 卷17 「答李子三台重」 丁卯 二月, “送示覺迷錄 未及披閱 只憑來書而觀之 則晚村所謂華夷之辨大於君臣之義者 誠是確論”

39)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3 「與金直齋鍾厚書」, “且康熙以後與民休息 治道簡儉 有足以鎮服一時 其耳目習熟 安若故常 百有餘年 則華人之不能引義自廢 奔馳於車弓之招者 亦不必深責也 若以此直歸之滿旗猥獮而不齒於周餘故家之裔 則此豈仁人君子之用心耶”

40) 朴趾源, 『燕巖集』 卷14 別集 熱河日記 「審勢編」, “中州之人士 康熙以前皆皇明之遺黎也 康熙以後即清室之臣庶也 固將盡節本朝 遵奉法制 若造次談論 輸情外藩 是固當世之亂臣賊子也”

41) 조선후기 중화·이적의 분변[華夷之辨]과 군신의 의리[君臣之義]는 서로 경쟁하면서 상충하였던 중요한 두 가지 윤리체계였다. 군신지의는 박지원을 비롯하여 17세기 漢黨 세력과 鄭齊斗(1649~1736) 등이 주장한 것이었다(이와 관련해서는 조성산, 2007,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98~136쪽 참조). 반면에 宋時烈을 중심으로 한 山黨과 老論 측은 화이지분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韓元震은 “華夷之辨이 君臣之義보다 크다는 논의는 진실로 確論”이라고 말하였고, 任憲晦(1811~1876)는 청나라와 조선의 군신관계를 부정하고 있었다(任憲晦, 『鼓山集』 卷8 「看書雜錄」, “近日胡國有亂 設使彼敗歸我國 我國國力 如有可圖之道 雖復讎雪恥 未爲不可 而人或謂臣事已久 不當如是 是何無識之甚也”).

였지만 그래도 쑤나라를 天子國으로 대우하여 曆法은 진나라 것을 썼다. 명나라 말기에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에서는 상대방을 혈뜰을 적에 북쪽 사람들을 獐子라고 지목하고 남쪽 사람들을 蠻子라고 지목하였다. 이는 온 천하 사람들을 모두 오랑캐로 여긴 것이다. 대저 중화와 오랑캐의 구분은 사람이 한 것이니 하늘은 똑같이 균등한 아들로 여긴다. 오랑캐가 중화를 어지럽힌다는 걱정은 舜 임금 때부터 시작되어 『春秋』는 오로지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을 法으로 삼았으니 吳나라 季札 또한 중화의 반열에는 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氣數가 돌고 도는 것은 성인도 어찌할 수가 없으니 초나라와 오나라와 월나라가 번갈아 돌아가며 중국의 맹주가 되었고, 진나라가 천하를 합병하고 五胡가 중국을 어지럽혔다.42)

성대중은 초나라와 오나라, 월나라가 중화의 반열이 아니었다가 이후 중화의 맹주가 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이는 중화가 처음부터 단일한 실체가 아니었고, 역사적으로 그 외연이 확대되어 갔던 이른바 형성되어 가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는 중화의 역사적 범주를 기존과는 다르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었다. 이러한 사유는 洪吉周(1786~1841)에게서도 보였다.

德은 삼황오제 때보다 성했던 적이 없지만 그 땅은 荊楚와 吳蜀이 모두 아직 中國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秦漢 이래로 영토가 점차 넓어져 근세에 이르러서는 거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삼대 때의 중원을 원하십니까? 땅이 너무 좁습니다. 진한 이후의 중원을 원하십니까? 공덕이 낮고 예악이 미미합니다.43)

홍길주는 중화의 덕이 삼황오제 때보다 성했던 적은 없지만 荊楚와 吳蜀은 그 당시 중화의 땅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이는 형초와 오촉이 삼황오제 때는 아니었지만 이후에는 중화가 되었듯이, 이적 또한 중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성대중과 홍길주는 북학파의 사유에 많은 영향을 받은 이들로써44) 그들의 시각은 『대의각미록』이 중화와 이적을 유동적인 개념으로 본 것과 거의 흡사하며, 특히 그 예로 든 경우가 같았다.45) 또한 홍대용은 華夷論을 논하면서 舜과 文王의 예를 들어 夷가 華가 될 수 있음을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金履安(1722~1791)은 순과 문왕은 夷가 아니라고 하였다.46)

이와 더불어 보편성을 중시하는 것도 북학파 지식인들에게 보였다.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과 금수가 하나라는 사유는 『대의각미록』에서도 天下一家, 萬物一源, 一理一氣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보였다.

天의 입장에서 보면 人과 物은 均等하다.47)

42) 成大中, 『青城雜記』 卷3.

43) 洪吉周, 『沆瀣丙函』 卷1 「釋夢」.

44) 다음 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다. 成大中, 『青城雜記』 卷4 醒言, “洪湛軒大容 振古高才也 恨余未及見之”; 洪吉周, 『縹緲乙幟』 卷6 「與李醇溪書」; 洪吉周, 『縹緲乙幟』 卷5 「讀燕巖集」.

4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산, 앞의 논문(2009a), 79~80쪽 참조.

46) 金履安, 『三山齋集』 卷10 「華夷辯 上」, “客有稱洪子之言者曰 有夷於此 棄其魍結 襲我冠帶 服禮義 崇人倫 順先王之教 而進主乎中國 君子其予之哉 余曰 洪子爲設疑耳也 夫夷而去其夷則賢也 賢必不敢奸中國 苟其奸焉 其賢則亡矣 又何子焉 曰 所惡於夷者 爲其習於夷而不可與爲人也 誠反其爲而不已於絕 其於與善不以吝乎 且洪子引舜文王 以爲證也 曰 噫 洪子信以舜文王而夷邪 昔孟子以地云爾也 舜祖黃帝 而文王祖稷 神聖之世也 如之何其夷之”

天이 命한 바로써 본다면 호랑이와 人은 物의 하나일 뿐이다.48)

인간의 처지에서 본다면 중화와 오랑캐는 진실로 나뉘어 있겠지만 하늘이 명한 것으로부터 본다면 殷나라의 嗥冠이나 周나라의 冕旒冠이나 다 각기 당시의 時制를 따른 것이다. 어찌 반드시 유독 淸人의 붉은 모자에만 의심을 두려 하는가?49)

夷狄이 비록 우리와 같은 부류는 아니지만 그들도 사람이다. 하늘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중국과 이적이 어찌 차별이 있겠는가. 聖人이 함께 양육하고 싶어했지만, 지역이 멀어서 중국과 같이 공평하게 베풀지 못한 것일 뿐이다. 주나라는 그래도 명분과 의리로 이적을 배척하였지만 양한 때에는 전적으로 무력을 가하여 오랑캐로 대하고 짐승으로 보아 반드시 섬멸한 뒤에야 그만두려고 하였다. 오랑캐도 중국을 원수로 보고 대대로 이를 갈면서 반드시 한번 보복을 하려고 하였는데, 중국이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은 도리어 그들보다 못하였다. -천고에 명쾌한 의론이니 참으로 유가적 명분에 얽매이지 않았다-하늘이 중국을 싫어한 지 오래이니 어찌 이런 보복이 없겠는가. 다만 보복을 당한 자가 불행할 뿐이다.50)

이러한 표현들은 하늘이라는 절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이적, 금수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대의각미록』의 보편성 강조와 흡사한 논리구조를 가지며, 또한 인간, 이적, 금수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수사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의관제도에 있어서도 진보적인 견해들이 보였다. 박지원은, “인간의 처지에서 본다면 중화와 오랑캐는 진실로 나뉘어 있겠지만 하늘이 명한 것으로부터 본다면 殷나라의 嗥冠이나 周나라의 冕旒冠이나 다 각기 당시의 時制를 따른 것이다. 어찌 반드시 유독 淸人의 붉은 모자에만 의심을 두려 하는가” 하였다.51) 洪羲俊(1761~1841) 또한 “左衽이 어찌 夏나라의 弁冠, 殷나라의 嗥冠, 周나라의 冕旒冠과 다르겠는가! 세상에 따라 損益하는 것”52)이라고 하였다. 그는 복색이란 천자가 교체될 때마다 변하는 것이며 청조가 중국인의 의복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마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였고,53) 청나라 복장으로의 변화를 文質의 순환과정으로 파악하였다.54) 洪大容은 章甫이건 委貌이건 文身이건 雕題이건간에 다 같은 자기들의 습속인 것이니 하늘에서 본다면 어찌 안과 밖의 구별이 있겠느냐고 하였다.55) 그들은 의관은 각 지역과 때의 고유한 풍속일 따름이니 중화와 이적으로 나눌

47) 洪大容, 『湛軒書』 內集補遺 卷4.

48) 朴趾源, 『燕巖集』 卷12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49) 朴趾源, 『燕巖集』 卷12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50) 成大中, 『青城雜記』 卷3 醒言

51) 朴趾源, 『燕巖集』 卷12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自人所處而視之 則華夏夷狄誠有分焉 自天所命而視之 則殷嗥周冕各從時制 何必獨疑於淸人之紅帽哉”

52) 洪羲俊, 『傳舊』 四 「淸人不復衣冠論」, “且淸帝當勦業之時 宜乎其改正朔而易服色 則左衽何以異於夏之弁冠之嗥周之冕 隨世而損益也”

53) 洪羲俊, 『傳舊』 四 「淸人不復衣冠論」.

54) 洪羲俊, 『傳舊』 四 「淸國創業君臣論」.

55)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4 「鑿山問答」, “章甫委貌文身雕題 均是習俗也 自天視之 豈有內外之分哉”

수 없다는 논리에 일정 정도 수긍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의각미록』이 지향했던 중화·이적 개념의 유동성, 보편성의 강조, 군신지의의 윤리도덕 등은 18세기 후반 새로운 화이론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였다. 조선의 지식인들 또한 『대의각미록』에 주목하였고, 그것의 논리는 청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함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박지원으로 대표되는 북학파의 새로운 화이론이 정확히 어떠한 형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의 명나라와 청나라의 존숭과 상호 관계는 어떠한 매개 고리로 연결되고 있었는지는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그 이유는 박지원의 중화이적론에 통일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지원의 중화, 이적 논의들 속에는 다양한 층차가 존재하였다. 그것에는 당시로 볼 때, 보수적인 측면과 진보적인 측면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었다. 첫째, 그는 조선만이 중화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였다. 그는 조선의 의관제도 중에 中華化되지 못한 陋習이 적지 않다는 인식 하에서 철저히 중화의 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다음은 이를 잘 보여준다.

선군은 일찍이 우리나라 부인들의 服飾 및 童子들이 머리를 땅는 제도가 오로지 원나라의 풍습을 답습하고 있음을 병통으로 여기셨다. ... 우리나라가 비록 오랑캐를 배척하는데 엄격하지만 이런 따위 오랑캐의 제도는 편안하게 여겨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안의를 다스리게 되니, 안의는 바로 桐溪 정 선생의 고향이다. 선생이 和議를 배척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동자들로 하여금 모두 변발을 땅은 머리를 풀어 쌍상투를 하게 하였고, 尤菴 선생이 巴串에 거처할 때도 역시 이 제도를 썼으니, 대개 오랑캐의 습속과 섞이는 것을 싫어하여 구별한 것이었다. 또 안의의 훌륭한 선비인 劉君處一이 林葛川과 盧玉溪의 남긴 제도를 따라 鶴鬘衣를 평소의 복장으로 삼고 있었는데, 대개 桐溪 역시 일찍이 입던 것이었다. 선군은 그 제도가 몹시 예스럽고 우아함을 좋아하여 일부러 평상복을 만들어 가끔 이 옷을 입은 채 관아에서 일을 살펴보곤 하셨고, 知印童子 가운데 머리를 땅는 자는 모두 풀어서 쌍상투를 틀게 하고 이것이 옛 總角의 제도이다 하셨다. 이때 나도 四桂衫과 쌍상투로 곁에서 모시고 있곤 하였는데, 모두 선군이 옛일을 좋아하고 감흥에 젖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웃 수령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놀랄만한 습속이라 눈을 부릅뜨곤 하였고 또 풍죽로당을 벽돌로 쌓은 것 역시 처음으로 보는 신기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이것이 모두 오랑캐 청나라의 제도입니까?” 하니 선군은 그 식견 없이 천박함을 비웃었으나 더불어 따지지 않으셨다.⁵⁶⁾

이는 사실 조선후기 보수적인 중화 이적 논의와 다르지 않았다. 宋時烈은 부인들과 未冠者들의 辮髮[뒤로 길게 땅은 머리]는 모두 오랑캐 풍속에서 나온 것이므로 자신의 집안 사람들은 雙紉[두 갈래로 땅아 올린 머리]를 하도록 했으며, 또 부인에게 중국의 제도를 따라 髻를 올려 머리를 꾸미게 하였다.⁵⁷⁾ 송시열뿐만 아니라 辮髮에 대해서는 많은 인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⁵⁸⁾

56) 박종채 저/김윤조 역주, 1997, 『역주 과정록』, 태학사, 137~139쪽.

57) 宋時烈, 『宋子大全』附錄 卷18 語錄 崔慎錄 下, “國內婦人及童子未冠者之辮髮 皆胡俗也 先生家童子之雙紉而不辮髮者 業已久矣 晚來又令婦人 皆從華制而作髻爲首飾 不以駭俗爲嫌 蓋純用華夏 盡變夷風 馴致比屋可封之俗者 實先生志也”

58) 송시열 외에도 尹鳳九(1681~1767), 宋能相(1710~1758), 宋文欽(1710~1752) 등은 변발을 夷狄의 습속

둘째, 『北學議』 서문에서 보이는 중화 이적 논의이다. 그는 청나라가 오랑캐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래 전부터 중원에 이어져오던 중화문물이므로 양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⁵⁹⁾ 이 논의는 이적으로서의 청나라와 중화문물을 분리해서 사유하는 것이므로 아직 이적 관념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 셋째 경우에는 이적 관념이 상당 부분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앞서 의복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내용으로서 가장 진보적인 견해이다. 즉 은나라의 한 관이나 주나라의 면류관이나 그 당시의 時俗을 따른 것이니 청나라의 붉은 모자에만 유독 의심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홍대용은 『鑿山問答』에서 인간의 예와 수목, 금수의 예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중화와 이적의 차이를 無化시킨 바 있었다. 중화와 이적이거나 제각각 자신의 임금을 존중하고 나라를 지키고 풍속에 편안한 것은 모두 같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⁶⁰⁾ 이는 중화와 이적의 본질적인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었다.

위의 경우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기존의 중화-이적 논의의 전제 속에서 마련된 측면이 강하였고, 둘째와 셋째는 북학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둘째와 셋째의 논의에도 차이가 있다. 둘째의 경우에는 중화-이적의 기존 도식이 남아있지만, 셋째의 경우에는 ‘중화-이적’의 기존 이해에서 더욱 벗어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의복으로 중화와 이적을 나누는 것이 아닌, 오직 의복이 갖는 본질적인 측면, 즉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의복의 기능에서 의복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의복의 차이는 중화와 이적의 구분 기준이 아니라, 풍속의 차이일 뿐이었다. 이는 사실 『대의각미록』의 논리와도 거의 흡사하였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두발이 갖는 풍속적 속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도 하였다.

지금 중국 사람이 머리 깎는 것은 금나라, 원나라 때는 없었던 바이다. 만일 중국에서 皇明太祖와 같은 眞主가 나와 천하를 맑게 하여도 백성들이 이런 습속에 굳은 지 벌써 백여 년이 지났다면 또한 혹 다시 머리를 묶고 모자를 쓰는 것을 도리어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할 자가 있을 것이다.⁶¹⁾

그는 지금은 모두 변발을 하니 후대에 혹시 다시 머리를 묶고 모자를 덮어쓰자 하면 불편하다고 할지 모르는 자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하였다. 이는 풍속이 갖는 속성을 지적한 논의였다. 두발이란 그에게 단지 풍속의 의미에 가까울 뿐, ‘중화와 이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⁶²⁾ 물론 그가 의복,

으로서 부끄러워하였다. 尹鳳九, 『屏溪集』 卷14 「與權亨叔」, “我東婦女辮髮上髻 本稱胡俗 重峯先生東還封事 已言其韃胡之俗 … 聞尊家欲行華髻 極可喜”; 宋能相, 『雲坪集』 卷5 「答或人」, “大抵夷服之中 編髮爲甚 苟其一變而上下通行 舉國中無一編髮之民 則陽復之漸 何等大事”; 宋文欽, 『閒靜堂集』 卷7 「婦人服飾攷」, “夫將欲盡祛辮髮之陋 一正華夷之分” 이에 대해서는 조성산, 2011, 「조선후기 西人·老論의 풍속인식과 그 기원」, 『史學研究』 102, 61~64쪽 참조.

59) 朴趾源, 『燕巖集』 卷7 別集 「北學議序」

60) 洪大容, 『湛軒書』 內集補遺 卷4 「鑿山問答」, “是以各親其人 各尊其君 各守其國 各安其俗 華夷一也”

61) 朴趾源, 『燕巖集』 卷15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62) 이러한 사유는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더 널리 퍼져있었다.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는 중국의 深衣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지키고자 하였지만, 자신의 일본식 薙髮에 대해서도 동시에 風俗으로서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옷 深衣를 조선인 가운데 혹자가 그것을 힐난하여 말하기를, ‘그 옷은 심의가 옳은데 그 薙髮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다. 나는 대하여 말하기를, ‘이는 짐짓 風俗을 좇을 따름이다. 泰伯은 荊蠻으로 도망하여 머리를 자르고 문신을 하였지만 성인은 至德을 허여

두발과 같은 것으로 중화와 이적을 나누는 기존 중화-이적의 도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존의 고정적인 ‘중화-이적’의 도식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청나라의 풍속과 문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⁶³⁾ 이는 박지원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중화를 사유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경우에서 박지원이 갖는 중화-이적 논의의 특이성을 찾을 수 있다.⁶⁴⁾

중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련하여 박지원의 대명인식과 대청인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박지원에게는 이적의 왕조도 중화문화를 계승함으로써 중국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러한 점에서 중국역사에 당당히 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청나라는 중화를 계승한 왕조로서 중국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⁶⁵⁾ 그것은 청나라가 일종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명의리론과 개방된 대청인식이 상호 연결되는 것은 이러한 논리적 장치를 통해서였다. 대명의리도 중화사상이요, 대청인식도 중화사상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중화라는 것을 존중하는 것일 뿐, 그 안에 명나라, 청나라의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중화는 명나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청나라로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조선으로 일본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다.⁶⁶⁾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그것이 중화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중화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명의리론과 청나라의 인정은 그의 의식 속에서 공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4. 同文 의식과 조선의 安危 우선론

19세기 대청인식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한편으로 보수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양상들이 보였다. 우선 특기할 만한 것으로 박지원의 『열하일기』의 연장선상에서 개명한 대청인식을 통하여 청나라의 변영과 그 성과를 그대로 인정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었다. 기존의 보수적인 대청인식을 비판하고 청나라를 통하여 얻어진 동아시아의 질서를 인정하고자 했던 이 흐름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문 의식을 통하여 한자를 통한 국제교류와 조선과 중국 지식인 사이의 일체감을 확장하고 나아가 일

하지 않았던가!’ 하였다. 誥者は 고개를 끄덕였다.”(林羅山, 『羅山先生文集』 卷32 『日本思想大系 28』(岩波書店, 1975), 228쪽.) 이에 대해서는 조성산, 앞의 논문(2009b), 201~202쪽 참조.

63) 풍속의 문제는 홍대용도 깊이 사유하였다.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3 『與人書』, “朱子之禮 因宋之俗也 因宜因俗 損益無定法 是以行之無甚是 不行無甚非者 十居二三 今就其二三之輕且小者 并作不易之大典 齷齷焉無或少違 則以此爲禮 吾恐其纏繞拘泥 或不免見笑於林放矣”

64) 『열하일기』에 보이는 자료들로 보건대, 그의 북학사상의 핵심은 둘째와 셋째의 경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의 논리는 박지원의 아들 朴宗采(1780~1835)가 만들어낸 박지원의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된다. 『過庭錄』에 보이는 박지원의 모습은 노론 당파에도 충실했던 인물이며, 의복에도 고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박종체에 의해서 순화된 박지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65) 조성산, 앞의 논문(2009b), 215쪽 참조.

66) 이에 대해서는 조성산, 앞의 논문(2009b), 210~227쪽 참조.

본, 베트남 지식인들과의 문화적 공감대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다음 홍길주의 말은 변화된 세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에게는 명나라와 청나라를 동시에 높이는 것이 의리상 당연한 것이며, 청나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신은 청나라 때 태어났고 그 父祖는 이미 대대로 청나라에서 녹을 받았으며 대대로 청나라 땅을 식읍으로 받은 사람에 대하여 오륙대 이백여 년에 이르러 홀연히 죽을 각오로 맹서하여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하며, 과거에 응시하여 정치에 종사하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무슨 의리인가? 비록 성인이 지금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中庸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오랑캐 나라에 처해 있으면 오랑캐 식으로 산다고 성인께서도 진실로 말씀하셨다. 대저 이미 과거에 응시하고 정치에 종사하였다면 또한 어찌 처우에 맞게 본분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실로 벼슬을 얻고 잃음 높고 낮음을 영욕이라 여기는 자라면 비록 요, 순 시대에 살더라도 부끄러움을 말하기 부족할 것이다. 반드시 지금의 중국인 이후에야 그런 것은 아니다. 【李穡舒가 우리나라 문장을 뽑아 중국 선비에게 장차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말이 ‘皇明’이라고 한 데 미치면 모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높이 올려서 쓰고 이렇게 적었다. ”지금의 중국을 오랑캐라고 내친 것은 진실로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나 명과 청을 함께 높이는 것은 의리상 당연한 바이니 저들이 어찌 금할 수 있겠는가?”】 67)

세월이 점점 지나서 기억하고 있는 것도 점점 멀어져 갔고 조공을 바친 것도 오륙 대, 이백여 년이 되었다. 지금의 사대부들 중에 조상이 숭정 때의 일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그 묘주는 이미 조묘로 옮겨졌다. 연호와 정삭을 받들고 삼가 조공을 바치면서 오륙 대, 이백여 년에 이르기까지 홀로 옛나라의 유민들이라 자처하며, 안으로는 충분을 품고 밖으로 원통함을 참아내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새왕조를 섬기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大報壇 제사는 백 대가 지나도 폐할 수 없다. 그러나 대국을 오랑캐라고 배척하면서 사대부들은 언어와 문자로 마음대로 업신여기고 욕하며, 사사로이 관각한 서책에 숭정 후 몇 갑자라고 칭하면서 이것으로 높은 절개라고 표시하는 일은 속종 이전이라면 가능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의리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68)

또한 홍길주는 大報壇 제사는 백대가 지나도 폐할 수 없지만, 청나라를 오랑캐로 배척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대명의리론과 대청인식 사이의 긴장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명나라와 청나라를 동시에 높이는 것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朴珪壽(1807~1876)가 중국에 갔을 때 한편으로 청나라를 정통왕조로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명나라의 유적을 찾는 것은69) 그의 의식 속에서 양자는 모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오히려 이 때가 되면 청나라가 이적이냐 아니냐하는 문제보다는 중화문명의 공유성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서양문명의 도래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성리학의 理氣論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서양문명의 존재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67) 洪吉周, 『沆瀣丙函』 卷9 叢秘紀 五 睡餘瀾筆續 下.

68) 洪吉周, 『沆瀣丙函』 卷9 叢秘紀 五 睡餘瀾筆續 下.

69) 김명호, 2008,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432~433쪽.

서는 기존의 익숙한 것을 통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지식인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洪良浩는 서양의 기이한 물건들을 접하면서 중국 지식인 紀昀을 언급하였다. 이는 중국 지식인들의 지식을 통하여 서양문물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얻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된다.⁷⁰⁾

19세기 주목할 만한 문화현상인 同文意識과 並世意識은 이러한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漢字라는 같은 글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식을 통하여 중국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은 문화적 동류 의식을 갖고자 하였다. 이에 金正喜(1786~1856)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관심 가졌던 碑學은 조선, 중국, 일본 사이에 존재했던 문자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학을 통하여 조선, 중국, 일본이 옛날부터 중화문명을 공유하였으며 발전시켰던 하나의 문화 공동체임을 확인하였다.⁷¹⁾ 사실 이는 四庫全書의 편찬과 깊은 관련성을 가졌다. 사고전서 편찬은 한자라는 국제어로서 동아시아 문명을 아우르는 의미를 결과적으로 낳았다.

조선과 일본에 퍼져있는 逸書들과 善本들을 찾는 과정에서 그들은 문화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화문명의 번성을 청나라가 유지한다는 의식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이는 명나라, 청나라라는 범위를 넘어서 중원에 면면히 이어져온 중화문명이 존재한다는 의식과도 맞닿아있었다. 이러한 변화된 대청인식은 18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꾸준한 변화의 결과였다.

이 시기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세시풍속서들 또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柳得恭의 『京都雜志』, 金邁淳(1776~1840)의 『洌陽歲時記』, 洪錫謨(1781~1857)의 『東國歲時記』가 이 시기 등장하였다. 이 시기 세시풍속서들은 조선의 독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조선의 세시풍속이 중국과 어떻게 같고 같은 연원을 공유하고 있는가를 찾았다.⁷²⁾ 이러한 문제는 중국과의 공동운명의식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풍속을 통하여 ‘차이’보다는 ‘공유점’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신증론을 살펴볼 수 있다. 경세관료와 경제학에 관심 가졌던 지식인들은 의리의 문제보다는 조선의 안위를 가장 우선에 두는 경향을 보였다. 18세기 후반 尹行愆(1762~1801)의 경우, 대륙의 정세에 예의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天道反復의 기미는 반드시 동방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하여⁷³⁾ 조선중화주의적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이후 지식인들은 주목할 만한 현실론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고정적인 대명, 대청인식보다는 조선의 안위를 우선 문제로 설정하고 대륙의 정세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당시 서양, 몽고 등 대륙의 정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조선의 미래 전략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金祖淳(1765~1832)은 중국의 안위와 조선의 안위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중국을 잘 살펴보아야 함을 언급하였고,⁷⁴⁾ 趙寅永(1782~1850)은 청나라가 곧 쇠퇴의 조짐을 보일 것이

70) 洪良浩, 『耳溪集』 卷11 「送趙尙書爾眞尙鎮赴燕序」.

71) 조성산, 2010,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조선의 碑學 유행과 그 의미」, 『정신문화연구』 119.

72) 조성산, 2012,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朝鮮 세시풍속서 서술의 특징과 의의-‘中國’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0.

73) 尹行愆, 『碩齋稿』 卷11 「送閔判樞鍾顯之燕序」.

74) 金祖淳, 『楓臯集』 卷15 「送桐漁李判書赴燕序」.

라고 경고하면서 우리는 그 피해를 볼 것인즉 미리 이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이 최전성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음을 인지한 것이다.⁷⁵⁾

俞莘煥(1801~1859)은 실리적인 경향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다. 그는 철저히 조선의 안위와 관련해서 청나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할 때 청나라는 망해도 근심이요 망하지 않아도 근심이였다.⁷⁶⁾ 그는 조선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중국에 환란이 있게 되면 조선 또한 그 해를 받게 된다고 하면서 서양이 중국을 석권하면 조선도 해를 받게 될 것이요, 서양이 승리하지 못하면 조선을 향하여 공격할 것이니 조선은 중국의 정세에 대해서 깊이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⁷⁷⁾ 따라서 조선은 미리 중국의 정세를 깊이 살펴서 조선이 살아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대비론을 펼쳤다.⁷⁸⁾ 청나라와 조선의 운명공동체론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⁷⁹⁾ 이를 보면, 그에게는 고정적인 의리명분론보다는 조선의 안위가 최우선이었다. 기존에 대명의리론이나 반청의식에서 보이는 의리 중심적인 사유는 찾기 힘들었다. 그러할 때 청나라의 안정은 조선의 안정과 직결되는 사항이었다. 청과의 사대관계에 의존하여 서양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자 한 것은 이 시기 조선의 기본적인 외교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⁸⁰⁾ 이 시기에는 대명의리론과 반청의식 등이 여전히 재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5. 맺음말

18세기 후반에 들어 대명의리론은 사실상 정체상태에 빠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는 청나라가 최대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대명의리론의 정체 속에서 청나라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비로소 나올 수 있었다. 북학과 지식인들은 기존의 중화-이적 논의에서 벗어나 중화와 이적의 유동성과 변화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는 그들이 청나라를 단순히 여진족의 나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대륙에 명나라 이후 탄생한 새로운 중화제국으로 보는 것에 동의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북학과 지식인들은 청나라를 중화제국으로 보는 과정에서 역으로 제국을 운영하는 여진족의 편협함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청나라 비판은 기존에 청나라를 단순히 이적으로 여겨 비판하는 것과는 달랐다.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청나라의 역사적 실체에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선의 정책방향 등을 결정짓는 데 중요하였다. 박지원 등 북학과 지식인들은 한자문화권 중심으로 청나라를 바라보았고,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화제국의 면모도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인식의 한계

75) 趙寅永, 『雲石遺稿』 卷9 「送內兄洪癡叟學士起變行臺之燕序」.

76) 俞莘煥, 『鳳棲集』 卷3 「送淵泉洪公如燕序」, 辛卯.

77) 俞莘煥, 『鳳棲集』 卷3 「送人如燕序」.

78) 俞莘煥, 『鳳棲集』 卷3 「送淵泉洪公如燕序」, 辛卯.

79) 俞莘煥, 『鳳棲集』 卷3 「送尹侍讀釋沃埵如燕序」.

80) 김명호, 앞의 책, 429쪽.

를 갖지만, 그럼에도 청나라가 천명을 받은 제국이라고 인식한 것은 중요한 변화였다. 그 과정에서 『대의각미록』의 주장들에 일정 정도 동의하였다.

그들은 중화를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개념으로 파악하였고, 그러한 가운데서 조선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한자로 구성된 중화문화에 대한 옹호 또한 강해졌다. 19세기 동문의식의 확장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특히 서양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폭되면서 한자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었고, 청나라를 이에 대한 수호자로서 여기는 의식도 마련되었다. 또한 19세기 중반경에는 의리론에서 벗어나 조선의 안위를 우선으로 하는 현실론도 등장하였다.

參考文獻

〔史書 및 文集〕

- 『英祖實錄』 『正祖實錄』 『欽定四庫全書』 『大義覺迷錄』
金履安, 『三山齋集』
金祖淳, 『楓臯集』
金昌協, 『農巖集』
朴趾源, 『燕巖集』
成大中, 『青城雜記』
宋時烈, 『宋子大全』
魚有鳳, 『杞園集』
俞莘煥, 『鳳棲集』
俞漢雋, 『自著』
尹行恁, 『碩齋稿』
李端相, 『靜觀齋集』
李麟祥, 『凌壺集』
李夏坤, 『頭陀草』
李喜朝, 『芝村集』
林羅山, 『羅山先生文集』
任憲晦, 『鼓山集』
丁範祖, 『海左集』
趙寅永, 『雲石遺稿』
韓元震, 『南塘集』
洪敬模, 『冠巖存藁』
洪吉周, 『縹碧乙幟』
洪吉周, 『沆瀣丙函』
洪大容, 『湛軒書』
洪良浩, 『耳溪集』
洪羲俊, 『傳舊』

〔單行本〕

- 정만조, 1997,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박종채 저 · 김윤조 역주, 1997, 『역주 과정록』, 태학사.
정옥자,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 조너선 스펜스 지음·이준갑 옮김, 2004, 『반역의 책』, 이산.
- 조성산, 2007, 『조선후기 낙론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 김명호, 2008,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 계승범, 2011, 『정지된 시간-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 출판부.
- 이원택, 2000, 「현종대의 服制論爭과公私義理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研究論文〕

- 민두기, 1964, 「대의각미록에 대하여」 『진단학보』 25.
- 정만조, 1991, 「朝鮮 顯宗朝의 私義·公義 論爭」 『韓國學論叢』 1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 조성산, 2009,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對淸認識의 변화와 새로운 中華 觀念의 형성」 『韓國 史研究』 145.
- 조성산, 2009,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朝鮮學’ 형성의 전제와 가능성」 『東方學志』 148.
- 조성산, 2010,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조선의 碑學 유행과 그 의미」 『정신문화연구』 119.
- 김홍백, 2011, 「『大義覺迷錄』과 조선후기 華夷論」 『한국문화』 56
- 조성산, 2011, 「조선후기 西人老論의 풍속인식과 그 기원」 『史學研究』 102
- 조성산, 2012,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朝鮮 세시풍속서 서술의 특징과 의의-‘中國’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0.

구미 중국사 학계의 지구사(Global History) 서술과 한국사

— 조선후기 정체성 연구로의 시사 —

이 정 일

1. 서구중심주의와 중국중심주의

서구중심주의는 구미학계 동아시아의 역사서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大國’ 중국의 역사는 구미학계 동아시아사 연구에 있어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중요한 사실은 이미 1970년대부터 서구중심주의적 해석에 대한 신중한 재고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등장했다는 점이다.¹⁾ 사상과 문화면에서도 봉건적, 보수적으로 이해돼 왔던 儒學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학술적 성과를 이룩한 연구자 그룹도 생겨났다.²⁾

2000년대 이후에는 일부 중국사 연구자들이 새로운 방식의 지역사와 세계사 통합을 주장하는 글로벌 히스토리(global history) 서술의 주창자로 활약하고 있다.³⁾ 특히, 유럽이 근대 문명과 자본주의를 주도하게 되는 16세기부터 18세기 동안 아시아와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유럽 자본주의 형성과 근대문명 수립에 밑거름이 되었음을 밝히는 연구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⁴⁾ 이들은 중국사 자체의 역사적 패러다임 속에서 중국중심(China-centered)의 중국사 서술을 강조하면서 일부 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보편적 세계사로 인식한 서구중심주의 역사서술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⁵⁾ 16-18세기

1) 대표적인 학자는 벤자민 슈와르츠라고 할 수 있다. Benjamin I. Schwartz, “The Limits of “Tradition Versus Modernity” as Categories of Explanation: The Case of the Chinese Intellectuals,” *Daedalus* Vol. 101. No. 1, 1972, pp. 78-79.

2) 이 경우는 주자학 혹은 신유교를 유럽 르네상스의 동아시아적 대칭으로 설정해 놓고 서구에서 말하는 근대성의 발견에 비견하는 사상적 내지는 지적 운동으로서 보고자 하는 경향이 짙었다. 신유교의 긍정성을 중국사 자체의 문맥에서 찾기 보다는 근대성을 추구해 온 유럽사에 준거틀을 두고 근대적 지향의 발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투 웨이밍과 테오도르 드 베리의 유교인식이 다소 이러한 경향에 가깝다. *Principle and Practicality : Essays in Neo-Confucianism and Practical Learning*, eds., Wm. Theodore de Bary and Irene Bloo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9; Tu Wei-ming,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Moral Education and Economic Culture in Japan and the Four Mini-Drag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eds. Wm. Theodore de Bary and Tu Weiming, Columbia University, 1998 참조.

3) 빈 왕, 포머란츠, 크로슬리 등을 꼽을 수 있다.

4) R. Bin Wong, *China Transformed: Historical Change and the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K. Pomeranz and Steven Topik, *The World That Trade Created: Society, Culture, and the World Economy, 1400 to the Present*, M.E. Sharpe, 2006 참조.

5) 대표적인 학자로 군트와 홉슨을 예로 들 수 있다. Andre Gund,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2003; J. M. Hobson, *The Eastern Origins of Western Civilis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참조.

중국사를 기존의 서구중심주의에서 생성된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점에서는 동아시아 역사서술 상 하나의 진전된 전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히스토리의 탈서구중심주의 접근법에 대해서 보다 신중히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다. 기존 서구중심주의에서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들이 보편적 근대로 본질화(essentialization)됐다. 탈역사적 본질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선결돼야 할 사항은 유럽사 자체의 맥락 속에서 보다 입체적인 비교사적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내적 역동성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유럽 각 지역의 구체적 역사성과 구조적 가변성을 부각시키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글로벌 히스토리의 관심과 주제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이른바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일부 유럽 국가들에 다소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 서구와 비서구라는 이분법 뿐 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유럽사 자체의 본질화 문제가 철저히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서구중심주의를 이루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 서술을 위해서는 유럽사 자체의 탈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아시아 각 지역의 역사성과 구조적 가변성에 대한 연구가 진척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여전히 자본주의와 근대문명의 주체인 유럽과의 접촉이 전제되지 않는 아시아 역사는 세계사 전개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논리, 즉 서구중심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히스토리에서는 16-18세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건설한 아프리카, 아라비아, 인도 및 동남아시아 등지의 해상 무역로와 그 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가 자본주의와 근대문명 건설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사를 서술하는 있어서 북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과의 상호작용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明·淸朝는 대외관계에 있어 남부 해안지역을 통하여 3백년의 긴 시차를 갖고 접근해 온 유럽 국가들을 주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북중국에 위치한 북경은 13세기말부터 19세기말까지 중원제국의 수도였다. 청조말까지 몽골과 만주 뿐 아니라 조선과 베트남은 기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간주됐다.⁶⁾ 몽골 및 칸 세력들(khantes)은 중국 북부와 중앙아시아, 북부 인도,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에 걸친 유라시아 대륙의 역사 전개에 큰 영향을 끼쳤다.⁷⁾ 이러한 대륙 패라다임은 명·청조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세계질서와 동아시아 문명론 전개, 구체적으로 북중국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글로벌 히스토리가 주장하는 자본주의와 근대문명의 史的 전개에 있어 아시아의 기여는 남중국

6) 이은자, 한국 개항기(1876-1910) 「중국의 治外法權 적용 논리와 한국의 대응」, 『東洋史學研究』 92, 동양사학회, 2005, 187-225면; 구선희,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와 전통적 조공관계의 성격」, 『사학연구』 80, 한국사학회, 2005, 151-185면; 최희재, 「월남 (越南), 조선 (朝鮮)과 1860-80년대 청조(淸朝) 조공국정책(朝貢國政策)의 재조정(再調整)」, 『역사학보』 206, 역사학회, 2010 참조.

7) Fred W. Bergholz, *The Partition of the Steppe: The Struggle of the Russians, Manchus, and Zunghar Mongols for Empire in Central Asia*, Peter Lang, 1993; David Christian, *A History of Russia, Central Asia, and Mongolia*, Blackwell Publisher, Vol.1, 1998; Peter C. Purdue,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Culture, Courtiers, and Competition: The Ming Court (1368-1644)*, ed., David Robins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8 참조.

의 해상 무역을 통한 일부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이다. 이러한 접근은 중국과 유럽 일부 국가 간 상호교류에만 초점이 맞춰져 중국사가 유럽사와 대등한 입장에 놓여 질지 모른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양자 구도가 기존의 서구중심주의에서 나온 충격-반응 식의 이분법적 해석과 어떤 근본적인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⁸⁾ 자본주의와 근대문명의 史的 조망에서는 유럽사의 스펙트럼을 넘어 설 수 있는 세계사적 시각의 확보라는 의의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사 자체의 시각에서 볼 때는 위에서 언급한 북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적 역동성은 간과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중국과 2천년 이상의 긴 시간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며 전개된 만주, 몽골, 한국 등 이웃 지역의 역사 전개도 전자본주의적, 전근대적, 궁극적으로 후진적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 히스토리가 주장하는 중국중심의 역사서술을 새로운 차원의 지역사와 세계사 결합의 시도로 보기에 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남북 두 방향의 역사적 전개에 동시적으로 주목하면서 동아시아 내의 역사성과 구조적 가변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때, 중국사와 세계사의 상호관련성을 보다 새롭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선후기 정체성 연구와의 관련

1990년대부터 구미학계의 한국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놀랄만한 성장을 거두었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한국사는 19세기 이전에는 중국의 역사와 문명의 영향 하에서 전개됐고 20세기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부터는 일본을 통해서 이식된 서구 근대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돼 왔다. 서구에 익숙한 타자의 역사로 자리 잡은 중국사와 일본사가 선점한 동아시아사 학계에서 한국사는 이 둘을 거쳐서 이해되는 일종의 어색한 타자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¹⁰⁾ 구미학계에서 나온 다수의 한국사 관련 논문들이 중국과 일본 ‘중간쯤의 한국’

8) 서구중심주의의 충격-반응 이론의 한계는 이미 1980년대에 중국사 연구자인 폴 코헨에 의해 논의된 적이 있다. Paul A. Cohen,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pp. 9-16.

9) 최근 국내학계에서는 세계학계의 한국학 연구의 흐름을 인식하면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한국학을 수립하기 위한 건설적 방향들을 모색해 오고 있다. 김경원·임현진 공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1996; 임재해, 『국학의 세계화와 국제적 제휴』, 집문당, 1999 참조.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한국사의 대응 내지는 위치 재정립이이란 측면에서 세계사와 지역사의 소통에 대해 논의가 전개돼 왔다. 고영진, 「한국사 속의 세계화, 주체성, 그리고 개혁」, 『역사와 현실』 37, 한국역사연구회, 2000, 48-72면. 한편, 서양사 및 역사교육 분야 전공자들에게서는 지구사 담론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다. 강선주 「세계화 시대의 세계사 교육: 상호관련성을 중심원리로 한 내용구성」, 『역사교육』 82, 역사교육연구회, 2002, 41-68면; 조지형, 새로운 세계사와 지구사 -포스트모던 시대의 성찰적 역사-, 역사학보 173, 역사학회, 2002, 335-369면; 데이비드 크리스티안, 「Why Global History?」, 『한국사학사학보』 20, 한국사학사학회, 2009, 149-178면 참조.

10) 이런 측면에서 ‘익숙한 타자’ 중국과 일본에 대한 근대 초기 문명, 정체성, 세계관 등의 주제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D. R. Howland, *Borders of Chinese Civilization: Geography and History at*

관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전제로 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은 바로 ‘타자의 타자’로서 인식되는 이중적 굴절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¹¹⁾

이중적 굴절의 문제는 조선후기 정체성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는 근대성의 발견이란 주제 아래 1인칭 주체로 군림해 온 서구중심주의적 관점과 동아시아 (유교)문명의 종주인 중국이란 또 다른 1인칭 주체에 대비되는 3인칭 객체의 입장에서 서술된 경향이 크다. 유교 문명이 중국에서 기원함을 본질화하여 중국문명과 유교문명을 평면적으로 등치시키는 문제는 전통시대, 특히 조선시대 중국과 한국을 중심부-주변부의 관계로 고착화 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조선후기 정체성 연구에 있어서도 그 역사적 맥락과 구체적 전개를 제대로 인식하고 못하고 중국사의 존재감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얼마나 조선 고유의 비유교적 가치들이 보존됐는가? 얼마나 탈중국적인 사고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었는가? 등의 문제는 근대성의 유무와 직결됐다.

한편, 한국사 및 조선후기의 주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선불리 탈서구중심주의와 탈중국중심주의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탈서구중심주의와 탈중국중심주의가 서구중심주의와 중국중심주의에 대한 ‘있었다-없었다’ 내지는 ‘충격-반응’과 같은 이분법적 논리구조에 상응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자칫 서구와 중국의 존재감만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서구중심주의와 중국중심주의를 비판만 하는 것은 오히려 서구중심주의와 중국중심주의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논리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¹²⁾

그렇다면 조선후기 정체성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탈중국과 근대(성) 발견에 집착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기본적으로 서구중심적 거대담론 구조의 탈역사화와 이분법적 사고에 맞서기 위해서는 보다 역사적 구체성과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열린 사고의 연구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사의 수많은 서술주체와 행위주체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문명, 사회, 세계, 자연, 우주를 이해하고자 했는가에 보다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¹³⁾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역사주체(historical agency)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처한 역사적 조건과 상황에 대하여 자기 동기부여의 논리를 개발했는가? 어떻게 자기인용과 자가조정 of 틀을 구축함으로써 당면한 역사 현상에 대해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했는가? 이와 같이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역사주체에 대한 재인식을 통하여 그 지역의 개별 역사

Empire's End, Duke University, 1996; Shogo Suzuki, *Civilization and Empire: China and Japan's Encounter with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Routledge, 2009.

11) Andre Schmid,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pp. 9-17.

12) 대안 없이 해체와 탈중심화를 강조하는 포스트 이론들이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obert Young, *White Mythology: Writing History and the West*, Routledge, 1990, p. 127; 강상중 저,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194-204면.

13) 배우성, 「조선후기의 異域 인식」, 『朝鮮時代史學報』 36, 2006; 박미혜, 「유교적 젠더 정체성의 다층적 구조: 『미암일기』, 『목재일기』, 『쇄미록』, 『병자일기』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9, 2008; 조용희, 「英祖 御製와 風泉, 그리고 風泉의 古典化 양상」, 『藏書閣』 20, 2008; 노혜경, 「英祖代 皇朝人에 대한 인식」, 『泰東古典研究』 37, 2009; 이진경, 「연암사상에 보이는 양명학과 도가철학의 회통성」, 『陽明學』 24, 2009; 이경구, 「조선후기 주변 인식의 변화와 소통의 가능성」, 『개념과 소통』 3, 2009; 김성수, 「朝鮮時代 醫員의 변화와 自己意識 형성」,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 32, 2011

성과 구조적 가변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접근은 민족-국가 담론과 이분법적 사고를 기반으로 했던 기존 서구중심주의를 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주지하듯이, 서구중심주의에 기반한 민족-국가/민족주의 담론은 유럽 각 지역의 다양한 역사주체들을 근대 민족-국가라는 하나의 고정된 틀에 끼워 맞췄다.¹⁴⁾ 18세기 이전 비유럽 지역에서 전개되는 역사주체들의 자타인식을 후진적인 수준으로 격화해서 근대 유럽의 민족-국가에서 보이는 고도의 자기의식적 정치문화공동체(politico-cultural community)의 면모는 결여된 것으로 인식했다.¹⁵⁾ 공간의 동시간화, 정치적 중심지의 등장, 전국 규모의 소통망 형성,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보편 담론의 창출 등은 서구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생성됐고 정체성 형성의 최고봉인 민족-국가로 수렴됐다고 믿었다. 이러한 단선적, 배타적, 이분법적 전제는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역사주체 간 복잡한 길항관계와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이들을 조건화하는 개별 역사성과 구조적 가변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조선후기 집단적 정체성은 중국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질서에서 독자적인 政體를 바탕으로 유교 문명공동체를 추구한 것이었기에 서구중심적 근대주의에서 정의하는 민족-국가 내지는 그 원형으로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단위의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 수준에서 어떤 공동체를 전망하고 기획하는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선이란 공간을 같은 시간대로 재구성하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내면적 자연스러움의 기제들이 만들어져 ‘우리’와 ‘타자’의 차별화가 이루어 지는지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때 조선후기 정체성 연구는 당시 조선이 가진 개별 역사성과 구조적 가변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들어내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내학계의 조선후기 자타인식 및 집단적 정체성 연구는 개인 사서·문집류 중심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조선후기 정체성 담론을 주도하고 생산한 인물 대다수가 老·少·南 黨論에 상관없이 국정 운영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당시 국가 단위의 서술 주체에 의해 기획된 공공 기록물들을 통하여 공적 영역에서 기획되고 생산되는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될 때 조선후기 정체성 문제를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¹⁶⁾ 조선후기 정체성 담론 연구에서 국가 단위의 공적 부분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명청교체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동시간화, 자기 객관화, 보편문명, 주체성 등 자타인식/집단적 정체성 형성 및 전개를 살필 수 있는 주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4) Prasenjit Durara,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 Questioning Narratives of Modern Chin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pp. 3-27.

15)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1983.

16) 최근 조선후기 공적 영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철, 『대동법-조선 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2010; 박광용, 「조선의 18세기」, 『역사학보』 213, 2012.

3. 맺음말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구미 중국사학계의 글로벌 히스토리는 기존의 서구중심주의와 중국중심주의를 극복 과제로 남겨 두고 있다. 다양한 역사주체들의 동선을 중심으로 개별 역사성과 구조적 가변성에 대한 심화연구가 진행될 때 보다 진정성을 지닌 글로벌 히스토리에 대한 전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개별 지역이 갖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지역중심의 역사(locale-specific history)와 세계의 역사(world history)에 대한 균형적 시각의 비교연구를 추구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선후기의 역사서술, 특히 자타인식/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도 내적 동력과 외적 동력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이 시기를 호흡하며 살았던 역사주체들이 어떻게 자아와 타자를 인식했는가를 당대적 문맥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조선중심적(Chosŏn-specific) 서술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한국사’를 전망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歐米中國史學界の地球史(global history)叙述と韓國史

：朝鮮後期アイデンティティ研究への示唆

李 廷一

1. 西歐中心主義と中國中心主義

西歐中心主義は歐米學界東アジアの歴史叙述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大國」中國の歴史は歐米學界の東アジア史研究において至大な關心の對象であった。重要な事實はすでに1970年代から西歐中心主義的解釋に對する慎重な再考を主張する研究者達が登場したという点である¹⁾。思想と文化面でも封建的、保守的に利用されてきた儒學に對してより肯定的な方向で學術的成果を成した研究者グループも生まれた²⁾。

2000年代以後は一部中國史研究者達が新しい方式の地域史と世界史統合を主張する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global history)叙述の首唱者として活躍している³⁾。特にヨーロッパが近代文明と資本主義を主導するようになる16世紀から18世紀の間、アジアとの文化的、經濟的興隆がヨーロッパ資本主義形成と近代文明樹立の基盤となったことを明らかにする研究成果を出し始めた⁴⁾。彼等は中國史自体の歴史的パラダイムの中から中國中心(China-centered)の中國史叙述を強調しつつ、一部ヨーロッパの歴史的經驗を普遍的世界史として認識した西歐中心主義の歴史叙述に挑戦しているのである⁵⁾。16-18世紀、中國史を既存の西歐中心主義から生成された他者の一

1) 代表的な學者としてベンジャミン・スワローツ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Benjamin I. Schwartz, "The Limits of "Tradition Versus Modernity" as Categories of Explanation: The Case of the Chinese Intellectuals," *Daedalus* Vol. 101. No. 1, 1972, pp. 78-79.

2) この場合は朱子學または新儒教をヨーロッパ・ルネサンスの東アジア的代称として設定し、西歐において言う近代性の發見に比肩する思想的、ないしは知的運動として見ようとする傾向が濃かった。新儒教の皇肯定性を中國紙自体の文脈から探すよりは近代性を追求してきたヨーロッパ史に準據を置き、近代的志向の發見に焦点を当てている。トゥ・ウェイミングとセオドア・デ・ベリーの儒教認識が多少このような傾向に近い。

Principle and Practicality : Essays in Neo-Confucianism and Practical Learning, eds., Wm. Theodore de Bary and Irene Bloo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9; Tu Wei-ming,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Moral Education and Economic Culture in Japan and the Four Mini-Drag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eds. Wm. Theodore de Bary and Tu Weiming, Columbia University, 1998

3) R. Bin Wong、

4) R. Bin Wong, *China Transformed: Historical Change and the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K. Pomeranz and Steven Topik, *The World That Trade Created: Society, Culture, and the World Economy, 1400 to the Present*, M.E. Sharpe, 2006

5) 代表的な學者にグンドとホブソン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Andre Gund, *Re-orient: Global Economy in*

から抜け出したという点では、東アジア歴史叙述上ひとつの進展した展開であると言える。

それでも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の脱西歐中心主義接近法に對しより慎重に考慮すべき側面がある。既存の西歐中心主義ではイギリス、フランス、オランダ、スペイン、ポルトガル等、一部のヨーロッパ國家の歴史的經驗が普遍的近代として本質化(essentialization)された。脱歴史的本質化問題を争うため先決すべき事項は、ヨーロッパ史自体の脈絡の中からより一体的な比較的研究を通じて多様な内的躍動性を捕捉し、この過程からヨーロッパ各地域の具体的歴史性と構造的変性を浮び出させる作業であると考えられる。ところで、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の關心と主題はスペイン、ポルトガル、オランダ、フランス、イギリス等、いわゆる大航海時代を開いた一部ヨーロッパ國家に多少傾いている傾向がある。西歐と非西歐という二分法のみならず、より根本的な問題であるヨーロッパ史自体の本質化問題が徹底的に扱われなければ、本当の意味での脱西歐中心主義を成し難いかも知れない。

一方、本当の意味での世界史叙述のためにはヨーロッパ史自体の脱西歐中心主義に對する研究と併せて、アジア各地域の歴史性と構造的変性に對する研究が進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でなければ、依然として資本主義と近代文明の主体であるヨーロッパとの接触が前提とならないアジアの歴史は世界史の展開から大きな意味を探し出せないという論理、即ち西歐中心主義に回歸する可能性があるためである。しかし、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では16-18世紀、イギリス、フランス、オランダ、スペイン、ポルトガル等、一部のヨーロッパ國家が建設したアフリカ、アラビア、インド及び東南アジア等の地の海上貿易路とその據点を中心としたアジア地域との交流が資本主義と近代文明建設にどのような役割をしたのかに焦点が当てられているようである。

しかし、この時期の中國史を叙述するに当たり北中國を中心とする大陸との相互作用も決して無視できない。明・清朝は對外關係において南部海岸地域を通じ3百年の長い時間を持って接近してきたヨーロッパ國家を主敵と見なさなかった。北中國に位置した北京は13世紀末から19世紀末まで中原帝國の首都であった。清朝末までモンゴルと滿州のみならず、挑戦とベトナムは既存中國中心の東アジア世界秩序において最も重要な隣國と見なされた6)。モンゴル及びカン勢力(khantes)は中國北部と中央アジア、北部インド、ロシア、そして東ヨーロッパにわたるユーラシア大陸の歴史展開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7)。このような大陸パラダイムは明・清朝を含

the Asian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2003; J. M. Hobson, *The Eastern Origins of Western Civilis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6) 이은자 「韓國 開港期 (1876-1910) 「中國의 治外法權 適用 論理와 韓國의 對應」」 『東洋史學研究』 92、東洋史學會、2005、187-225頁；具仙姬 「19世紀 後半 朝鮮社會와 傳統的 朝貢關係의 性格」 『史學研究』 80、韓國史學會、2005、151-185頁；최희재 「越南, 朝鮮과 1860-80년대 清朝 朝貢國政策의 再調整」 『歷史學報』 206、歷史學會、2010、參照。

7) Fred W. Bergholz, *The Partition of the Steppe: The Struggle of the Russians, Manchus, and Zunghar Mongols for Empire in Central Asia*, Peter Lang, 1993; David Christian, *A History of Russia, Central Asia, and Mongolia*, Blackwell Publisher, Vol.1, 1998; Peter C. Purdue,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Culture, Courtiers, and Competition: The Ming Court (1368-1644)*, ed., David Robinson, Harvard University

む東アジア世界秩序と東アジア文明論の展開、具体的に北中國の歴史を説明するのにたいへん重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

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が主張する資本主義と近代文明の史的展開においてアジアの寄与は南中國の海上貿易を通じた一部ヨーロッパ国家との交流である。このような接近は中國とヨーロッパの一部の國家間の相互交流にのみ焦点が当てられ、中國史がヨーロッパ史と對等な立場に置かれているのかも知れない。しかし、果たしてこのような兩者の構図が既存の西歐中心主義から出た「衝撃 反応」式の二分法的解釋とどのような根本的差別性を持っているのかについては議論の余地がある⁸⁾。資本主義と近代文明の史的眺望においてはヨーロッパ史のスペクトラムを超えることのできる世界史的視角の確保という意義を見つけることもできるが、中國史自体の視角から見る時は上で言及した北中國を中心とする大陸的躍動性は看過される可能性もある。

これと関連して、(北)中國と2千年以上の長時間にわたり密接な関係を構築し展開した滿州、モンゴル、朝鮮等、隣地域の歴史展開も前資本主義的、前近代的、究極的には後進的領域へその重要性が減少する可能性が大きい。このような側面から見る時、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が主張する中國中心の歴史叙述を新しい次元の地域史と世界史の結合の試みと見るには至らない面があり得ると思われる。南北二方向の歴史的展開に同時的に注目しつつ、東アジア内の歴史性と構造的変容性に對する理解を増進させる時、中國史と世界史の相互關連性をより新しく考察できるであろう。

2. 朝鮮後期アイデンティティ研究との關連

1990年代から歐米學界の韓國史は量的にも質的にも驚くべき成長を成した⁹⁾。それにも拘らず一般的に韓國史は19世紀以前は中國の歴史と文明の影響下で展開し、20世紀以後近代化過程

Asia Center, 2008

8) 西歐中心主義の「衝撃 反応」理論の限界はすでに1980年代に中國史研究者であるフォール・コヘンにより議論されたところがある。 Paul A. Cohen,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pp. 9-16.

9) 最近、國內學界では世界學界の韓國學研究の流れを認識しつつ世界と疏通できる韓國學を樹立するための建設的方向を模索している。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挑戰과 韓國의 對應』 나남출판, 1996; 임재해 『國學의 世界化와 國際的 提携』 집문당, 1999, 參照。世界化時代における韓國史の對應ないし位置再定立という側面から世界史と地域の疏通に對し議論が展開されてきた。고영진 「韓國史 속의 世界化, 主體性, 그리고 改革」 『歴史와 現實』 37, 韓國歴史研究會, 2000, 48-72頁。一方、西洋史及び歴史教育分野専攻者達には地球史談論を中心にして議論が出ている。강선주 「世界化 時代의 世界史 教育: 相互關連性을 中心原理로 한 內容構成」 『歴史教育』 82, 歴史教育研究會, 2002, 41-68頁; 조지형 「새로운 世界史와 地球史 -포스트모던 時代의 省察的 歷史-」 『歴史學報』 173, 歴史學會, 2002, 335-369頁; 데이비드 크리스티안 「Why Global History?」 『韓國史學史學報』 20, 韓國史學史學會, 2009, 149-178頁, 參照。

を経てからは日本を通じて移植された西歐近代文明の影響を受けたと理解されてきた。西歐に慣れた他者の歴史と位置づけられた中國史や日本史が先占する東アジア學界において、韓國史はこのふたつを経て理解される一種のぎこちない他者の位置に置かれ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¹⁰⁾。歐米學界から出た多數の韓國史關連論文が中國と日本の「中間くらいの韓國」觀を否定せず、むしろそれを前提にしている場合が多い事實は、まさに「他者の他者」として認識される二重的屈折の問題をよく示している¹¹⁾。

二重的屈折の問題は朝鮮後期アイデンティティ研究においてもよく現れている。この時期は近代性の発見という主題の下に一人称主体で君臨してきた西歐中心主義的觀點と東アジア(儒教)文明の宗主である中國というもうひとつの一人称主体に對比される三人称客体の立場から叙述される傾向が大きい。儒教文明が中國に由來することを本質化し、中國文明と儒教文明を平面的に同一視する問題は伝統時代、特に朝鮮時代、中國と朝鮮を中心部 周辺部の關係で固着化させるのに決定的な役割をした。これは朝鮮後期アイデンティティ研究においてもその歴史的脈絡と具体的展開をしっかりと認識できず、中國史の存在感のみが増幅される結果を生んだ。そしてどれほど朝鮮固有の非儒教的価値が保存されたのか、どれほど脱中國的思考の轉換を試みたのか、等の問題は近代性の有無と直結した。

一方、韓國史及び朝鮮後期の主体性をあまりに強調し、急いで脱西歐中心主義と脱中國中心主義を押し出すことについても慎重になるべきである。脱西歐中心主義と脱中國中心主義が西歐中心主義と中國中心主義に對する「あった なかった」ないしは「衝撃 反応」のような二分法的論理構造に相應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考慮すれば、ともすれば西歐と中國の存在感のみが浮かび上がるかも知れないためである。つまり、西歐中心主義と中國中心主義を批判するのみでは却って西歐中心主義と中國中心主義を強化してしまう論理に嵌る環境を作り出すかも知れないのである¹²⁾。

ならば朝鮮後期アイデンティティ問題に接近するために脱中國と近代(性)発見に執着しない方法はないだろうか？ 基本的に西歐中心的マクロ談論構造の脱歴史化と二分法的思考に合わせるためには歴史的具體性と多様性をより担保にできる開かれた思考の研究が必要であろう。このためには世界史の數多くの叙述主体と行爲主体がどのように自身が受けた狀況から文明、社會、世界、自然、宇宙を理解しようとしたのかにより細密な關心を傾けるべきだと考える¹³⁾。政治的、外交的、社會的、文化的、經濟的に複雑に絡まっている歴史主体(historical

10) このような側面から「ぎこちない他者」中國と日本に對する近代初期文明、アイデンティティ、世界觀等の主題についての比較史的研究等も進められている。D. R. Howland, *Borders of Chinese Civilization: Geography and History at Empire's End*, Duke University, 1996; Shogo Suzuki, *Civilization and Empire: China and Japan's Encounter with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Routledge, 2009.

11) Andre Schmid,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pp. 9-17.

12) 代案なく解体と脱中心化を強調するポスト理論がこのような二分法的構造のジレンマから抜け出せずにいる實狀である。Robert Young, *White Mythology: Writing History and the West*, Routledge, 1990, p. 127; 강상중 著, 이경덕·임성모 譯『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이산, 1997, 194-204頁。

13) 배우성 「朝鮮後期の 異域 認識」『朝鮮時代史學報』36、2006；박미해 「儒教的 젠더 正體性的 多層的

agency)等がどのように自身が受けた歴史的條件と状況に對し自己動機付与の論理を開発しただろうか？ どのように自己引用と自己調整の枠組みを構築することで当面した歴史現象に對し主体的に解釋し對應したのだろうか？ このようなヨーロッパを含む世界各地の多様な歴史主体に對する再認識を通じて、その地域の個別歴史性と構造的変性をより立体的に照明しようとする接近は「民族 國家」談論と二分法的思考を基盤にした既存西歐中心主義を再考することのできるきっかけを作り出すであろう。

周知の通り、西歐中心主義に基づいた「民族 國家/民族主義」談論はヨーロッパ各地域の多様な歴史主体を近代「民族 國家」というひとつの固定化した枠組みに当てはめた¹⁴⁾。18世紀以前、非ヨーロッパ地域で展開された歴史主体の自他認識を後進的な水準に格下げして近代ヨーロッパの民族 國家が示す高度の自己認識的政治文化共同体(politico-cultural community)の姿は欠如したものと認識した¹⁵⁾。空間の同時代化、政治的中心地の登場、全國規模の疏通網形成、社會構成員達が互いに共有できる普遍談論の創出等は、西歐資本主義發展過程から生成され、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の最高峰である「民族 國家」へ收斂されたものと信じられる。このような單線的、排他的、二分法的前提は世界各地の多様な歴史主体間の複雑な拮抗關係と相互作用を把握するのに障碍となるのみならず、これらを條件化する個別歴史性と構造的変性を看過する可能性が高い。

朝鮮後期集团的アイデンティティは中國中心の東アジア世界秩序から獨立的な政体を基に儒教文明共同体を追求したものであったため、西歐中心的近代主義から提起する「民族 國家」ないしはその原型として規定できないものである。それにも拘らず、國家單位の集团的アイデンティティ(collective identity)水準からどのような共同体を展望し企畫するのか、その共同体に屬する人々がどのように疏通しどのような方式で朝鮮という空間を同じ時間で再構成するのか、この過程からどのような内面的自然さの機制が作られ、「我々」と「他者」の差別化が成されたのか、等についてのより深度のある議論が成される時、朝鮮後期アイデンティティ研究は当時朝鮮が持っていた個別の歴史性と構造的変性をより立体的に現すことができる新しい接近法を見いだせるだろうと思う。

國內學界の朝鮮後期自他認識及び集团的アイデンティティ研究は個人私書・文集類中心に傾いた傾向がある。重要なのは朝鮮後期アイデンティティ談論を主導し生産した人物の大多数が老・少・南党論に關係なく國政運營に參與したという点である。それ故、当時國家單位の叙述主

構造:『眉巖日記』『默齋日記』『鎖尾錄』『丙子日記』를 中心으로 『社會와 歷史』79, 2008; 조윤희 「英祖 御製와 風泉, 그리고 風泉의 古典化 樣相」 『藏書閣』20, 2008; 노혜경 「英祖代 皇朝人에 대한 認識」 『泰東古典研究』37, 2009; 이진경 「연암思想에 보이는 陽明學과 道家哲學의 회통성」 『陽明學』24, 2009; 이경구 「朝鮮後期 周邊 認識의 變化와 疏通의 可能性」 『概念과 疏通』3, 2009; 김성수 「朝鮮時代 醫員의 變化와 自己意識 形成」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32, 2011.

14) Prasenjit Durara,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 Questioning Narratives of Modern Chin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pp. 3-27.

15)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1983.

体により企畫された公共記録者を通じて公的領域で企畫し生産される集団的アイデンティティについての研究が共に進められる時、朝鮮後期アイデンティティ問題を立体的に考察できるであろう¹⁶⁾。朝鮮後期アイデンティティ談論研究で國家單位の公的部分役割についての新しい關心は明清交替期以後、東アジアにおいて展開される同時間化、自己客觀化、普遍文明、主体性等、自他認識/集団的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及び展開を探ることのできる主題をより効果的に把握できるきっかけを作ってくれるであろう。

3. おわりに

最近注目されている歐米中國史學界の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は、既存の西歐中心主義と中國中心主義を克服課題として残している。多様な歴史主体の同線を中心に個別の歴史性と構造的変性についての深化研究が進められる時、より眞實性を帯びた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に対する展望が可能であろう。このような接近は個別地域が持つ多様性と差異を尊重しつつ地域中心の歴史(*locale-specific history*)と世界の歴史(*world history*)に對する均衡的視角の比較研究を追求するのに一助となるであろう。これに併せて、朝鮮後期の歴史叙述、特に自他認識/集団的アイデンティティについての研究も内的動力と外的動力の相互作用に注目しながらこの時期を呼吸して生きた歴史主体達がどのように自我と他者を認識したのかを当代的文脈から考慮する必要があると思う。これは朝鮮中心的(*Chosŏn-specific*)叙述を包容できる「開かれた韓國史」を展望するのにも一翼を担うものであろう。

(翻譯：高麗大 韓國史學科 博士課程 榎谷祐一)

16) 最近朝鮮後期公的領域についての新しい接近と解釋が提起されている。이정철 『大同法-朝鮮 最高の 改革』 歴史批評社、2010； 박광용 「朝鮮의 18世紀」 『歴史學報』 213、2012。

参考文献

-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1983
- Fred W. Bergholz, *The Partition of the Steppe: The Struggle of the Russians, Manchus, and Zunghar Mongols for Empire in Central Asia*, Peter Lang, 1993
- David Christian, *A History of Russia, Central Asia, and Mongolia*, Blackwell Publisher, Vol.1, 1998
- Paul A. Cohen,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 Prasenjit Durara,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 Questioning Narratives of Modern Chin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 Andre Gund,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2003
- J. M. Hobson, *The Eastern Origins of Western Civilis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K. Pomeranz and Steven Topik, *The World That Trade Created: Society, Culture, and the World Economy, 1400 to the Present*, M.E. Sharpe, 2006
- Peter C. Purdue,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 Andre Schmid,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 Tu Wei-ming,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Moral Education and Economic Culture in Japan and the Four Mini-Drag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 R. Bin Wong, *China Transformed: Historical Change and the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Robert Young, *White Mythology: Writing History and the West*, Routledge, 1990
- Culture, Courtiers, and Competition: The Ming Court (1368-1644)*, ed., David Robins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8
-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eds. Wm. Theodore de Bary and Tu Weiming, Columbia University, 1998
- Principle and Practicality : Essays in Neo-Confucianism and Practical Learning*, eds., Wm. Theodore de Bary and Irene Bloo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9
- Benjamin I. Schwartz, "The Limits of "Tradition Versus Modernity" as Categories of Explanation: The Case of the Chinese Intellectuals," *Daedalus* Vol. 101. No. 1, 1972,

청제국의 변경통치와 변경사회의 대응 - 臺灣과 新疆

文明基

머리말 - 內地化論과 修正主義를 넘어서

주지하듯이 청대 대만은 鄭成功 세력을 굴복시키고 판도에 편입(1683년)한 이래 행정적으로는 福建省 臺灣府, 즉 ‘내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 류큐·베트남·조선 같은 朝貢國은 물론이고 ‘藩部’ 또는 ‘藩屬’에 해당하는 몽골·신강·티베트, 나아가 (청제국을 강하게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없었던 도쿠가와 일본 등과 달리 청제국에 대한 독자적인 인식이 성립하기는 힘든 구조였다. 하지만 동시에 청조는 대만 통치를 위해 소위 隔離政策과 ‘族群政治’(ethnic politics, 후술)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보면, 대만을 몽골·신강·티베트 등과 함께 일종의 ‘변경’으로 간주하고 청제국에 있어서 대만의 위상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것 같다. 따라서 필자는 청제국과 대만의 상호작용을 청제국의 변경통치와 그에 대한 변경사회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청대사 이해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청대 대만사 연구의 ‘역사’를 간단히 회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청대 대만사를 이해하는 가장 유력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이 소위 내지화론(Theory of Sinicization)이다. 1970년대 대만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가 추진한 ‘中國現代化之區域研究計劃’의 일환으로 閩浙臺 지역을 연구한 李國祁가 본격적으로 제기한 내지화론은 ‘내지화’ 이전의 대만사회를 移墾社會로 규정하고 그 특징을 ① 인구구성에 있어서의 (男女비율 등의) 현저한 불균형 ② 인구와 경지면적의 급격한 증가 ③ 지배층이 (‘紳士’가 아닌) 私的 武裝力을 갖춘 ‘豪強之士’였던 점을 들었다. 이렇게 내지와 구별되는 ‘移墾社會’인 대만사회가 경제적 번영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學額의 증가, 전통문화 보급 등을 통해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中華文化를 보유한 ‘文治社會’로 전형했음을 주장했다.

내지화론이 청대 대만사회를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의 하나로서 꽤 오랫동안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내지화론에 내재된 근본적인 결함은, 국가권력의 의지가 변경사회에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는 논리적 전제이다. 이러한 논리구조 하에서는 특정 변경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 특히 청말 대만 지방권력이 변경사회를 압도할 만한 軍事·행정 및 재정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경사회(특히 변경의 정치경제를 주도해온 지역 엘리트)와의 갈등·긴장과 교섭·절충은 필연적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국가권력의 ‘의지’와 ‘결과’를 동일시한 내지화론의 한계는 비교적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청말 국가권력과 변경사회의 상호작용을 부정하는 또 다른 극단인 일련의 수정주의적 해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내지화론의 극복을 목표로 등장한 이 수정주의적 해석은, 1980

년대 후반 이래의 ‘대만 민족주의’를 반영하여 대만 근대화의 기원을 청말에서 구한 내지화론을 부정하(고 식민지시대에서 찾으)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때문에 청말 대만의 근대적 개혁 과정에 관한 내지화론의 일방적인 ‘성공담’을 ‘실패담’으로 바꾸려 노력하지만, 이들 수정주의적 접근은 청말 국가권력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동시에 지나치게 ‘대만 중심의 접근법’(Taiwan-centered Approach)에 집착함으로써 비교사적 시각을 놓치고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지화론과 수정주의의 대립을 통해 부상되는 학문적 과제는, 결국 청제국의 변경통치(및 그 변화)와 변경사회의 대응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정합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로 수렴된다. 따라서 청제국과 대만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비단 청대 대만사의 해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청제국의 변경통치 이해에 두루 연관되는 ‘汎用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청대 청제국의 대만 통치와 그 변화, 그리고 대만사회의 대응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1. 전기(1683-1874) 대만 통치 - 隔離와 族群政治

영역적으로 明帝國의 약 2배 가까이 팽창한 淸帝國은 광대한 영역을 다스리는 방법의 하나로서 隔離戰略을 구사했다. 발상지인 滿洲와 과거 명나라의 영토는 직접 통치했지만, 몽골, 티베트 고원, 신장 등에 대해서는 간접통치를 실시했고, 나아가 滿洲人과 漢人을 분리(旗籍과 民籍의 구분)하거나 만주인과 위구르인의 거주구역을 구분(滿城과 回城)하는 등 일관된 격리정책을 시행했다. 나아가 因俗而治, 즉 본래의 풍속에 기대어 다스리는 本俗主義를 실행하여, 몽골에 대해서는 각각의 蒙旗에 자삭(jasak)을 두어 유목민 관리를 맡겼고 신장의 위구르인에 대해서는 벡(beg)을 관리에 임명함과 동시에 이슬람 법률과 전통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요컨대 새로이 편입된 영토에 대해서는 隔離와 本俗에 기초한 간접통치를 실시한 것이다.

청초에 새로이 편입된 지역이면서도 행정적으로는 ‘내지’와 동일했던 대만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치전략이 활용되었을까. 잘 알려져 있듯이 청대 대만에는 대륙으로부터 이주해 간 漢人 외에도 生番과 熟番이라는 원주민 집단이 존재했다. 즉 서부 평원지대에는 福建(민남인)과 廣東(객가)에서 건너간 한인들이 거주했고, 고산지대에는 生番, 그리고 대체로 두 지대의 중간지대에는 熟番이 거주했다. 즉 각 族群이 공간적으로 분점한 채 간헐적으로 교섭하거나 충돌하는 상황이었다.

대체로 제국 통치의 무게중심이 北邊의 遊牧地帶에 두어졌던, 따라서 대만에 대한 통치를 위한 비용 지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청조 중앙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最適의 統治形態는 변경통치의 ‘일반원리’였던 격리전략에 기초한 ‘족군정치’였다. 즉 한인에 대해서는 내지와 동일한 직접통치를 실행하되, 이들이 (개간이나 경제자원 획득을 위해) 番地에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한인과 원주민이 결탁(해 반란세력으로 변질)할 잠재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圖5] 참조). 한인과 생번의 경계지역에 설치한 ‘土牛溝’나 官撰 지도에 선명하게 그려진 ‘紅線’은 이러한 격리를 상징하고 있다([圖1], [圖2], [圖3] 참조)

하지만 朱一貴의 亂(康熙60년, 1721년)과 건륭 연간의 林爽文的 亂(乾隆51년, 1786년) 등 漢人에 의한 일련의 반란을 거치면서 이러한 격리전략이 충분치 않음이 판명된다. 이 때 청조 중앙은 임상문의 난 진압 당시 청조 편에 서서 반란세력의 진압에 공을 세운 熟番을 활용하기 시작한다. 즉 숙번의 군사적 효용에 주목한 청조 중앙은 이들을 한인 거주지와 생번 거주지의 중간지대(주로 未墾地와 ‘叛產’으로 구성)에 숙번 부족들을 계획적으로 배치시킴으로써(圖4 참조) 숙번에게 사회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반란의 한 원인이기도 했던 한인과 생번의 충돌을 방지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로 기능하는 통치전략을 구사하게 된다(圖6). 이렇게 대만에 거주한 다양한 족군을 공간적으로 분할배치하고 弱小 族群의 의도적인 扶植을 통해 최대 족군인 한인을 견제하고 나아가 대만 통치의 실질을 기한다는 일종의 ‘족군정치’는 대체로 19세기 후반까지 (점차 형해화되면서도) 그 골격을 유지하게 된다.

청제국의 변경통치 전략은 크게 보아 ① 해당 변경의 전략적 중요성, ② 소요되는 통치 비용 및 ③ 해당 변경의 稅源으로서의 잠재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반란세력의 근거지였기에 판도에 편입하기는 했지만 ‘彈丸之地’에 불과했던 대만에¹⁾ 최소한의 재원만을 투입하고 싶었던 청조 중앙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은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통치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 ‘족군정치’는 상당히 매력적인 통치전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내륙으로부터의 위협에 더해 ‘바다로부터의 위협’에도 이전처럼 무심할 수만은 없게 된 상황이 대만에 연이어 발생하게 된다. 臺灣事件(1874년)과 淸佛戰爭(1883-85)이 그것인데, 이로써 청제국에 있어서 대만의 전략적 위상이 수정되고 이에 따라 청조의 대만통치 전략 역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2. 후기(1874-1895)의 대만 통치 - 建省과 族群政治의 終焉

대만 동부의 生番에 의한 류큐 漁民의 살해를 계기로 발생한 臺灣事件, 그리고 개항 이래 일본을 포함한 서구열강의 대만에 대한 영토적 관심의 증가는 대만의 전략적 위상에 대한 재평가를 초래했고, 이에 따라 청조 중앙은 기존 대만통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통치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와 한인의 반란 방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온 청조는 청대 내내 고수해온 족군정치의 틀을 깨고 본격적으로 生番의 招撫와 番地의 개발에 나서게 되지만(소위 ‘開山撫番’), 海防보다는 塞防을

1) 정성공 집단을 성공적으로 복속시킨 후에도 강회제를 비롯한 청조 수뇌부는 대만에 대한 사후처리를 놓고 일대 논쟁을 벌이게 된다. 소위 ‘기류지’가 그것인데, 이러한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청조 중앙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위상에 대한 일정한 판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건륭2년(1737년) ‘원격중앙’의 대만을 성으로 승격시켜 통치의 난맥상을 해결하자는 주장이 예부시랑 오금에 의해 제기되었지만(건륭2년4월10일), 건륭제는 “총알만한 땅에다가 1부4현 규모에 불과한 지역에 성제를 도입하는 것은 체제에도 어울리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以彈丸之地, 屬不過一府四縣, 而竟改爲省制, 于體制不可, 于事無益).”고 하며 건성 주장을 내치고 있다(건륭2년4월15일의 상유). 1년 여에 걸쳐 대만 전역을 동란으로 몰고 간 임상문의 난을 거치고 나서도 통치비용의 증대를 수반하는 대만에 대한 행정체제의 강화는 건륭제의 고려 밖에 있었던 것이다.

여전히 우선시한 청조의 기본방침과 여전히 빈약한 재정·군사적 지원 등으로 인해 애초에 기대한 번지 개발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게 된다. 대만사건 이후 10년이 지나 프랑스의 대만 점령 계획이 ‘현실’이 된 시점에 가서야 청조는 대만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청불전쟁 직후 청조는 대만을 복건성에서 분리시켜 별개의 省으로 승격시키고(1885년) 대외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만 내부의 행정적·군사적·경제적 개혁에 나서게 되는데, 이는 직전의 新疆建省(1884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즉 19세기 후반 이래 변경지역의 영토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省制에 입각한 ‘내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당시 청조 중앙의 박약한 재정능력으로는 建省이라는 ‘정치적’ 결단 이외에 해줄 것이 많지 않았다. 때문에 최초의 臺灣巡撫로 부임한 淮軍의 명장 劉銘傳은 ‘就地籌款’, 즉 제반 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의 현지조달에 골몰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여기에 대만 지방권력의 딜레마가 있었다.

지방권력은 재원 조달은 물론이고 제반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만 지역엘리트의 협조를 얻어야 했지만, 공격적인 재원 조달은 불가피하게 지역엘리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되고, 이는 지역엘리트의 ‘臺灣新政’에 대한 비협조나 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실제로 그간 비교적 낮은 세율에 머물렀던 地稅 수입을 늘리기 위해 劉銘傳은 토지조사와 지세개혁(소위 ‘淸賦’)을 단행하게 되고 이는 그동안 대토지를 보유한 지역엘리트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었다. 때문에 淸賦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만한 정책을 제시해야 했던 대만 省權力이 주목한 것이 바로 번지개발이다.

대만 中北部 지방의 山地에는 높은 품질의 樟腦를 생산할 수 있는 樟樹가 넓게 분포함은 물론 청말 대만의 최대 수출품인 茶(주로 우롱차) 재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중북부 산지는 생번 거주지(=番地)와 중첩되었다([圖7] 참조). 따라서 번지개발을 위해서는 生番의 驅逐이 선결되어야 했고, 완강한 생번의 저항을 누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이 필요했다. 대만의 지역엘리트 역시 번지개발이 가져다 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보유한 사적 무장력만 가지고는 생번의 구축은 불가능했다. 이 지점에서 대만 지방권력과 대만 지역엘리트의 政治經濟的 ‘交換關係’가 성립하게 된다. 즉 지방권력은 지역엘리트가 필요로 하는 군사력(유명전이 보유한 銘軍)을 제공해 번지개발을 돕고, 역으로 지역엘리트는 지방권력의 (청부를 비롯한) 재원조달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번지개발의 이익을 독점(또는 과점)할 수 있게 되는, 일종의 win-win 전략인 셈이다. 지세개혁과 번지개발 모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만의 兩大巨族, 霧峰林家(중부)와 板橋林家(북부)가 이 시기에 실현한 ‘富의 猛增’은 번지를 매개로 한 교환 관계를 배경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건성 이후 전개된 지방권력과 지역엘리트의 이러한 ‘大妥協’의 결과, 청대 전기에 성립해 19세기 후반까지 그럭저럭 명맥을 유지하던 대만의 족군정치는 종언을 고하게 되고 생번(과 숙번)은 청대 대만의 역사 전개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청말 지방권력에 비해 훨씬 정교하고 강력한 폭력장치를 갖춘 臺灣總督府의 ‘理蕃事業’은, 이미 소멸의 과정에 들어선 약소 족군(생번과 숙번)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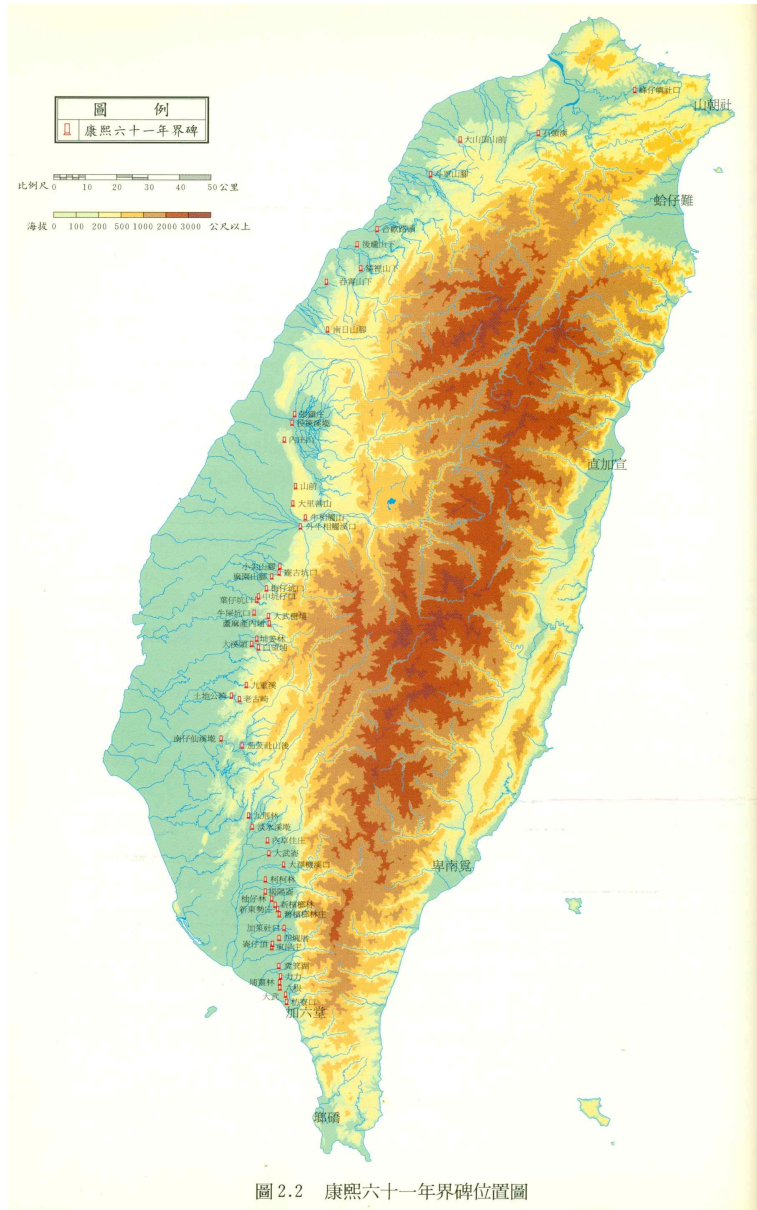
요컨대 대만의 건성과 그에 수반한 근대적 개혁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면, 이는 청조 국가권력(과 그 대행자로서의 대만 省權力)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라기보다는 국가권력과 변경사

회(특히 지역엘리트)의 번지를 매개로 한 정치경제적 교환이라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렇게 본다면 어느 일방의 역할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내지화론이나 수정주의적 해석은 정말 대만의 역사과정을 일면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나가는 말 - 대만의 사례에 비추어 본 新疆의 建省

개항(1861년)을 통해 이미 세계경제와 연결된 대만의 경우 수출이 급증한 결과 海關收入이 급증했고, 이는 지세개혁을 통한 田賦의 증가와 함께 재정자립도의 제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즉 건성 이후 省權力에 의한 자원조달의 성공을 정말 대만의 사회경제적 성장이 강하게 떠받친 것이다. 반면 新疆의 경우 稅源으로서의 잠재력을 결정짓는 사회경제적 발전이 낙후되어 있었다. 거의 전적으로 協餉에 의존하는 재정구조와 아울러 자원개발의 부진은 1880년대 청조의 곤궁한 재정상황과 맞물리며 신강 지배에 대한 懷疑論이 제기되는 직접적인 배경이기도 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의 차이는 두 변경지역의 구조적 차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두 지역의 인구구성을 보면, 신강의 경우 건성 전후의 전체 인구 187만에 대해 外省 출신 寄居者(=한인)는 82,000명(4.4%)이고, 1928년에도 전체 255만 중 위구르인은 70%, 한인은 10% 미만에 불과했다. 반면 대만의 경우 건성 전후의 한인 인구는 90%를 넘어서서 이미 生·熟番을 압도하고 있었다. 건륭 연간까지 동일하게 漢·番(대만) 또는 漢·回(신강) 격리전략을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판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격리정책의 상이한 결과는 두 지역의 사회적 구성에 의미 있는 차이를 초래했다. 대만의 경우 한인의 대규모 이주의 결과 원주민 세력은 크게 위축되어 족군 간의 역학관계의 중심추가 한인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그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대만의 성권력은 지역엘리트인 한인 신사층과 정치경제적 타협을 이루었다. 반면 신강에서 위구르인은 전통적 사회조직을 유지한 채 최대 족군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강의 성권력은 대만과 같은 대대적인 원주민사회의 재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이로 인해 신강 南路의 지역엘리트인 백(Beg) 집단의 위구르인 피지배층 착취가 1864년 야쿱 백 반란의 主因이었음을 잘 이해하던 성권력으로서도 안정적 통치를 위해서는 백 집단과 타협해야 했다. 때문에 백의 기층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했고 이들이 장악한 사회경제적 자원의 분배·통제권 역시 유지되었다. 다시 말해 신강의 영토적 회복과 현상유지라는 국가권력과 성권력의 궁극적 목표 하에서, 대만의 番地처럼 약소 족군이 보유한, 동시에 높은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완충지대가 없었던 신강에서 (대만의 지세개혁과 같은) 급진적인 자원확보책의 실행은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圖1: 康熙61年 界碑 位置圖]

(柯志明, 『番頭家 - 清代臺灣族群政治與熟番地權』, 中央研究院社會學研究所, 2001, 46 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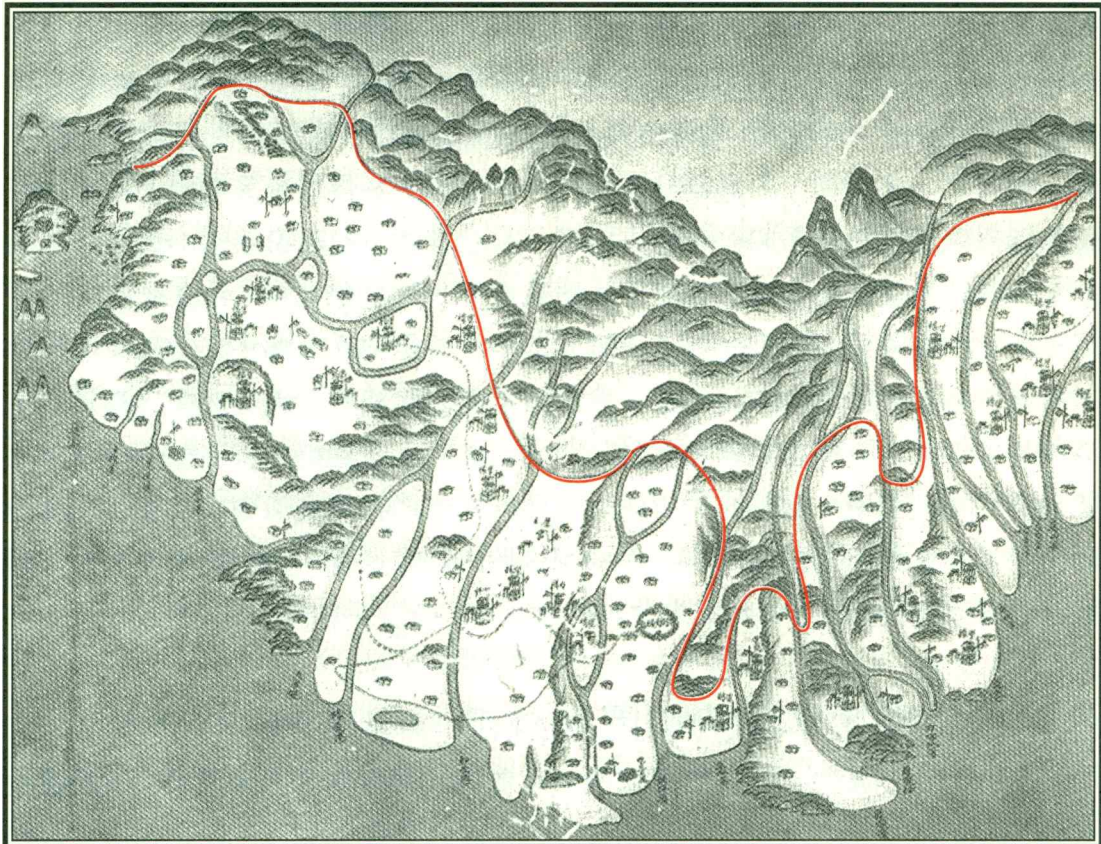


圖2-3 淡水廳的土牛溝

[圖2: 淡水廳(대만 북부)의 土牛溝]

(施添福, 『清代臺灣的地域社會 - 竹塹地區的歷史地理研究』, 新竹縣文化局, 2001, 71 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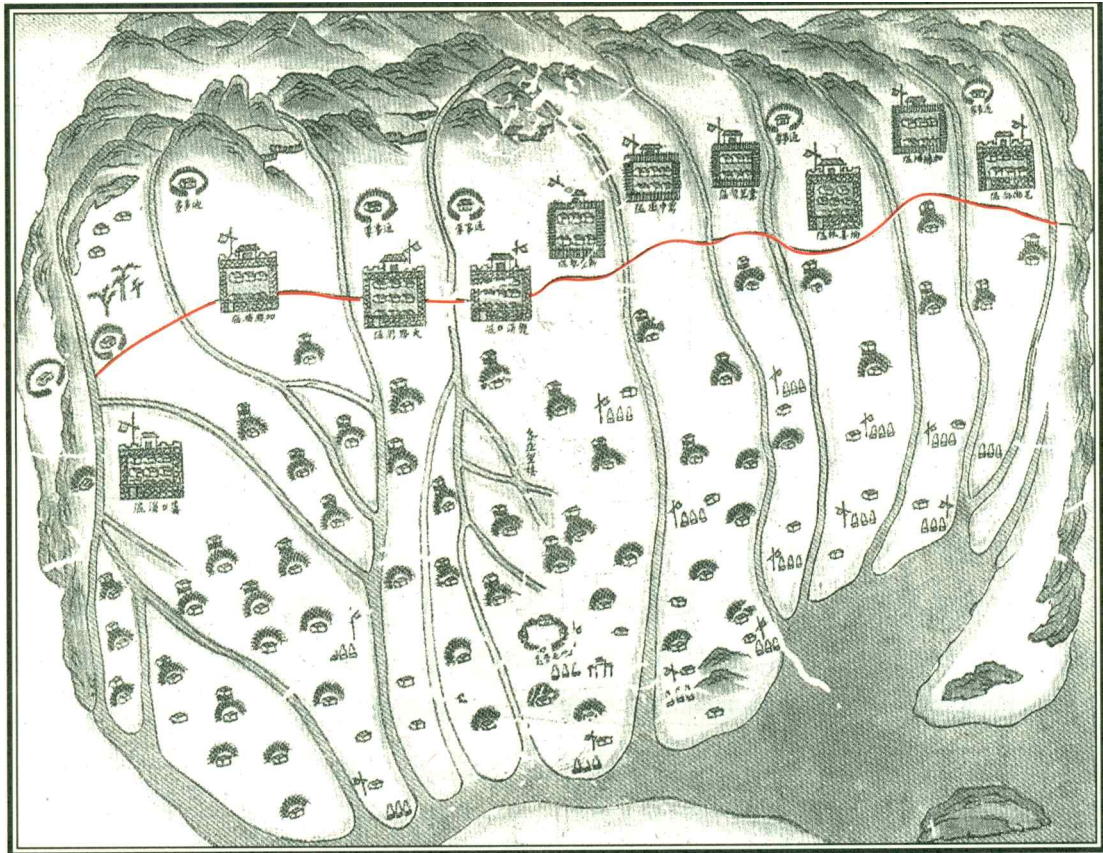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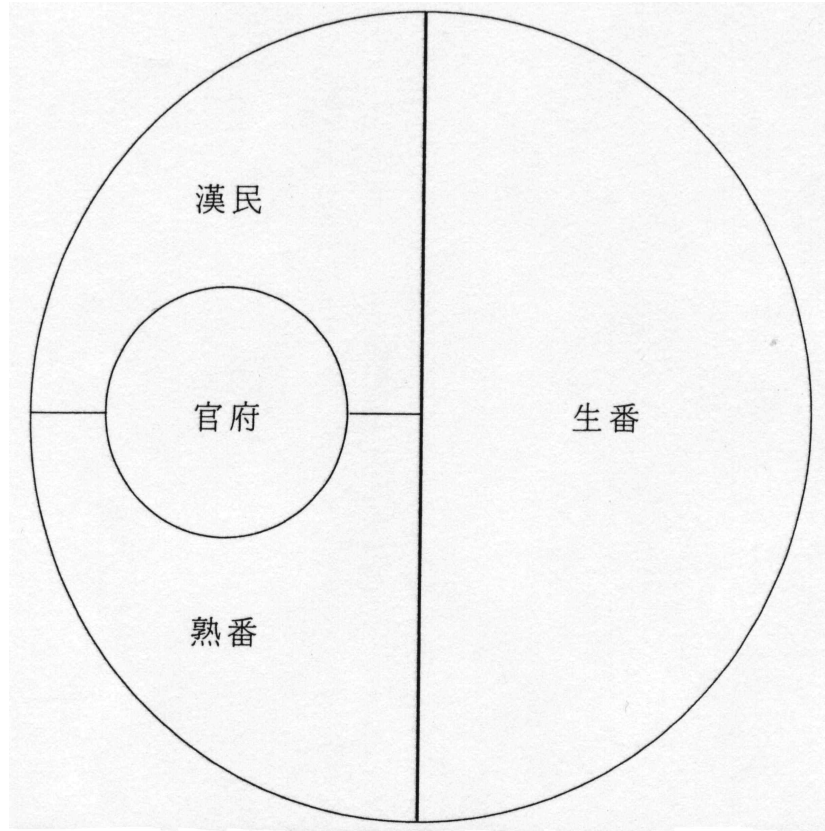
圖2-1 鳳山縣的土牛溝

[圖3: 鳳山縣(대만 남부)의 土牛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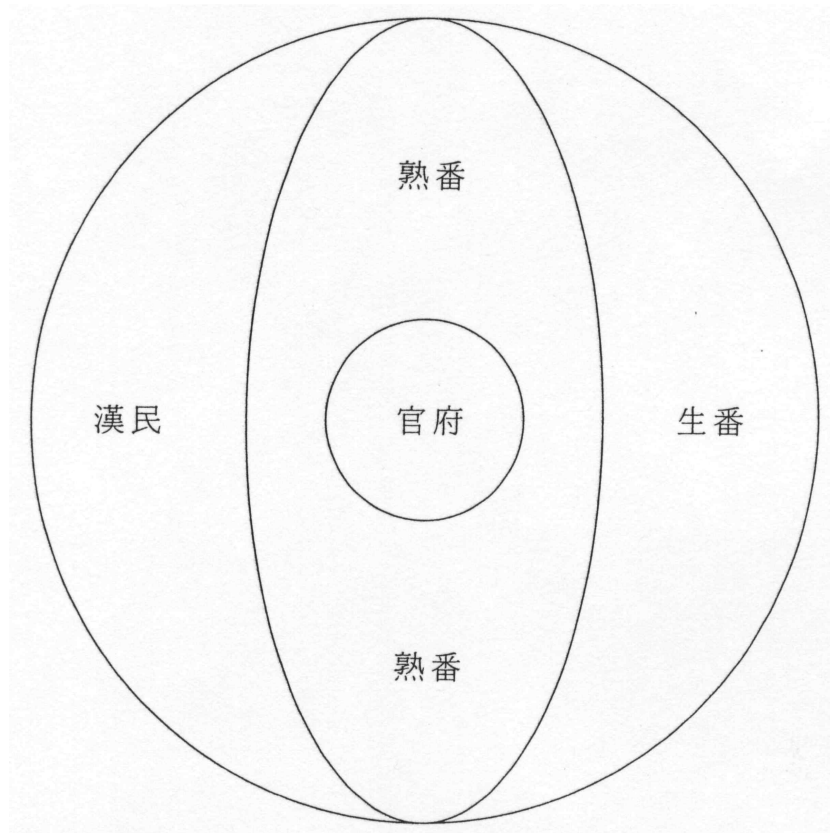
(施添福, 『清代臺灣的地域社會 - 竹塹地區的歷史地理研究』, 新竹縣文化局, 2001, 66页)



[圖4: 乾隆55年 屯番 養贍埔地 배치도]
 (柯志明, 『番頭家 - 清代臺灣族群政治與熟番地權』, 中央研究院社會學研究所, 2001, 262等)



[圖5: 清代 雍正 中期~乾隆 初期 族群政治的 構造] (柯志明, 『番頭家 - 清代臺灣族群政治與熟番地權』, 中央研究院社會學研究所, 2001, 60卒)



[圖6: 清代 乾隆 中期 以後 族群政治的 構造] (柯志明, 『番頭家 - 清代臺灣族群政治與熟番地權』, 中央研究院社會學研究所, 2001, 60 頁)

清帝國の辺境統治と辺境社會の対応 — 台湾と新疆

文明基

はじめに — 内地化論と修正主義を超えて

周知の通り清代台湾は鄭成功勢力を屈服させ版図に編入(1683年)して以来、行政的には福建省台湾府、即ち「内地」としての位相を持っており、琉球・ベトナム・朝鮮のような朝貢國は勿論、「藩部」或いは「藩屬」に該当するモンゴル・新疆・チベット、更に(清帝國を強く意識してはいたが)公式的な外交関係がなかった徳川日本等とは異なり、清帝國に対する独自の認識が成立し難い構造であった。しかし、同時に清朝は台湾統治のためにいわゆる隔離政策と「族群政治(ethnic politics)」(後述)を活用したという点から見れば、台湾をモンゴル・新疆・チベット等と共に一種の「辺境」と見なし、清帝國において台湾の相互作用を清帝國の辺境統治とそれに對する辺境社會の対応という側面から理解することで全体としての清代史理解の一助と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ためにはまず清代台湾史研究の「歴史」を簡単に回顧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清代台湾史を理解する最も有力な概念として受け入れられてきたのがいわゆる内治化論(Theory of Sinicization)である。1970年代、台湾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が推進した「中國現代化之區域研究計劃」の一環として閩浙臺地域を研究した李國祁が本格的に提起した内治化論は「内治化」以前の台湾社會を移墾社會と規定し、その特徴を①人口構成における(男女比率等の)顕著な非均衡、②人工と耕地面積の急激な増加、③支配層が(「紳士」ではない)私的武装力を持った「豪強之士」であった点を挙げた。このように内地と區別される「移墾社會」である台湾社會が經濟的繁榮による持続的な人工流入と學額の増加、伝統文化普及等を通じて19世紀後半に至り中華文化を保有した「文治社會」に轉形したと主張した。

内治化論が清代台湾社會を説明する有力な理論のひとつとして随分長い間大きな影響力を發揮したのは明らかな事實である。しかし、内治化論に内在している根本的な欠陥は、國家權力の意志が辺境社會に一方的に貫徹したという論理的前提である。このような論理構造下では特定辺境社會の「特殊性」を考慮する余地が消えてしまうことになる。特に清末台湾地方權力が辺境社會を壓倒するほど軍事・行政及び財政能力を確保できなかった状況から、辺境社會(特に辺境の政治經濟を主導してきた地域エリート)との葛藤・緊張と交渉・折衷は必然的であったことを鑑みれば、國家權力の「意志」と「結果」を同一視した内在化論の限界は比較的明らかである。

そうだからと言って清末國家權力と辺境社會の相互作用を否定する別の極端な一連の修正主

義的解釋にも同意し難い。内在化論の克服を目標として登場したこの修正主義的解釋は1980年代後半以來、「台湾民族主義」を反映し、台湾近代化の起源を清末に求めた内在化論を否定(し、植民地時代から探そう)とする動機から始まった。よって清末台湾の近代的改革過程關する内治化論の一方的な「成功談」を「失敗談」に替えようと努力するが、これら修正主義的接近は清末國家權力の役割を過小評価しており、同時に甚だしく「台湾中心の接近法(Taiwan-centered Approach)」に執着することで比較史的視角が抜け落ちている弱点を持っている。

このような内治化論と修正主義の對立を通じて浮上する學問的課題は、結局清帝國の辺境統治(及びその変化)と辺境社會の對應という問題をどのように整合的に理解するのかという問題に收斂される。よって清帝國と台湾の相互作用をどのように理解するのかという問題は、例え清代台湾史の解釋にのみ限定されるのではなく、清帝國の辺境統治理解に遍く關係する「汎用性」を持っている点からその重要性が更に増すのではないだろうか。筆者はこのような問題意識下で清代清帝國の台湾統治とその変化、そして台湾社會の對應を追跡しようと思う。

1. 前期(1683-1874)台湾統治 — 隔離と族群政治

領域的に明帝國の約二倍ほど膨張した清帝國は廣大な領域を治める方法のひとつとして隔離戰略を駆使した。發祥地である滿州と過去明國の領土は直接統治したが、モンゴル、チベット高原、新疆等に對しては間接統治を實施し、更に滿州人と漢人を分離(旗籍と民籍の區分)したり、滿州人とウイグル人の居住地域を區分(滿城と回城)する等、一貫した隔離政策を施行した。更に因俗而治、即ち本來の風俗に従って治める本俗主義を實行し、モンゴルに對しては各々蒙旗にジャサク(jasak)を置き、遊牧民官吏を任せ、新疆のウイグル人に對してはベグ(beg)を官吏に任用すると同時にイスラム法律と伝統に従い問題を解決させる等の措置を取った。つまり新しく編入した領土に對しては隔離と本俗に基づいた間接統治を實施したのである。

清初に新しく編入された地域であっても行政的には「内地」と同一であった台湾に對してはどのような統治戰略が活用されたのだろうか。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清代台湾には大陸から移住して來た漢人以外にも生番と熟番という原住民の集団が存在した。即ち、西部平地地帯には福建(閩南人)と廣東(客家)から渡ってきた漢人達が居住し、高山地帯には生番、そしておよそふたつの地帯の中間地帯には熟番が居住した。即ち、各族群が空間的に分かれたまま間歇的に交渉したり衝突する状況であった。

およそ帝國統治の重きが北辺の遊牧地帯に置かれていた、よって台湾に對する統治のための費用支出には相對的に消極的であった清朝中央の立場から得られる最適の統治形態は、辺境統治の「一般原理」であった隔離戰略に基づいた族群政治であった。即ち、漢人に對しては内地と同一の直接統治を實行するが、彼等が(開墾や經濟支援獲得のため)番地に浸透していくことを妨げると同時に、漢人と原住民が結託(して反亂勢力に変質)する潜在的可能性を事前に遮斷しよ

うとした([図5]参照)。漢人と生番の経済地域に設置した「土牛溝」や官撰地図に闡明に描かれた「紅線」はこのような隔離を象徴している([図1][図2][図3]参照)。

しかし朱一貴の亂(康熙60年、1721年)と乾隆年間の林爽文の亂(乾隆51年、1786年)等、漢人による一連の反亂を経てこのような隔離戦略が十分でないことが判明する。この時、清朝中央は林爽文の亂鎮壓当時、清朝側に立って反亂勢力の鎮壓に功を立てた熟番を活用し始める。即ち熟番の軍事的効用に注目した清朝中央は彼等を漢人居住地と生番居住地の中間地帯(主に未墾地と「叛産」で構成)に熟番部族達を計画的に配置させることで([図4]参照)熟番に社会経済的基盤を提供し、同時に叛亂の一要因でもあった漢人と生番の衝突を防止する一種の「緩衝地帯」として機能する統治戦略を駆使するようになる([図6])。このように台湾に居住した多様な族群を空間的に分割配置し、弱小族群の意図的な扶植を通じて最大族群である漢人を牽制し、更に台湾統治を實質を図るといふ一種の「族群政治」はおよそ19世紀後半まで(次第に形骸化しつつも)その骨格を維持することになる。

清帝國の辺境統治戦略は大きく①該当辺境の戦略的重要性、②所用される統治費用、及び③該当辺境の税源としての潜在力というみっつの要素の多様な調合により決定されると見るならば、反亂勢力の根據地であったため版図に編入はしたが「彈丸之地」に過ぎなかった台湾に最小限の財源のみを投入したかった清朝中央の立場から、中央政府の財政支出は最小化しつつも實質的な統治効果を得られると判断した「族群政治」は相当魅力的な統治戦略であったのである。しかし19世紀後半内陸からの危険に加え「海からの危険」にも以前のように無關心ではいられなくなった状況が台湾に續いて發生することになる。台湾事件(1874年)と清仏戦争(1883-85)がそれであるが、こうして清帝國において台湾の戦略的位相が修正され、これにより清朝の台湾統治戦略も大きな変化を経ることになる。

2. 後期(1874-1895)の台湾統治 — 建省と族群政治の終焉

台湾東部の生番による琉球漁民の殺害を契機に發生した台湾事件、そして開港以來日本を含む西歐列強の台湾に対する領土的關心の増加は台湾の戦略的位相に対する再評価を招來し、これにより清朝中央は既存の台湾統治に対する再検討に入ることになる。統治費用支出に対する憂慮

1) 鄭成功集団を成功的に服屬させた後も康熙帝を始めとする清朝首脳部は台湾に対する事後処理の件で大論争を起すことになる。いわゆる「棄留之議」がそれであるが、このような論争があったという事實自体が清朝中央の台湾に対する戦略的位相に対する一定の判断を背景にしているのである。乾隆2(1737)年、「遠隔重洋」の台湾を省に昇格させ統治の亂脈上を解決しようという主張が礼部侍郎吳金により提起されたが(乾隆2年4月10日)、乾隆帝は「銃丸のような土地に1府4縣規模に過ぎない地域に省制を導入するのは体制にも合わず効果的でもない(以彈丸之地、屬不過一府四縣、而竟改爲省制、于體制不可、于事無益)」とし、建省主張を退けている(乾隆2年4月15日の上諭)。1年余りに渡り台湾全域を動亂に陥れた林爽文の亂を経ても統治費用の増大を伴う台湾行政体制の強化は乾隆帝の考慮の外にあったのである。

と漢人の反亂防止に政策の優先順位を与えてきた清朝は清代を通じて固守してきた族群政治の枠組みを外し、本格的に生番の招撫と番地の開発に出るが(いわゆる「開山撫番」)、海防よりは塞防を依然として優先視した清朝の基本方針と、依然として貧弱な財政・軍事的支援等により、最初から期待した番地開発の効果は得られなくなった。台湾事件以後10年が過ぎ、フランスの台湾占領計画が「現實」になった時点で清朝は台湾経営により本格的に出るようになる。

清仏戦争直後、清朝は台湾を福建省から分離し別個の省に昇格させ(1885年)、對外的危機に對處するための台湾内部の行政的・軍事的・經濟的改革に出るようになるが、これは直前の新疆建省(1884年)と基軸を共にするものであった。即ち、19世紀後半以來辺境地域の領土的危機に對する對応として省制に立脚した「内治化」を本格的に推進す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ただ当時清朝中央の薄弱な財政能力では建省という「政治的」決斷以外にできるものは多くなかった。よって最初の台湾巡撫として赴任した淮軍の名將劉銘傳は「就地籌款」、即ち諸般改革に所用する財源の現地調達に没頭せざるを得なかった。まさにここに台湾地方權力のジレンマがあった。

地方權力は財源調達は勿論、諸般改革を成功的に遂行するためには台湾地域エリートの強調を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が、攻撃的な財源調達は不可避に地域エリートの經濟的利益を侵害することになり、これは地域エリートの「台湾新政」に對する非強調や抵抗を誘發する可能性が高かった。實際、その間比較的低い稅率に留めていた地稅收入を増やすため劉銘傳は土地調査と地稅改革(いわゆる「清賦」)を斷行することになり、これはその間大土地を保有した地域エリートの經濟的利益を直接的に侵害していた。それ故、清賦による經濟的損失を保証するだけの政策を提示せざるを得なかった台湾省權力が目にしたのがまさに番地開發である。

台湾中北部地方の産地には高い品質の樟腦を生産できる樟樹が廣く分布しているのは勿論、清末台湾の最大輸出品である茶(主に烏龍茶)栽培に最適の立地条件を持っていた。しかし巧妙にも中北部産地は生番居住地(=番地)と重なっていた([図7]参照)。よって番地開發のためには生番の驅逐が先決されなければならず、頑固な生番の抵抗を抑えるためには相当の規模の軍事力が必要であった。台湾の地域エリートも番地開發がもたらす莫大な經濟的利益をよく知っていたが、彼等が保有した私的武裝力だけでは生番の驅逐は不可能であった。この地点で台湾地方權力と台湾地域エリートの政治經濟的「交換關係」が成立することになる。即ち、地方權力は地域エリートが必要とする軍事力(劉銘傳が保有した銘軍)を提供し番地開發を助け、逆に地域エリートは地方權力の(清賦をはじめとする)財源調達政策を支持することで番地開發の利益を獨占(または寡占)できるようになる、一種のwin-win戦略だったのである。地稅改革と番地開發の兩方に積極的に參與した台湾の兩大巨族、霧峰林家(中部)と板橋林家(北部)がこの時期に實現した「富の猛増」は番地を媒介にした交換關係を背景に可能であった。

しかし建省以降展開した地方權力と地域エリートのこのような「大妥協」の結果、清代前期に成立し、19世紀後半までなんとか脈絡を維持していた台湾の族群政治は終焉を迎えることになり、生番(または熟番)は清代台湾の歴史展開においてこれ以上意味のある役割を担うことができず歴史の暗がりになることになる。清末地方權力に比べずっと精巧で強力な暴力装置を

持った台湾總督府の「理蕃事業」は、すでに消滅の過程に入っていた弱小族群(生番と熟番)に最後に一撃を加えることになる。

例えば、台湾の建省とそれに伴う近代的改革に一定の成果があったなら、それは清朝國家權力(とその代行者としての台湾省權力)の維持が一方的に貫徹された結果というよりは國家權力と辺境社會(特に地域エリート)の番地を媒介にした政治經濟的交換という「相互作用」の結果と解釋するのが妥当であり、このように見るならば、ある一方の役割のみを過度に強調する内治化論や修正主義的解釋は清末台湾の歴史過程を一面的にのみ解釋していると見なすべきではないだろうか。

終わりに — 台湾の事例に照らして見た新疆の建省

開港(1861年)を通じてすでに世界經濟と連結した台湾の場合、輸出が急増した結果海關收入が急増し、これは地稅改革を通じた田賦の増加と共に財政自律度を高めることに決定的な寄与をした。即ち建省以後、省權力による財源調達を清末台湾の社會經濟的成長が強く後押ししたのである。一方、新疆の場合、税源としての潜在力を決定付ける社會經濟的發展が落後していた。殆ど全的に協餉に依存する財政構造と併せて財源開發の不振は1880年代清朝の苦しい財政狀況と合わさり新疆支配に對する懷疑論が提起される直接的な背景にもなった。このような財政自律度の差はふたつの辺境地域の構造的な差とも密接な關連を持つ。ふたつの地域の人口構成を見ると、新疆の場合、建省前後の全体人口187万に對し、外省出身寄居者(=漢人)は82,000人(4.4%)であり、1928年も全体255万のうちウイグル人は70%、漢人は10%未満に過ぎなかった。一方、台湾の場合、建省前後の漢人人口は90%を超え、すでに生・熟番を壓倒していた。乾隆年間まで同一に漢・番(台湾)または漢・回(新疆)隔離戰略を驅使したにも拘らず、その結果ははっきりと現れた。

このような隔離政策の相異した結果はふたつの地域の社會的構成にすでにある差を招來した。台湾の場合、漢人の大規模移住の結果原住民勢力は大きく萎縮し、族群間の力學關係の中心樞が漢人側に大きく傾いた。その結果(前述した通り)台湾の省權力は地域エリートである漢人紳士層と政治經濟的妥協を成した。一方、新疆におけるウイグル人は傳統的社會組織を維持したまま最大族群としての地位を喪失しなかった。よって新疆の省權力は台湾のような大々的な原住民社會の再編は現實的に不可能であった。またこれにより新疆南路の地域エリートであるベグ(Beg)集團のウイグル人被支配層擄取が1864年、ヤクブ・ベグ(Yaqub Beg)の反亂の主因であったことをよく理解していた省權力としても安定的な統治のためにはベグ集團と妥協せざるを得なかった。よってベグの基層社會における影響力は依然としており、彼等が掌握した社會經濟的資源の分配・統制權も維持した。つまり、新疆の領土的回復と現状維持という國家權力と省權力の究極的な目標下で、台湾の番地のように弱小族群が保有した、同時に高い經濟的潜在力を持つ

た緩衝地帯がなかった新疆において(台湾の地税改革のような)急進的な財源確保策の實行は最初から不可能であったと見るべきであろう。

(各[図]は韓国語發表文の末尾を参照ください)

(翻譯：高麗大 韓國史學科 博士課程 榎谷祐一)

참고문헌

- 柯志明, 『番頭家 - 清代臺灣族群政治與熟番地權』, 中央研究院社會學研究所, 2001
- 구범진,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민음사, 2012
- 김형중, 「清代 國家權력의 理解 - 財政史的 觀點에서 본」,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 『근대국가 형성의 비교사적 연구 - 근대국가의 기원과 재정』(2005년도 정기 국내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년 5월 20일
- 김호동, 『근대 중앙아시아의 혁명과 좌절』, 사계절, 1999
- 林滿紅, 『茶·糖·樟腦業與臺灣之社會經濟變遷』, 聯經出版公司, 1997
- 林恩顯, 『清朝在新疆的漢回隔離政策』, 商務印書館(臺北), 1988
- 馬汝珩·馬大正, 『清代的邊疆政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 문명기, 「清末 臺灣의 番地開發과 族群政治(Ethnic politics)의 終焉」, 『중국근현대사연구』 30집, 2006
- 문명기, 「臺灣事件(1874) 이후 清朝의 臺灣 經營과 建省方案의 형성」, 『歷史學報』 194집, 2007
- 문명기, 「청말 대만 건성과 유명전 - 재원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 학위논문, 2007
- 문명기, 「청말 신강의 건성(1884)과 재정 - 대만 건성(1885)과의 비교를 곁하여」, 『중국학보』 63집, 2011
- 문명기, 「清末(1886-1889) 臺灣의 地稅改革과 그 性格」, 『東洋史學研究』 95집, 2006
- 朴赫淳, 「臺灣事件論」, 『서울대東洋私學科論集』 6호, 1982
- 徐萬民·周兆利, 『劉銘傳與臺灣建省』, 福建人民出版社, 2000
- 손준식, 「청조의 대만 인식과 정책」, 『근대중국연구』 1집, 2000
- 施添福, 『清代臺灣的地域社會 - 竹塹地區的歷史地理研究』, 新竹縣文化局, 2001
- 李國祁, 「清代臺灣社會的轉型」, 『中華學報』 5卷3期, 1976
- 李國祁, 『中國現代化的區域研究 - 閩浙臺地區(1869-1916)』,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1982
- 章開沅·馬敏·朱英 主編, 『中國近代史上的官紳商學』, 湖北人民出版社, 2001
- 張世賢, 『晚清治臺政策(1874-1895)』, 商務印書館(臺灣), 1978
- 陳在正·孔立·鄧孔昭 等著, 『清代臺灣史研究』, 廈門大學出版社, 1986
- 崔熙在, 「洋務派의 臺灣事件對策論과 ‘清議」, 『歷史教育』 39집, 1986
- 하정식·유장근 엮음, 『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모』, 혜안, 2002
- 許雪姬, 『滿大最後的二十年 - 洋務運動與建省』, 自立晚報, 1993
- 黃富三, 「從劉銘傳開山撫番政策看清廷·地方官·士紳的互動」, 『中華民國史專題第五屆研討會(國史上中央與地方的關係)』, 國史館, 2000
- Meskill, Johanna, *A Chinese Pioneer Family: The Lins of Wu-feng, Taiwan, 1729-1895*, Princeton Univ., 1979
- Shepherd, John R., *Statecraft and Political Economy on the Taiwan Frontier, 1600-1800*, Stanford Univ. Press, 1993

명·청 교체 이후 통신사 교류를 통한 조선/일본 지식인의 상호인식과 청 인식

구 지 현

1. 들어가며

조선후기 조선과 일본의 외교가 재개된 후 1차에서 3차에 걸쳐 파견된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는 엄밀히 말해 임시적인 명칭이라 할 수 있다. 포로로 잡혀갔던 조선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쇄환(刷還)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이었고 쇄환이란 언젠가 끝날 일이기 때문이다. 교린국에 보내는 통신사라는 명칭은 1636년 제 4차 사행 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이때 쓰시마에 보내는 문위행(問慰行)도 항례(恒例)로서 굳어지게 되었다. 쓰시마의 국서 개작을 폭로했던 柳川一件을 둘러싸고 일어난 것이었지만,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은 외교 관계를 재정립하였고 양국 관계의 안정기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쓰시마가 궁지에 몰려있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성장하는 後金の 위협이 없었다면 과연 조선은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을까? 1636년 통신사가 일본에 간 사이 병자호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통신사 파견 당시 조선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임진왜란을 경험한 조선에게 일본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기는 했지만, 북쪽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좀 더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경계하고 재침입을 예방하는 차원의 미온적 외교는 12차 사행까지 꾸준히 견지된 조선의 기본적 방침이었다.

격변하는 동아시아의 정세를 배경으로 재개된 외교 교류였으나, 통신사는 조선과 일본 양국 사람이 직접 만날 수 있는 드문 기회였다. 이 기회를 통해 양국 문사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어졌는데, 500명에 가까운 사행원을 대동한 통신사 사절 가운데 製述官, 書記, 寫字官, 畫員, 良醫 등 일부 사행원이 일본인의 詩書畫 요구와 의학 지식 문답에 대응하였고 일본에서는 막부와 각 藩에 소속된 일군의 儒學者나 儒醫가 접대의 명목으로 조선 문사를 만났다. 이들은 통역보다는 직접 소통이 가능한 한문 필담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고, 시문의 창화를 통해 상대국의 낯선 문사에게 자신의 학문 수준을 우선 내보이는 것이 관례였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계층적 성격은 매우 달랐다. 제술관 이하 조선의 문사들은 기본적으로 외교를 위해 파견된 관료인데 반해 일본인은 한문 지식을 활용할 목적으로 大名에게 고용된 지식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같은 문자를 사용하여 이국인과 소통한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기쁜 경험이기도 했지만, 양국 문사의 대화 목적은 달랐다. 조선 문사는 외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관료였기 때문에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해야 하는 동시에 일본의 정세를 정탐해야

했다. 일본 문사에게는 主君을 위해 사신을 잘 접대해야 하는 동시에 자신의 한문 지식과 한문 능력을 주군에게 드러내 보일 검증의 기회였다. 전통적인 사신의 임무인 “專對”를 행하는 조선의 외교 관료와 중국에 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학습한 후 시행해 보려는 일본의 신흥 지식인 계층 사이에 상대에 대한 기대와 오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箕子の 후손 조선과 泰伯의 후예 일본

조선인을 접대한 최초의 일본 유관으로 야하시 라잔[林羅山, 1583~1657]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주로 외교를 담당하고 국서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1636년부터 조선으로 보내는 국서를 쓰시마가 아닌 막부에서 주관하게 되면서 조선 사신들이 에도에 머무는 동안 빈번하게 접촉하게 되었다. 조선쪽 사행록에는 보통 승려 도춘(道春)이라고 지칭된다. 에도 막부 이후 새로운 계층이었던 유관이 기존 제도에 편입되면서 승려와 마찬가지로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이는 화사(畫師)나 의사(醫師)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인이 만나는 일본의 신흥지식인층 가운데에는 승려가 아니었지만 머리를 깎고 승려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불교를 비판하는 유자이면서 불가의 복장을 해야 하는 라잔에게 있어서, 이런 현실적인 모순은 태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라잔의 문집에 보이는 태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유자(儒者)이면서도 승려의 복장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변호의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다고 이미 지적된 바 있다.¹⁾ 일본에는 천황이 주나라 태백과 중용(仲雍)의 후손이라는 태백후예설이 존재했다. 왕위를 아우 계력(季歷)에게 양보하기 위해 두 형제는 오(吳)로 피했는데, 후손 중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와 선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효경』에 “신체발부는 감히 훼손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효자는 온전한 몸으로 죽는다. 그러나 태백은 형만(荊蠻)으로 도망하여 머리를 자르고 문신하고 오랑캐로 변하였으니 선하지 않은 것인가? 겨울철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깊은 곳에 숨은 새와 비슷한 것인가? 공자는 “관중이 아니었으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몄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예기』에서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문신을 하는 것은 오랑캐의 풍속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자는 미친 척하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마침내 조선으로 도망하기에 이르렀다. 어떤 이는 머리를 자르고 어떤 이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모두 오랑캐 땅에 살았지만, 어떤 이는 지덕(至德)이라 일컬어지고 어떤 이는 삼인(三仁)에 든 데다 명이(明夷)라고 여겨지니 우리들이 위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²⁾

라잔이 태백과 함께 기자(箕子)를 언급한 것은 어째서인가? 허은주의 지적대로 여기에는 “통

1) 허은주, 「유복과 유자의식」, 『日本言語文化』 16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0, 517~536쪽.

2) 〈泰伯箕子〉 『林羅山文集』 卷35 : “孝經云身體髮膚不敢毀傷 故孝子全身而歸之 然太伯逃荊蠻斷髮文身 而變于夷 則不善歟 與出喬入幽相似歟 孔子曰 微管仲其被髮左衽 禮云被髮文身戎夷之俗也 然箕子佯狂被髮 卒之至於逃入朝鮮 或斷髮或被髮 皆居于夷 或稱至德 或列三位 且以以明夷 吾儕無以爲不疑乎”

신사와의 교류를 통해 빚어지는” 시선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 崇儒抑佛을 고수 해온 조선쪽에서 불교를 숭상하는 일본의 습속이 이질적인 것은 당연하였다. 그런데 유자로 자처하는 라잔 같은 인물이 승려의 복장을 하는 것은 불교에 물든 유자의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사신의 접대를 여러 차례 한 라잔이 이를 모를 리 없었다. 1643년 조경(趙綱)은 직접적으로 “身體髮膚不敢毀傷”의 구절을 들어 라잔을 추궁하기도 하였다. 위 인용문에 보이듯, 라잔은 조경이 지적했던 『효경』의 구절에 대한 반론으로 태백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데 라잔은 더 나아가 태백과 기자를 등치시킨다. 기자는 곧 조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태백은 오 땅에서 단발과 문신을 행했고, 기자는 조선에서 피발을 하고 살았다. 문신과 피발은 오랑캐의 풍속이지만 공자는 태백을 지덕으로, 기자는 삼인(三仁)의 한 사람으로 추앙하였다. 조선과 일본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중국의 현인(賢人)과 맞닿아있다는 강변이었다.

그러나 라잔의 태백설은 조선인에게 큰 인상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이 “어떤 이는 왜황은 회(姬) 성으로 오나라 태백과 중용의 후손이라 하고 어떤 이는 왕(王)이 성이라 하나 사실인지 모르겠다.”⁴⁾라고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설은 이미 조선에까지 알려져 있었지만 신빙성이 없는 여러 설 가운데 하나로 치부되고 있었다. 그리고 1636년 직접 만났던 김세렴(金世濂, 1593~1646)은 통신사행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이마에 문신한 작은 백성들	叢爾雕題民
흑치국과 서로 백중이라네	黑齒與伯仲
태백은 어떻게 들어왔으며	太白何由入
서복은 또 누가 보냈던가	徐福又誰送
머리 깎는 예전 풍습 전해오지만	祝髮舊俗傳
옛 전적에 육경은 빠져있구나	六經古籍空 ⁵⁾

김세렴에게 문신의 풍속은 여전히 흑치국(黑齒國)과 비슷한 것일 뿐이다. 祝髮처럼 오랑캐 풍속만 남은 채 중요한 六經은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은, 태백의 후예든 서복이 경적을 가져왔든 현재의 일본국을 문명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 기자(箕子)가 은의 난리를 만나 조선으로 피하였는데 흑자는 무왕(武王)이 봉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귀국에서는 속칭 기자가 올 때 따라온 자가 5천인이었기 때문에 반만 명의 은나라 사람이 요하(遼河)를 건넜다고 한다. 이 일은 중국의 여러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니 그 근거를 알고 싶다.⁶⁾

1636년 라잔은 김세렴을 비롯한 세 사신에게 편지를 보내 몇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3) 허은주, 전개 논문.

4) 『芝峯類說 卷2 諸國部 外國』

5) 〈赤間關次從事韻〉 『金東溟槎上錄』

6) 〈寄朝鮮國三官使〉 『林羅山文集』 卷14 : “一箕子遭殷亂避地朝鮮 或曰武王封之 然貴國俗稱箕子來其從子五千人 故云半萬殷人渡遼水 此事中華群書未之見也 欲知其所據”

기자에 관한 것도 들어있었다. 이 질문은 앞선 시대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제기했던 것과 같다.⁷⁾ 서거정은 “半萬殷人渡遼水”라는 구절의 출처인 함허자(涵虛子)의 『天運紹統』을 인용하였는데, 함허자 이전의 문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기자가 조선으로 와 문물을 전해주었다는 기록에 의혹을 제기했던 것은 아니었다. 라잔의 질문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인들이 사용하는 “半萬殷人渡遼水”의 출전에 대한 의문일 뿐, 기자동래설에 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니었다.

함삼[하야시 독코사이] : 귀국 평양에 있는 정전은 기자가 구획한 것인데,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까? 옛 공조법은 아직도 있습니까? 또 쓰는 책력은 어느 시대의 제도입니까?⁸⁾

1655년 라잔의 아들인 하야시 독코사이[林讀耕齋, 1624~1661]가 讀祝官 이명빈[李明彬, 1620~?]에게 한 질문에는 위와 같이 기자의 정전제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야시 부자는 이미 조선의 문헌을 통해 기자조선에 관해 학습한 상태였고,⁹⁾ 은나라의 문물이 기자를 통해 조선에 전해졌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였다.

양국인의 창화시를 살펴보면, 일본 문사들이 상대국 조선을 “箕邦”, “箕子國”처럼 箕子에 관련시켜 표현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조선인이 기자를 통해 가지는 자부심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국을 높이는 차원에서 쓰이는 명칭이었다. 반면 조선인들은 일본을 蓬萊, 鼈頭처럼 신선의 세계로 표현하거나 불사약을 찾으러 떠난 서복의 나라로 표현하기를 선택했다. 祝髮과 黑齒의 풍속을 주나라의 태백과 관련하여 미화시키는 것은, 김세렴의 경우에서 보듯 조선인 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중화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조선과의 간극

17세기 조선인을 만나려던 일본문사들은 다소간의 중국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었다. 1636년 이시카와 조잔[石川丈山, 1583~1672]은 이문학관 권칙(權弼, 1599~1666)에게 해금이 풀리면 조선을 통해 중국까지 가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1682년 히토미 지쿠도[人見竹洞, 1638~1696]가 조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한문으로 시를 주고받으며 淸談을 나누는 唐人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었다.¹⁰⁾ 이런 예를 본다면 일본인이 조선 자체를 사모한다기보다는 배경에 있는 중화와 동일

7) 『筆苑雜記』 卷1 : “按天運紹統 涵虛子曰 朝鮮在安東國之東 古肅慎氏之地 武王封箕子爲諸侯 以奉殷祀 爲中國藩邦 自周亡至後漢千餘年 爲公孫康所篡 箕子之統緒失傳焉 又云箕子率中國五千人入朝鮮 其詩書禮樂醫巫陰陽卜筮之流 百工技藝 皆從而往焉 故曰半萬殷人渡遼水者是也 今考公孫康所篡者無據 其曰半萬殷人渡遼水者 又不知出於何書也”

8) 〈函三先生筆語〉 『朝鮮通信總錄』 10 : “函三問曰 貴國有井田在平壤 是箕子之所區劃也 今尙然乎 貢助之古法猶存乎 且又所用之曆 則何世之遺制乎”

9) 〈函三先生筆語〉 『朝鮮通信總錄』 10 : “函三曰 貴國史冊所云 箕子之封于朝鮮也 從者五千人 故有半萬殷人渡遼水之句 是誰人之所吟乎 全篇諳記否 石湖曰 史冊所記雖有此語 而何可盡信 詩句則高麗時人所吟 而余忘其名 亦未記全篇”

시하였다는 지적은¹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682년 9월 28일 京都 大德寺의 승려 覺印은 本國寺에서 제술관 성완(成琬) 일행을 만나고 나오다가 우연히 세 사신을 만나러오는 西京尹의 일행을 보게 되었다. 각인은 “예식이 매우 엄중했다(其禮式甚嚴重)”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시를 남겨놓았다.

세 사신 객관에서 손님을 맞이하니	三使邀賓旅館墀
예용은 한당의 위와 비슷하네	禮容彈效漢唐儀
가련하게 중국은 오랑캐 복색으로 변했지만	可憐中國變胡色
조금은 조선에 문물이 남았네	蕞爾朝鮮文物遺 ¹²⁾

각인이 관찰한 조선인은 창과 깃발을 들고 줄지어 서서 서경윤을 맞이하는 군관들의 모습, 서경윤을 인도해 들어가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들의 모습, 관복을 갖추어 입고 읍을 하는 세 사신의 모습이였다. 현재 남아있는 행렬도나 인형에 자주 보이는 모습들이다. 이러한 조선인의 복색과 행동을 각인은 “漢唐儀”라고 표현하면서, 중국은 오랑캐로 바뀐 현재 중화의 문물이 조선에 남아있다는 뜻을 드러내었다. 조선인의 小中華 의식이 일본인의 시에 그대로 보인다. 이는 조선을 중화와 동일시하려는 태도가 일본의 일방적인 것만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필담과 시문 곳곳에 중화의 문물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을 드러내려는 조선 문사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1682년 자체군관으로 사행에 참여했던 홍세태(洪世泰, 1653~1725)는 조선이 문학과 문장을 숭상하여 소중화(小中華)라고 한다고 직접 말하기까지 하였다.¹³⁾ 문명국으로서의 조선의 위신을 높이는 노력의 일환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인의 중국 취미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대한 반발은 1682년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다. 8월 23일 이타자카 다메아츠(板坂爲篤)는 조선인을 만나기 위해 쓰시마 記室의 점검을 먼저 거쳐야 했고, 字와 號 등을 기록한 조선식의 명함을 작성해야 했다. 여러 가지 번잡한 과정을 거쳐 이타자카가 만난 조선인은 일본인 응대를 담당할 제술관 일행이었다. 조선의 세 사신은 일본인과 대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했고, 에도에 온 조선 사행원 362명 가운데 필담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 네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더욱 실망하였다.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예의의 나라라 부르고 군자의 나라라 일컬으면서 측주(廁籌)를 손에 잡고 문사(文史)를 발로 밟는다. 어떤 이는 발 뺀 채 글을 쓰고 어떤 이는 가로 누워 책을 읽으니, 예의 있는 군자가 어찌 다른 나라에 들어와 이처럼 하는가? 태만하도다. 내가 들으니 중국의 선비는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그래서 『국신록(國信錄)』이 편집되었고, 사신 보낼만하다는 감탄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10) 구지현, 「17세기 필담창화의 성립과 일본인의 조선인식」, 『인문과학』 44, 성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5~28쪽.

11) 오바타 미치히로, 「신유한의 『海游錄』에 나타난 일본관과 그 한계」, 『한일관계사연구』 19, 한일관계사학회, 2003, 5~46쪽.

12) 『和韓唱酬集』 一之二

13) 『韓使手口錄』 : “清介問曰 貴邦多有好學者乎 答曰 弊邦最尙文學 文章之士 代不乏人 故有小中華之說”

근래 진류(陳留)의 사씨(謝氏)가 조선보다 예의를 아는 오랑캐 나라가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은 당연하다. 오랑캐이면서 조금 예의가 있는 것이 조선인 것이니 이른바 군자의 예의와 함께 논할 수준이 아니다. 문자를 아는 자도 많지 않으면서 문물의 나라라 부르는 것은 과연 무슨 일인가?¹⁴⁾

실망감 속에서 관찰한 조선인의 모습도 기대와 몹시 어긋나는 것이었다. 제술관, 사자관, 화원들이 일본인과 어울려 요청받은 대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주면서, 한쪽에서는 자유롭게 필담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한 그는 산만하고 진중하지 못한 조선인의 모습에 비판적이다. 문헌을 통해 엄숙하고 위의를 있는 외국 사절을 상상해 오던 그에게 실제 본 조선인은 무례하게 보였던 것이다. 문자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은, 조선인이 자랑하는 소중화라는 것도 거짓에 불과함을 지적한 것이다. 약간 예의가 있다 하더라도 조선은 일본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오랑캐 나라일 뿐이었다.

환상을 지녔다가 조선에 실망하는 일본 문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조선과 중국의 실상에 접근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다. 조선인은 국내 정세는 물론 중국 정세에 관해 정확한 언급을 회피하였다.

(가) 함삼[하야시 독코사이] : 大明의 근래 전쟁은 어떻습니까? 15성이 모두 韃虜의 손에 들어갔습니까? 大清이라는 국호와 順治라는 연호는 지금도 똑같습니까? 皇明의 후손은 이어지고 있습니까? 정지룡, 오삼계의 생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섬서의 이자성과 사천의 장경헌 모두 섬멸되었습니까?

석호[이명빈] : 보여주신 일은 우리나라에서 자세히 알 수 없으니 귀국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써서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사가 만나 한바탕 문장을 논하면 충분하니 하필 모르는 일을 언급하겠습니까?¹⁵⁾

(나) 북인이 중화를 차지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근래 남방에서 군대가 일어나 옛 문물을 거의 회복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귀국에서 혹시 상세한 내용을 들으셨다면 들은 내용을 써주셨으면 합니다.¹⁶⁾ ○ 우리나라는 북경과 통할 뿐이고 남경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들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귀국은 나가사키에 왕래하는 중국인이 없는 날이 없으니 상세히 알 수 있겠지요. 들은 것은 과연 어떤 일입니까?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가)는 1655년의 필담이고 (나)는 1688년 흥세태와 오하라 다이조켄[小原大丈軒, 1637~1712] 사이에 이루어진 필담이다. 당시 조선은 매년 두 차례 청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었고 청의 조정과 직접

14) 〈東使紀事〉 『和韓唱酬集』 권4 : “稱禮義之邦 謂君子之國 而手厠籌足文史 或箕踞涉筆 或側臥讀書 禮義之君子 何入他邦如斯夫怠慢哉 僕聞中國之士 以使者他邦爲光榮 所以國信錄之編集也 使哉之嘆 可得而聞焉 近陳留謝氏 有謂夷狄諸國 莫禮義於朝鮮 宜哉此言 夷狄而稍有禮義 朝鮮也矣 所謂與君子之禮義 非同日之論矣 蓋知文字者亦不多 其稱文物之邦者 果何事耶”

15) 〈函三先生筆語〉 『朝鮮通信總錄』 10 : “函三問 大明近世之兵革如何 十五省悉入韃虜之手乎 國號大清年號順治 至今猶然乎 皇明之宗脈 不絕如線乎 鄭芝龍吳三桂存沒如何 且陝西之李自成 四川之張景憲 皆其摧滅乎 石湖言 示事則我國之不能詳知 亦無異於貴邦 旣不能詳知 則非所當書示 文士相逢 只是一場論文足矣 何必於及不知之事乎”

16) 『和韓唱酬集』 一之二 : “嘗聞北人御中華之天 近亦傳南方兵起 殆將復舊物 然未知其詳 貴國或有聞其詳 願書所其聞以示之 ○ 我邦只通北京 與南京相去隔絕 不相聞知 貴邦則長崎島 中原人往來者 無日無之 必得詳知 所聞者 果何事耶 願聞其詳”

통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카사키 상선을 통해 전문을 얻는 일본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당연했다. 20여년 차이를 둔 이명빈과 홍세태의 대답은 한결같이 모른다는 것이었다. 국가 정세에 관한 언급을 삼가는 대신 일본인과의 대화를 시문창화와 문장을 논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조선인의 태도는 1636년부터 18세기까지 계속 되었다.

4. 중화를 보존하는 동류의식의 실마리

1763년 통신사행은 가장 활발하게 필담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다양한 신분의 일본인들이 조선인과 필담창화를 나누었고 다양한 형태의 필담창화집이 간행되었다. 일정한 수의 사행원이 파견되었지만, 조선 사행원의 기록 역시 전 시대에 비할 수 없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한 때이기도 하다. 제한적이기는 하였지만 150여 년간 교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호 이해의 폭도 커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조선 문사와 동류의식을 보이는 일본 문사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앞서 내가 남경의 상선을 감시하니, 70여 명의 무리가 모두 중화의 풍모가 전혀 없이 오랑캐 복장과 변발을 하고 있기에, 장사하는 백성들이라 본래 그런 것이고 사대부라면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였다. 물어보니 지금 복장은 차등 없이 청조 시작부터 시행되었고, 명나라 때 제도는 이미 없어져 조복도 식에서만 볼 수 있을 뿐이라 했다. 이에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 명나라가 지키지 못하고 오랑캐가 중화를 어지럽히고 나니 더러운 달로[청]가 복식과 풍속을 바꾸어 관면과 의대를 하던 선왕의 나라가 털가죽 입고 왼쪽으로 옷깃을 여미는 오랑캐 풍속으로 변했으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랴.’라고 하였다. 이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소매를 떨치고 이를 갈지 않은 적이 없다. 중국이 오히려 이러하니 오랑캐 말을 쓰는 곳임에랴. 이로 보건대 선왕의 유훈을 준수하고 그 장복 가운데 지금 볼 만한 것을 바로 하늘과 땅 사이 오직 우리와 한국[조선]만이 지니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당나라를 따르고 저들은 명나라를 따르니 각자 그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¹⁷⁾

解禁이 풀린 뒤 드나드는 중국 상선의 장사치들은 모두 청의 복장과 변발을 하고 있었다. 林家の 문인 출신이었던 세키 쇼소[關松窓, 1727~1801]는 중국에서 중화의 문물이 사라진 것에 대해 통탄의 눈물을 흘린다. 그는 중화의 종주가 사라진 상황에서 제도를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조선과 일본 두 나라를 꼽는다. 일본은 당나라의 제도를 들여왔고 조선은 명나라의 제도를 따랐기 때문에, 두 나라의 제도가 달라졌다고 설명한다.

저것도 저것대로의 是非요, 이것도 이것대로의 是非이니 내가 무엇을 고집하랴. 그러나 그들이 우리보

17) 〈後序〉 『傾蓋集』 : “初吾監視南京商舶也 其徒七十餘人 皆胡服辮髮 不復有華風矣 乃謂賈豎黎氓 固當然也 其士大夫 則未必同焉 問之則曰 今世之俗服 無差等施由朝始 若夫明時之制 卽既靡有孑遺 獨在其朝服圖式觀之而已矣 於是泫然涕出曰 噫 朱明失守 蠻夷猾夏而後 腥膻韃虜 變服易俗 使先王冠冕衣帶之國 變成於旃裘左衽之俗 則其能國乎 每思及之 未嘗不奮袂切齒也 中土猶然 況於諸戎侏狝乎 繇是觀之 則遵先王之遺訓 其章服之可觀乎 乃在天地間 唯我與韓有是夫 然我則以唐 彼則以明 皆有因而存焉”

다 잘하는 것은 있다. 韓人이 잃어버린 문물이 얼마나 된다고 비난하고 깎보기를 어찌 심하게 할 것인가?¹⁸⁾

중국에 대한 환상을 채워주지 못한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비난에 대해서도 세키 쇼소는 위와 같이 변호한다. 일본이 잘 보존하는 점이 있고 조선이 잘 보존하는 점도 있다. 그래도 여전히 조선이 나은 점이 있으니, 조선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일본을 또 하나의 소중화로 설정함으로써 조선과 중화의 사이에서 생겨났던 기대와 실망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중화의 교화를 입은 같은 문명국으로서의 조선과 일본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동지적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세키 쇼소는 일반적인 일본 유자의 조선 인식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조선인이 표방해왔던 교화의 개념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유자층이 일각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18) 『傾蓋集』：“會於韓貢使來也 我搢紳處士 多通刺請見 館無虛日 或陋儒曲學 專牽性命之說 屑屑焉 執之曲禮 責於人之不備 終無已矣 其望於韓人 亦以君子之習於禮者而後 所能爲焉 可謂不知類耳 或恒言稱唯華之從 是則吾所謂胡韃 衣服飲食 不與華同也 彼一是非 此一是非 我何執 然彼善于此則有之矣 韓人所失幾何 而譏薄之唯何甚”

明・清交替以後の通信使交流を通じて見た 朝鮮/日本の知識人の相互認識と清認識

具 智賢

1. はじめに

朝鮮後期、朝鮮と日本の外交が再開した後、1次から3次にわたって派遣された回答兼刷還使は厳密には臨時的な名称だと言える。捕虜として捕らえられた朝鮮人を連れて替える刷還に少しだけ重きを置いたもので、刷還とはいつか終わるものだからである。交隣國に送る通信使という名称は1636年、第4次使行から使われ始めた。この時、對馬に送る問慰行も恒例として固まることになった。對馬の國書改竄を暴露した柳川一件をめぐり起こったものであるが、この面目のない事件をきっかけに、朝鮮と日本は外交関係を再成立し兩國關係の安定期に入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朝鮮と密接な関係にあった對馬が窮地に陥っていたとは言え、当時成長する後金の危険がなかったならば、果たして朝鮮はこのような積極的な姿勢を示したであろうか？ 1636年、通信使が日本に向かった隙間に丙子胡亂が起こったという事実は、通信使派遣当時朝鮮がたいへん危うい状況であったことと推察される。壬辰倭亂を経験した朝鮮にとって日本は常に警戒の対象ではあったが、北方の危険が存在する状況において日本と少しばかり進んだ平和的な関係を維持しようとしたのであろう。日本を警戒し再侵入を妨げる次元の穩便な外交は12次使行まで堅持され續けた朝鮮の基本的な方針であった。

激変する東アジアの情勢を背景に再開された外交交流であったが、通信使は朝鮮と日本兩國人が直接出会うことのできる少ない機会であった。この機会を通じて兩國文士達の間には自然に交流が續いたのだが、500人に近い使行員を連れてた通信使使節の中で製述官、書記、寫字官、畫員、良医等、一部使行員が日本人の詩書畫要求と醫學知識問答に對応し、日本では幕府と各藩に所屬した一群の儒學者や儒医が接待の名目で朝鮮文士に會った。彼等は通譯よりは直接疏通が可能な漢文筆談を通じて言葉を交わし、詩文の唱和を通じて相手國の見知らぬ文士に自身の學問水準を示すのが慣例であった。

朝鮮人と日本人の階層的性格はたいへん異なっていた。製述官以下朝鮮の文士達は基本的に外交のため派遣された官僚であるのに對し、日本人は學問知識を活用する目的で大名に雇傭された知識人達が主流を成した。同じ文字を使用し異國人と疏通するという事實在不思議で嬉しい經驗でもあったが、兩國文士の對話目的は異なっていた。朝鮮文士は外交任務を誠實に遂行

する官僚であったため國家の威信を傷つけないよう慎重に行動しなければならず、同時に日本の情勢を探索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日本文士は主君のため使臣をよくもてなさなければならず、同時に自身の學問知識と漢文能力を主君に示す検討の機會であった。伝統的な使臣の任務である「專對」を行う朝鮮の外交官僚と中國に關する知識を間接的に學習した後施行しようとする日本の新興知識人階層との間に相手に對する期待と誤解が存在することは当然のことだと言える。

2. 箕子の後孫朝鮮と泰伯の後裔日本

朝鮮人を接待した最初の日本人儒官として林羅山(1583-1657)を擧げることができる。彼は主に外交を担当し國書を作成する仕事を担当していたのだが、1636年から朝鮮に送る國書を對馬ではなく幕府で主管するようになると、朝鮮使臣が江戸に留まる間、頻繁に接触するようになった。朝鮮側使行録には概して僧侶道春と称されている。江戸幕府以後新しい階層であった儒官が既存の制度に編入されつつ僧侶と同じ地位を付与されたため生じたものである。これは畫師や医師も同じであった。朝鮮人が出會う日本の新興知識人層の中には僧侶ではないが頭を丸め僧侶の服裝をした人達が多かった。

仏教を批判する儒者でありながら仏家の服裝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羅山にとって、このような現實的な矛盾は泰伯に對する關心に繋がった。羅山の文集に見える泰伯についての持續的な關心は儒者でありながら僧侶の服裝をしている自身についての弁護の延長線上と見なすことができる。すでに指摘されたところがある。日本には天皇が周の泰伯と仲雍の後孫という泰伯後裔説が存在した。王位を弟季歴に譲ったため、二人の兄弟は吳に避けたが、後孫の内の一部が日本に渡り先朝となったと言う。

『孝經』に「身体髮膚、敢えて毀傷せず」とある。故に孝子は穩便な身で死ぬ。しかし泰伯は荊蠻へ逃げ髪を切り刺青をして夷狄に変わったので、善でなかろうか。冬、高い木から降り深い所に隠れた鳥と似たものなのか。孔子は「管仲でなければ髪をほどき服を左に巻いただろう」と述べ、『禮記』では「髪を解き刺青をするのは夷狄の風俗なり」とある。しかし箕子は狂ったふりをし髪を解き、遂に朝鮮に逃げるに至った。ある者は髪を切りある者は髪を解き皆夷狄の地に暮らしたが、ある者は至徳と呼びある者は三仁に入り明夷と思われた。我々が疑わずにいられようか²⁾。

1) 許恩珠「儒服斗 儒者意識」『日本言語文化』16、韓國日本言語文化學會、2010、517-536頁。

2) 「泰伯箕子」『林羅山文集』35：孝經云身體髮膚不敢毀傷 故孝子全身而歸之 然太伯逃荊蠻斷髮文身 而變于夷 則不善歟 與出喬入幽相似歟 孔子曰 微管仲其被髮左衽 禮云被髮文身戎夷之俗也 然箕子佯狂被髮 卒之至於逃入朝鮮 或斷髮或被髮 皆居于夷 或稱至德 或列三位 且以明夷 吾儕無以爲不疑乎。(※漢文の翻譯は韓國語發表文のそれを參考にしている。以下同じ)

羅山が泰伯と共に箕子に言及したのはなぜだろうか。ホ・ウンジュ(許恩珠)の指摘した通り、ここには「通信使との交流を通じて照らされる」視線が背景に作用していると言える³⁾。崇儒抑仏を固守してきた朝鮮側にとって仏教を崇拜する日本の習俗が異質的なものは当然であった。ところで、儒者と自称する羅山のような人物が僧侶の服装をすることは仏教に染まった儒者の典型的な姿に該当すると言える。朝鮮使臣の接待を数度行った羅山がこれを知らないはずがなかった。1643年、趙綱は直接「身体髮膚不毀傷」の句節を挙げ羅山を追求している。上の引用文に見えるように、羅山は趙綱が指摘した『孝経』の句節に対する反論として泰伯を引いている。羅山は更に泰伯と箕子を同置させている。箕子は即ち朝鮮を指すと言えよう。泰伯は呉の地で斷髮と刺青を行い、箕子は朝鮮で被髮を行い暮らした。刺青と被髮は夷狄の風俗であるが、孔子は泰伯を至徳とし、箕子は三仁の一人と追仰した。朝鮮と日本の淵源を遡れば、同じく中國の賢人と繋がるという強弁であった。

しかし、羅山の泰伯説は朝鮮人に大きな印象を与えられなかったようである。近い時期、李睟光(1563-1628)が「ある者は倭皇は姬姓で吳國泰伯と仲雍の後孫だと言ひ、ある者は王が姓だと言ひ、事實なのか分からない」⁴⁾と言及したところがあることから、この説は既に朝鮮にまで知られていたが、信憑性がない諸説のひとつに数えられている。そして1636年、直接會ったことのある金世濂(1593-1646)は通信使行で次のような詩を残した。

叢爾雕題民	額に刺青をした小さい民
黑齒與伯仲	黑齒國と伯仲なり
太白何由入	太白は何由入り
徐福又誰送	徐福又た誰が送る
祝髮舊俗傳	髮を切る旧俗伝われど
六經古籍空	六經古籍になし ⁵⁾

金世濂にとって刺青の風俗は依然として黑齒國と似たものであるのみである。祝髮のように夷狄の風俗のみ残ったまま、重要な六經は残っていないという指摘は、泰伯の末裔であれ徐福が経籍をもたらしたにせよ、現在の日本國を文明國と見なせない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

1. 箕子が殷の亂に遭い朝鮮に避けたのだが、ある者は武王が奉じたのだと言う。しかし貴國では俗称箕子が來る時、從つて來た者が5千人であつたので、半万人の殷の人が遼河を渡つたと言ひ。この話は中國の諸冊では探し出せないの、その根據を知りたい⁶⁾。

3) 許恩珠、前掲論文。

4) 『芝峯類説 卷2 諸國部 外國』

5) 「赤間關次從事韻」『金東溟槎上録』

6) 「寄朝鮮國三官使」『林羅山文集』卷14 : “一箕子遭殷亂避地朝鮮 或曰武王封之 然貴國俗稱箕子來 其從子五千人 故云半萬殷人渡遼水 此事中華群書未之見也 欲知其所據”

1636年、羅山は金世濂をはじめとする三使臣に手紙を送りいくつかの質問をしたのだが、上のように箕子に關するものも含まれていた。この質問は昔に徐居正(1420-1488)が提起したものと同じである⁷⁾。徐居正は「半萬殷人渡遼水」という句節の出處である 涵虛子の『天運紹統』を引用したのだが、涵虛子以前の文獻から出處を見つけ出せないと述べた。しかし、箕子が朝鮮に來て文物を伝えたという記録に疑惑と提起したのではなかった。羅山の質問も同様である。朝鮮人が使用する「半萬殷人渡遼水」の出典に對する疑問であるのみで、箕子東來說に關する疑惑を提起したものではなかった。

函三[林讀耕齋]：貴國平壤にある井田は箕子が區畫したのですが、今も依然ありますか？ 昔の貢助法は今もありますか？ また所用の曆はいつの時代の制度ですか？⁸⁾

1655年、羅山の息子である林讀耕齋(1624-1661)が讀祝官李明彬(1620-?)に尋ねた質問には上のように箕子の井田制に關するものも含まれていた。林父子はすでに朝鮮の文獻を通じて箕子朝鮮に關して學習した状態であり⁹⁾、殷の文物が箕子を通して朝鮮に伝わったという事をそのまま受け入れた状態であった。

兩國陣の唱和詩を見ると、日本文士達が相手國朝鮮を「箕邦」「箕子國」のように箕子に關連させて表現するケースを簡単に探し出すことができる。これらは朝鮮人が箕子を通して持つ自負心を理解していたために、相手國を高める次元で使われる名称であった。一方、朝鮮人は日本を蓬萊、鼈頭のように神仙の世界で表現したり、不死の薬を探しに去った西北の國と表現したりした。祝髮と黒齒の風俗を周の泰伯と關連して美化させるのは、金世濂の例に見るように朝鮮人には難しいことだったと言える。

3. 中華に對する幻想と現實の朝鮮との間

17世紀、朝鮮人に會おうとした日本文士達は多少に拘らず中國に對する憧憬を抱いていた。1636年、石川丈山(1583-1672)は史文學官權尙(1599-1667)に海禁が解かれれば朝鮮を通じて中國まで行きたいという所望を述べている。1682年、人見竹洞(1638-1696)が朝鮮人の眺める視角には漢

7) 『筆苑雜記』卷1：“按天運紹統 涵虛子曰 朝鮮在安東國之東 古肅慎氏之地 武王封箕子爲諸侯 以奉殷祀 爲中國藩邦 自周亡至後漢千餘年 爲公孫康所篡 箕子之統緒失傳焉 又云箕子率中國五千人入朝鮮 其詩書禮樂醫巫陰陽卜筮之流 百工技藝 皆從而往焉 故曰半萬殷人渡遼水者是也 今考公孫康所篡者無據 其曰半萬殷人渡遼水者 又不知出於何書也”

8) 「函三先生筆語」『朝鮮通信總錄』10：“函三問曰 貴國有井田在平壤 是箕子之所區劃也 今尙然乎 貢助之古法猶存乎 且又所用之曆 則何世之遺制乎”

9) 〈函三先生筆語〉『朝鮮通信總錄』10：“函三曰 貴國史冊所云 箕子之封于朝鮮也 從者五千人 故有半萬殷人渡遼水之句 是誰人之所吟乎 全篇諳記否 石湖曰 史冊所記雖有此語 而何可盡信 詩句則高麗時人所吟 而余忘其名 亦未記全篇”

文で詩を交換し清談を交わす唐人のイメージが投影されていた¹⁰⁾。このような例を見るならば、日本人が朝鮮自体を慕っていたというより背景にある中華と同一視したという指摘は¹¹⁾ある程度妥当性があると言える。

1682年9月28日、京都大徳寺の僧侶覺印は本國寺で製述官成琬一行と會い、外に出ると偶然三使臣に會おうとする西京尹の一行を見ることになった。覺印は「礼式がたいへん嚴重であった(其禮式甚嚴重)」と評価しつつ、これについての詩を残した。

三使邀賓旅館堀	三使旅館で賓客を迎え
禮容彈效漢唐儀	礼容は漢唐の儀と似ている
可憐中國變胡色	可憐に中國は胡色に変わったが
最爾朝鮮文物遺	少しは朝鮮に文物が残った ¹²⁾

覺印が觀察した朝鮮人は槍と旗を持ち列を成して立ち西京尹を迎える軍官達の姿、西京尹を率いて入り樂器を演奏する樂工達の姿、官服を整えて着、礼(揖)をする三使臣の姿であった。現在残っている行列図や人形にしばしば見られる姿である。このような朝鮮人の服飾と行動を覺印は「漢唐儀」と表現し、中國は胡色に変わったが現在中華の文物が朝鮮に残っているという意を表した。朝鮮人の小中華意識が日本人の詩にそのまま見られる。これは朝鮮を中華と同一視しようとする態度が日本の一方的なものではなかったことを意味する。筆談と詩文のあちこちに中華の文物を維持している朝鮮を表そうとする朝鮮文士達の痕跡を探し出すことができる。1682年、子弟軍官として使行に参加した洪世泰(1653-1725)は朝鮮が文學と文章を崇尚し小中華と言う、と直接述べてもいる¹³⁾。文明國としての朝鮮の威信を高める努力の一環であろうが、一方では日本人の中國趣味をかきたてる側面もあった。

これに対する反發は1682年に既に現れ始める。8月23日、板坂爲篤は朝鮮人に會うため對馬記室の点檢を先にしなければならず、字と号等を記録した朝鮮式の名刺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種々の煩雜な過程を経て板坂が出會った朝鮮人は日本人應對を担当する製述官一行であった。朝鮮の三使臣は日本人と對面しないという事實に失望し、江戸に來た朝鮮使臣員362人の中で筆談を交わすことのできる人はこの4人にすぎないという事實に更に失望した。後に彼は次のように記録した。

礼儀の國と呼び君子の國と謂い厠籌を手に取り文史を踏む。ある者は脚を開いたまま文を書き、ある者は横に寝そべて本を讀むので、礼儀のある君子がどうして他國に來てこのようにするの

10) 구지현, 「17世紀 筆談唱和의 成立과 日本人의 朝鮮認識」, 『人文科學』 44, 成大 人文科學研究所, 2009, 5~28頁。

11) 小幡倫裕「신유한의 『海游錄』에 나타난 일본관과 그 한계」 『韓日關係史研究』 19, 韓日關係史學會, 2003, 5~46頁。

12) 『和韓唱酬集』 一之二

13) 『韓使手口録』：“清介問曰 貴邦多有好學者乎 答曰 弊邦最尙文學 文章之士 代不乏人 故有小中華之說”

か？ 怠慢である。私が聞くところによれば、中國の士は他國に使臣として行くことを榮光と思つた。それで『國信錄』が編集され、使臣を送るに値するという感嘆も聞く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近來陳留の謝氏が朝鮮より禮儀を知る夷狄の國はないと述べた。この言葉は当然である。夷狄でありながら少し禮儀があることが朝鮮であるので、いわゆる君子の禮儀と共に論じる水準ではない。文字を知る者も多くなく、文物の國と呼ぶのは果たしてどういう譯か？¹⁴⁾

失望感の中で觀察した朝鮮人の姿も期待とかけ離れたものであった。製述官、寫字官、畫員達が日本人と共に要請されるままに文を書き繪を描きながら、一方では事由に筆談を交わす場面を目撃した彼は散漫で眞剣でない朝鮮人の姿に批判的である。文獻を通して嚴肅で威嚴のある外國使節を想像してきた彼にとって、實際に見た朝鮮人は無礼に見えたのである。「文字を知る人が多くない」という發言は朝鮮人が自慢する小中華というものも嘘にすぎないことを指摘したものである。少しばかりの禮儀があると雖ども朝鮮は日本と特に変わらない夷狄の國なのであった。

幻想を抱いていたが朝鮮に失望する日本文士が現れ始めたが、これが朝鮮と中國に實相に接近するきっかけにはならなかった。朝鮮人は國內情勢は勿論、中國情勢に關して正確な言及を避けた。

(1) 函三(林讀耕齋)：大明の近世の兵革はどうですか？ 15の省が皆韃虜の手に落ちましたか？ 國号と順治という年号は今も同じですか？ 皇明の後孫は繼續していますか？ 鄭芝龍・吳三桂の存没はどうですか？ かつ陝西の李自成、四川の張景憲は皆殲滅されましたか？

石湖(李明彬)：示された事は我が國で詳しく知らないのに、貴國と同じです。詳しく知らないのに書いて示すことができません。文士が會って一場の文章を論じれば十分であるのに、どうして知らない事に言及するのですか？¹⁵⁾

(2) 北人が中華を占めたと聞いたことがあり、近來南方で軍隊が起こり昔の文物をほぼ回復したと伝わっていますが、詳しい内容は知りません。貴國でもし詳しい内容を聞かれたならば、聞いた内容を書いて下さい。○我が國は北境と通じるのみで南境とたいへん遠く離れており、聞いて知ることはありません。貴國は長崎に往來する中國人がいないことがないので、詳しく知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聞いた事は果たしてどのような事ですか？ 詳しく内容を聞きたいです。¹⁶⁾

14) 「東使紀事」『和韓唱酬集』卷4：“稱禮義之邦 謂君子之國 而手厠籌足文史 或箕踞涉筆 或側臥讀書 禮義之君子 何入他邦如斯夫怠慢哉 僕聞中國之士 以于他邦爲光榮 所以國信錄之編集也 使哉之嘆 可得而聞焉 近陳留謝氏 有謂夷狄諸國 莫禮義於朝鮮 宜哉此言 夷狄而稍有禮義 朝鮮也矣 所謂與君子之禮義 非同日之論矣 蓋知文字者亦不多 其稱文物之邦者 果何事耶”

15) 「函三先生筆語」『朝鮮通信總錄』10：“函三問 大明近世之兵革如何 十五省悉入韃虜之手乎 國號大清 年號順治 至今猶然乎 皇明之宗脈 不絕如線乎 鄭芝龍吳三桂存没如何 且陝西之李自成 四川之張景憲 皆其摧滅乎 石湖言 示事則我國之不能詳知 亦無異於貴邦 既不能詳知 則非所當書示 文士相逢 只是一場論文足矣 何必於及不知之事乎”

16) 『和韓唱酬集』一之二：“嘗聞北人御中華之天 近亦傳南方兵起 殆將復舊物 然未知其詳 貴國或有聞其詳 願書所其聞以示之 ○ 我邦只通北京 與南京相去隔絕 不相聞知 貴邦則長崎島 中原人往來者 無日無之 必得詳知所聞者 果何事耶 願聞其詳”

(1)は1655年の筆談であり、(2)は1688年、洪世泰と小原大丈軒(1637-1712)の間に成された筆談である。当時朝鮮は毎年二回清に使臣を派遣しており、清の朝廷と直接通交していたので、長崎商船を通じて伝文を受ける日本より詳しい情報を得ていたのは当然である。20余年差を置いた李明彬と 洪世泰の答は一貫して知らないというものであった。國家情勢に関する言及は慎む代わり、日本人との對話を詩文唱和と文章を論じることに制限する朝鮮人の態度は1636年から18世紀まで続いた。

4. 中華を保存する同類意識の緒

1763年の通信使使行は最も活潑な筆談が成された時期であった。多様な身分の日本人達が朝鮮人と筆談唱和を交わし、多様な形態の筆談唱和集が刊行された。一定の数の使行員が派遣されたが、朝鮮使行員の記録も前時期に比べようもないほど質的にも量的にも成長した時でもある。制限的ではあっても150余年間交流が續く中で、相互理解の幅も広がったと見られる。その中で朝鮮文士と同類意識を示す日本文士達も登場し始めた。

先に私が南京の商船を監視すると、70余人の輩が皆中華の風貌が全くなく、夷狄の服装と辮髪をしているので、商賣する百姓とは本来そういうもので士大夫であれば決まってそうではないと思った。尋ねると、今の服装は差等なく清朝の始めから使行され、明代の制度は既になくなり朝服図式でのみ見ることができる、と言う。これに私は涙を流し「嗚呼、明が守らず夷狄が中華を亂すので、汚い韃虜(清)が服飾と風俗を替え 冠冕と衣帶をしていた先王の國が毛皮を着、左に襟を巻く夷狄の風俗に変わったので、國を治めることができるのだろうか」と述べた。この事を考えるたび、袖を震わせ、齒を食いしほらないことがない。中國がむしろこの有様であれば、夷狄の言葉を使う所においてをや。これを見ると、先王の遺訓を順守しその章服の中で今見るべきものをまさに天地の間にただ我と韓國のみである。しかし我々は唐に従い、彼等は明に従うので、各自それに従い保存しているのである。¹⁷⁾

海禁が解かれた後、往來する中國商船の商賣人達は皆清の服装と辮髪をしていた。林家の門人出身であった關松窓(1727-1801)は中國で中華の文物が消えたことについて痛恨の涙を流す。彼は中華の宗主が消えた状況で制度を保存している所として朝鮮と日本の二國を指す。日本は唐の制度を取り入れ、朝鮮は明の制度に従ったため、二國の制度が異なると説明する。

17) 「後序」『傾蓋集』：“初吾監視南京商舶也 其徒七十餘人 皆胡服辮髮 不復有華風矣 乃謂賈豎黎氓 固當然也 其士大夫 則未必同焉 問之則曰 今世之俗服 無差等施由朝始 若夫明時之制 即既靡有孑遺 獨在其朝服圖式 觀之而已矣 於是我泫然涕出口 噫 朱明失守 蠻夷猾夏而後 腥膻韃虜 變服易俗 使先王冠冕衣帶之國 變成於旃裘左衽之俗 則其能國乎 每思及之 未嘗不奮袂切齒也 中土猶然 況於諸戎侏貊乎 繇是觀之 則遵先王之遺訓 其章服之可觀乎今 乃在天地間 唯我與韓有是夫 然我則以唐 彼則以明 皆有因而存焉”

彼も一是非であり、此も一是非であり、我が何に執着しようか。しかし彼等が我々より善くするものがある。韓人がなくしてしまった文物がどれほどになると非難し蔑むことがどうして甚だしいであろうか。18)

中國に對する幻想を埋められなかった朝鮮人に對する日本人の非難に對しても關松窓は上のように弁護する。日本がよく保存するものがあり、朝鮮がよく保存するものもある。それでも依然として朝鮮に進んだものがあるので、朝鮮を非難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話である。日本をもうひとつの小中華と設定することで、朝鮮と中華との間で生まれた期待と失望は意味がなくなったのである。中華の教化を受けた同じ文明國としての朝鮮と日本を相互補完できる同志的關係として把握している。

關松窓は一般的な日本儒者の朝鮮認識を代表するものではないが、朝鮮人が標榜してきた教化の概念を教官して理解する儒者宗が一角で生じ始めたという天を示す事例と言えよう。

(翻譯：高麗大 韓國史學科 博士課程 榎谷祐一)

18) 『傾蓋集』：“會於韓貢使來也 我搢紳處士 多通刺請見 館無虛日 或陋儒曲學 專牽性命之說 屑屑焉 執之曲禮 責於人之不備 終無已矣 其望於韓人 亦以君子之習於禮者而後 所能爲焉 可謂不知類耳 或恒言稱唯華之從 是則吾所謂胡韃 衣服飲食 不與華同也 彼一是非 此一是非 我何執 然彼善于此則有之矣 韓人所失幾何 而譏薄之唯何甚”

참고문헌

- 구지현, 「17세기 필담창화의 성립과 일본인의 조선인식」, 『인문과학』 44, 성대 인문과학 연구소, 2009
- 오바타 미치히로, 「신유한의 『海游錄』에 나타난 일본관과 그 한계」, 『한일관계사연구』 19, 한일관계사학회
- 허은주, 「유복과 유자의식」, 『日本言語文化』 16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0
- 하야시 라잔, 『林羅山文集』, 京都史蹟會, 1930
- 이수광, 『芝峯類說』, 문집총간 영인본
- 김세림, 『金東溟槎上錄』, 문집총간영인본
- 서거정, 『筆苑雜記』, 문집총간영인본
- 釋祖辰 외, 『和韓唱酬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人見竹洞, 『韓使手口錄』, 일본공문서관 소장본
- 澤田東江, 『傾蓋集』, 일본 규슈대학도서관 소장본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의 清朝認識

— 清朝의 지배체제와 대외관계에 대한 관심을 둘러싸고 —

彭浩

머리말

清朝는 중국에 대한 지배를 진행해나가는 한편으로, 明朝를 배워 자국중심의 조공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조선·琉球·安南이 사절을 파견하여 청조의 조공체제에 편입되려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의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는 청조와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고, 청조중심의 조공체제와 거리를 두는 형태의 독자적 외교관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바쿠후는 海防·貿易 등과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조를 대상으로 한 정보수집과 연구가 불가피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와 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바쿠후가 가지게 된 청조인식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과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개 표류일본인의 만주견문(內藤湖南1936, 園田一龜1939), 지식인의 만주어연구(內藤湖南1936, 神田信夫2005), 唐船風說書의 전래와 내용(浦康一1954, 松浦章2009 등), 교호(享保)기 바쿠후 유학자들의 청조연구(大庭脩1971, 楠木賢道1988·2009① 등), ‘華夷變態’관의 형성과 전환(川勝守1993) 등의 과제를 위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근세시기 바쿠후의 청조인식, 특히 바쿠후가 대외전략을 책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청조의 정치와 외교에 대한 바쿠후의 인식에 대한 계통적 검토에는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본 보고는 바쿠후가 청조의 지배체제와 대외관계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인식·이해하고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바쿠후의 청조인식에 관한 검토를 심화해가고자 한다.

한편, 아편전쟁 이후 국제정세의 전환과 함께 바쿠후의 청조에 대한 관심이 단숨에 높아진 일이 있는데, 이는 근대이행기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보고는 청조의 자국지배와 바쿠후의 자국지배가 안정적이었던 시대(17세기후기~18세기전기)에 주목하고자 하며, 아편전쟁 이후 바쿠후의 청조관에 대해서는 다음의 과제로 삼고 싶다.

1. 唐船風說書로부터 전해진 清朝像 —17세기 후기—

우선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역시 唐船風說書이다. 唐船風說書란 나가사키(長崎)의 중국어통사(唐通事)가 정리한 唐船상인에게 들은 내용을 정리한 기록으로, 이는 정기적으로 에도(江戸)에 보내져 바쿠후 각료들에게 열람용으로 바쳐졌다. 이들 唐船風說書는 바쿠후 소속의 유학자 하야시 하루카츠(號 鷲峰, 1618~1680)·하야시 노부아츠(號 鳳岡, 1645~1732) 부자에 의해 계속해서 정리되었

고, 『華夷變態』라는 題名으로 편찬되었다. 하야시 하루카츠의 서문(延寶2년6월8일 = 1674년7월11일 작성)에서는, 청의 중국지배에 대해, 중화가 이적의 상태로 변했다(華變於夷之態)라 하고있다¹⁾. 이는 현재 많은 학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전형적인 근세일본인의 청조관이였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화이변태’관이 당시의 중국정세에 대한 하야시 하루카츠 독자의 판단·평가라기 보다는, 반청세력의 슬로건이나 의식표명에 부수한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는 점이다. 『화이변태』에는, 서문 집필 직전에 나온, 반청의 깃발을 올린 오삼계와 대만의 정씨의 격문(永曆28년4월1일 = 1674년5월6일 작성)의 사본이 실려있다. 이들 격문에는 ‘中國變爲夷狄’(중국은 이적으로 변하였다)라는 문자 및, 그와 유사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다. 이들 문자와 표현이 ‘화이변태’관의 형성을 재촉한 촉매제적 요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야시 하루카츠가 『화이변태』서문을 집필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청나라 정권은 ‘삼번의 난’을 평정하고 정씨 세력을 굴복시킨 후 중국본토 지배를 강고히 했다. 이러한 시세를 보자면, 같은 시기의 일본에서 가마쿠라(鎌倉)시대 ‘몽고침략(蒙古襲來)(1274년의 ‘문에이의 역(文永の役)’과 1281년의 ‘코안의 역(弘安の役)’과 같은 북방 기마민족인 만주족의 군세가 일본열도를 공격해오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점은 이상하지 않다. 양명학자인 쿠마자와 반잔(熊澤蕃山 1619~1691)이 그의 저서인 『大學或問』에서 ‘北狄’의 침입론을 주창하였던 것은, 바쿠후가 그를 코가(古河)에 유폐시키는 원인이 되었다(後藤陽一 1971). 이를 통해 생각해보자면, 당시 유식자층 사이에서 청의 일본침입에 대한 긴장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위정자층에서는 이에 의한 사회혼란을 피하기 위해 청조위협론을 봉쇄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시기 唐船風說의 기초는 일변하였다. 이는 청조의 중국지배가 안정화되었던 것과 표리를 같이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조쿄(貞享) 2년(1685) 이후의 唐船風說에서는, 강희제는 ‘仁君’, 그의 정치는 ‘仁政’으로 찬양일색이었으며, 바쿠후 로쥬(老中)를 비롯한 바쿠후 각료들이 풍설서를 그대로 믿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위와 같은 傳聞을 반복적으로 전달받으면서 강희제의 ‘人君’像과 새로운 청조에 대한 인상이 정착되어갔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²⁾ 【표1】과 【표2】는 각각, 조쿄3년과 4년(1686, 1687)의 唐風說書에서 추출한 강희제의 치세에 관한 정보이다. 많은 중국상선들이 청조가 지방수비 사관을 대폭으로 삭감했으며, 강희제가 ‘武道’(兵學)보다 ‘文藝’(文學)를 좋아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들 정보는 조금이나마 청조의 대두를 경계하고 있던 바쿠후를 안심시켰다고 생각된다. 또한 청나라 정권 지배하의 한족들의 처우와 한족문화에 대한 만주인지배자의 태도도 바쿠후의 관심사였다. 唐船風說書에 의한 바쿠후의 청조인식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자면 두 가지의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다. 즉 강희제가 유학을 존송하는 자세(사료 1~3)가 바쿠후, 특히 유학자 관료들의 호감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 그리고 한족지식인을 높은 관직에 기

1) 이와 같은 인식은 그가 지은 한시의 ‘中華不可以慕, 韃虜尙位兮’(『鶯峰林學士文集』上, 243쪽)이라는 문장으로부터도 읽어낼 수 있다.

2) 근세중기의 유학자 무로 규소(室鳩巢)의 수필 『鳩巢小說』 하권에는 ‘康熙天子のコト、前書ニモ申遣候ヤウニ覺候ヘハ、何モ不申遣候トカク、唐太宗以後ノ英主ト見ヘ申候’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新井白石集·室鳩巢集』463쪽). 또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多波禮草』에는 ‘康熙帝の事をもちし人にとづねしに、聖主とこたへしを、さては聖人なるやと、此國の人はおもへり’라고 하였다(『日本隨筆錄大成』제2기13, 228쪽).

용한 정책(사료4~7)이 바쿠후의 청나라 정권의 성격에 대한 인식전환(만주족의 독재정권에서 만한 연합정권으로)을 재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2. 쇼군(將軍) 요시무네(吉宗) 주변 유학자 관료들의 창조연구 —18세기 20년대—

제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정치를 쇄신하기 위해 측근 유학자에게 일본과 중국의 고급의 정치제도에 대해 조사하게 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성과는 『名家叢書』라는 제명으로 편찬되었다. 이는 후세의 위정자에게 시정의 참고서로 제공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오규 훗케(荻生北溪, 1673~1754), 후카미 아리치카(深見有隣, 1691~1773), 하야시 노부하츠의 창조제도에 대한 자료조사는 그러한 일환이었다. 쿠스노키 요시미치(楠木賢道)씨(2009①)는 오규 훗케가 『集政備考』(강희9년판)·『則例全書』(강희55년판)를 참고하여 교호7(1722)년 저술한 「明朝清朝異同」 및 「明清異同ニ付テ料簡書」를 소개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요약·분석하였다. 쿠스노키씨에 의하면, 훗케의 창조이해가, 만주족의 황제를 정점으로 놓고, 만주족이 八旗라는 세습신분을 구성하며, 또한 팔기를 이끄는 종실의 王公과 귀순한 몽골족을 이끄는 외번몽골의 왕공이 지배자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창조가 가지는 내륙아시아적 정권의 특징에 대한 이해에 이르렀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明朝清朝異同」에는 본 보고의 논점에서 보자면 매우 중요하나, 쿠스노키의 논문에서는 직접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이들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서 훗케의 창조연구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한다.

「明朝清朝異同」의 禮部編(전21조)의 제21조(사료8)에 의하면, 강희제는 서양인이 ‘聖化’(창조의 선진문화)를 사모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고 曆의 작성, 화포 등의 무기 제조에 협력하였기에, ‘천주당(크리스티교 교회)’를 없애지 않고 남겨두게 하였다고 한다. 즉, 바쿠후의 크리스티교 금제와 비교하자면, 청의 서양인·크리스티교 정책은 비교적 관용적인 것이었다.

刑部편(전26조)의 제4조(사료9)에는, 창조가 인신매매를 금지하였으나 팔기의 병사와 사관의 인신매매만을 허락하고, 팔기 중에서도 만주팔기와 몽골팔기에 예속된 사람을 漢軍팔기에 매각하는 것은 금한다는 내용이였다. 이 조목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팔기의 특권과 한족에 대한 만주인, 몽골인의 특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만주족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히에라르키적 사회구조 속에서 한족의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낮다는 측면이 드러났다.

이어서 지금까지 그 내용이 거의 검토되지 않은, 후카미 아리치카(1718년 유학자(儒者), 1737년 書物奉行)와 하야시 노부아츠(1691년 大學頭)의 『大清會典』(강희29 = 1690년판, 전162권)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자. 후카미의 연구는 권수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略記한 것이다(109권 이후는 欠). 우선 내용은 차치하고, 「內閣」·「吏部」·「禮部」 등의 제목으로부터만 보아도, 창조가 내각·육부제를 비롯한 명조의 직제를 많이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리고 「先聖先師」·「先師孔子」·「闕里祀儀」(사료10~12) 세 가지 조목에서는, 청황궁의 文華殿(황제와 황태자에게 경서를 강석하는 장소) 동쪽의 傳心殿에 黃帝를 비롯한 선왕과 공자의 신위가 안치되어 있다는 것, 북경의 ‘文廟(공자묘)’에서 공자제사와 釋菜의 의식의 개최가 정식화 되었다는 것, 강희제가 曲阜에 臨幸하여 스스

로 공자를 제사하고, 공자와 맹자의 자손에게 서적과 의복을 내려줬다는 사실 등을 소개하였다. 이는, 청조가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한족문화로서 중국본토에 대한 지배에 임하고 있었던 사실과 연결된다. 「朝貢通例」에서는 청조의 조공국으로서 ‘조선국’·‘토번국’·‘유구국’·‘荷蘭國’·‘안남국’·‘섬라국’·‘서양국’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이를 보자면, 청조중심의 조공체제의 이미지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다. 그 중 ‘荷蘭國’(사료13)에서는, 네덜란드가 5년에 1번 조공사절을 파견한다는 것, 북경·광둥에서 무역이 허락되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과 네덜란드는 둘 다 일본과 통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였으며, 전략적인 시야에서 생각해보자면, 이 양국의 외교관계에 관한 기사가 바쿠후의 눈길을 끌었음은 분명할 것이다. 「팔기관제」의 뒷부분에는 비교적 상세한 주석(사료14)이 붙어있다. 역시, 이 會典 속에서 자주 눈에 띄는 팔기제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 내륙아시아 유목민 사회조직을 잘 몰랐던 당시의 일본인으로서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독자들에게는 팔기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이나, 상세한 주석이 붙어있다는 사실로부터, 팔기제가 청조지배의 만주적 요소였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았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 주석의 내용은 會典의 해당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는 후카미가 會典 및 다른 참고 자료를 통독한 뒤에 알게 되었던 것 = 후카미의 팔기제에 대한 이해였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각 부의 명칭 뒤에 붙은 주석(사료15)이다. 즉 尙書(장관)과 侍郎(차관)에게 만주인과 한족을 각각 1인씩 임명한다는 것. 이 부분을 읽는다면, 청조정부가 만한연합정부라는 인상이 강해졌을 것이다.

하야시 노부아프의 會典연구는 2종류가 있는데, 오오바(大庭)씨가 지적한 (1971) 대로, 이는 요시무네의 관심사에 따른 것이었다. 요시무네가 「深見考」를 읽은 후, 관심을 가지고 더욱 자세히 알고자 한 부분, 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하야시에게 조사하게 하였다고 추측된다. 「林考 清會典朝鮮國」은 회전의 「조선국」조에 대한 고찰이라기보다는, 한문 혼독방법(讀み下し) 정도에 가까운 형태로 「조선국」조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이 번역(譯文사료 16, 원문사료17)은 「조선국」조에 있는 ‘조선국왕’의 金印하사, 사절파견의 수속절차, 청조의 응접 프로세스, 표류민의 송환, 조공품과 하사품의 종류와 수량 등의 정보를 쇼군 요시무네에게 그대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조공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 중 「조선국」조 만이 전문번역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으로부터 요시무네를 비롯한 바쿠후가 조청관계에 강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거의 확신할 수 있다.

「林考 清會典」은 요시무네의 질문에 응한 회전의 개별 조목에 대한 보충설명이었다. 예를 들어, 「내각」조(사료18)에 의하면, 만주인 學士와 한족 학사 외에, 몽골인 학사도 설치되어 있었고, 滿文으로 된 上奏文은 대학사가 황제에게 進呈하고, 한문·몽골문으로 된 경우에는 侍讀학사가 번역한 후에 대학사가 황제에게 진정하는 구조였다. 또한, 훗케와 같이 하야시도 理藩院의 설치에 유의하였는데, 「理藩院」조(사료19)에서는, 몽골의 일부가 청 정권성립 초기에 청의 지배에 귀속하였기 때문에 청의 후대를 받아 제 부족이 원래 지니고 있던 영지를 보유한 상태로 청조에 진공하고 있다는, 청 정권 내에서의 몽골족의 위치를 명시하기도 했다. 이 조목으로부터, 몽골족의 왕공귀족도 청조의 지배층에 흡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야시의 고증을 통해 청조지배층의 다양한 구성이 쇼군의 눈에 보다 선명히 비추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3. 동남연해와 동북변경의 클로즈업 —18·19세기 이행기—

칸세이(寬政)기(1789~1801)의 나가사키 부교(奉行) 나카가와 타다테루(中川忠英)는 屬吏 콘도 쥬쥬(近藤重藏, 1771~1829, 1795년 나가사키 부교 手付出役) 등을 파견하여, 중국상선의 상인에 대한 문답의 형태로 ‘淸國’ 풍속에 관한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淸俗紀聞』(칸세이11(1799)년 간행)이란 서명으로 간행하였다.

편찬의 목적은, 大學頭 하야시 줏사이(林述齋, 1768~1841)가 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淸國’의 풍속에 입각하여 내향한 중국인(唐人)에게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宣我之政, 服彼之心)였다. 그러나 ‘淸俗’이라 할지라도, 기재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중국상인의 출신지인 중국 동남연해지방(한족이 압도적 다수를 점한 지역)의 풍속이었다. 이 서적을 읽는 한, 만주족의 풍속에 영향을 받은 것은 만주풍의 관복과 변발 밖에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도교신앙에 의한 성황신(城隍神, 도시의 수호신)도 청조 지방관의 관복을 입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던 청조에 대한 인상과 일치하는 것일까. 하야시의 서문에는, 그러나 지금은 선왕의 禮文冠裳이 모두 일소되어버려, 변발을 하고 비린내 나는 동물을 먹는 夷狄의 풍속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으므로, 저들의 풍속에 대해 물어볼 필요가 없다(今也, 先王禮文冠裳之風悉就掃蕩, 辮髮腥膻之俗已極淪溺, 則彼之土風俗尙置之不問也³⁾)라 하고 있다. 즉, 일본인들은 ‘청국’을 이적화한 나라로 판단하고 ‘청국’의 풍속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조관을 가진 사람이 『淸俗紀聞』을 읽는다면 인상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하야시와 함께 『淸俗紀聞』의 서문을 실은 유학자 中井曾弘(1768~1803)과 쿠로사와 세츠도(黑澤雪堂, 1758~1824)도 가지고 있었다. 中井는 북경과 성경사이의 민속이 만주풍으로 바뀌었고, 서남지방의 태반도 만주풍화 하였다. 한족적인 부분은 적으며, 만주적인 부분보다 한족의 문화가 짙게 남아 있어 당송이래의 유풍이 남아있는 곳은 ‘閩浙(북진·절강 등의 동남연해지방)’지방 뿐이다(北京盛京之間民俗名物其爲滿也純矣, 西南方或大滿而小漢矣, 其小滿而大漢可以觀唐宋遺風者, 獨有閩浙而已)라는 감상을 남겼다. 쿠로사와는, 華가 夷로 변환 지역은 중국전체의 10분의 2, 3뿐이며, 上古로부터의 風儀가 일소되어버렸다고는 할 수 없다(而今斯編所載淸國風俗, 以夏變於夷者十居二·三, 則似不足以貴重, 然三代聖王之流風遺澤延及於漢唐宋明者, 亦未可謂蕩然掃地也)라고 하였다. 『國書總目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칸세이(寬政)11(1799)년판 『淸俗紀聞』은 국립공문서관의 내각문고(에도 시대의 국가도서관에 해당하는 紅葉山文庫 原藏)를 비롯하여, 일본각지의 도서관·연구기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로부터 생각해보자면, 『淸俗紀聞』은 당시 널리 읽혀졌다.

『淸俗紀聞』의 편찬에 관계했던 콘도 쥬쥬(1798년 ‘松前蝦夷地御用取扱’, 1807년 마츠마에(松前) 奉行 出役, 1808년 書物奉行)는 러시아 선박의 나가사키 내항 및 에조치(蝦夷地)의 ‘紛擾’를 배경으로 한 북방위기 속에서, 칸세이 10(1798)년 이후 수회에 걸쳐 에조치를 巡見하고, 그와 함께

3) 이 번역문은 동양문고판본의 해제(146~147쪽)의 번역을 많이 참고하였다.

북방의 지리·민속·국제정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카(文化)元(1804)년에 『邊要分界圖考』를 완성했다. 콘도는 북방조사시의 견문으로부터 山丹(흑룡강 하류지역)이 청조의 지배하에 있고, 청조가 관리를 파견하여 山丹의 무역을 감찰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으며, 또한 청조와 러시아의 경제문제·무역관계에 대해 러시아와 청나라 쌍방의 자료(사료20~23)을 이용하여 고찰했다. 청의 山丹 지배에 관해서는, 만주인이 왜 山丹의 지리를 밝히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自問에 대해, 그 뜻이 오직 ‘中華’에만 있고, 관심이 서북의 ‘戎狄’을 막는데 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然ルニ滿洲人山丹ノ地明ニセザルハ何ゾヤ, 蓋シ滿人ハ中華ノミヲ志シテ西北ノ戎狄ニ事トスレバ也). 또한 러시아와 청의 관계에 대한 기사를 보면, 러시아가 수차 북경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것, 청과 러시아 쌍방이 경계부근에서 전투를 한 후, 조약을 맺었다는 것, 양국의 상인이 경계지역에서 통상무역을 행하고 있다는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관심을 역시 일본의 북방전략에 두고 있었던 콘도는, 러시아는 영토가 넓고 국력이 강하며, 세계에서 그에 대항할 나라는 없다(其地の廣大強盛なる事, 世界にこれと争ふべき國なしといふ)고 하면서, 러시아와 교역을 행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ロシアノ交易セザル國ハ日本ノミナリト云) 라는 소문도 들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하야시 줯사이가 분카6(1809)년에 바쿠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러시아의 남하에 대해 만주와의 통상을 인정하고 만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고 주장한(藤田覺2005) 사실과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콘도는 이후, 마미야 린조(間宮林藏, 1780~1844, 1808년 시점 마즈마에(松前)奉行 支配吟味役인 다카하시 산페(高橋三平)의 御雇同心格)와 다카하시 카게야스(高橋景保, 1785~1829, 1804년 天文方, 1814년 書物奉行 겸 天文方筆頭)는 에조치·카라후토(カラフト)·‘東韃(청 지배하의 흑룡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방지리 연구를 더욱 진전시켰다. 마미야 린조는 마즈마에 부교(奉行)의 지시를 받고 ‘東韃’에 들어가 ‘데렌(흑룡강 右岸의 德楞)’의 ‘滿洲假府(假設役所)’에서 청조의 만주인 관료와 만나 필담을 교환했다. 일본에 돌아온 후, 조사보고서를 바쿠후에 제출하는 외에, 그 견문도 『東韃地方紀行』(분카8, 1811년) 등으로서 정리·편찬했다. 한편 그 시기 다카하시 카게야스는 天文方으로서 마미야 린조의 조사성과를 토대로, 그 외에 청조·서양의 지도와 지리관계 서적을 참고한 후, 지리적인 고증을 통해 더욱 정밀한 지도 작성에 착수했다. 그 연구성과로서의 저서 『北夷考証』(분카6, 1809년 성립) 속에서도, 강희제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북방의 경계지역을 巡査하고, 서양인 학자에게 지도를 작성시켰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방지리 연구가 진전되면서, 바쿠후는 청의 변경지배 양태 및 러시아와 청의 관계 양상을 훑쳐볼 수 있었다.

한편, 조선통신사와의 필담도 청조의 정보를 일본에 가져오는 루트였다. 조선 사절이 조청관계를 언급하는 일은 드물었으나, 약간의 언급이 있었다는 점은 확인 가능하다. 분카8(1811)년, 昌平坂學問所의 儒官 하야시 줯사이와 코가 세리(古賀精里, 1750~1817)는 쓰시마(對馬)에 초빙된 조선통신사의 응접을 담당했다. 수행한 세리의 제자 쿠사바 하이센(草場珮川, 1787~1867)은 조선통신사절단의 서기 金善臣(號 淸山)에게 필담의 형태로 만주의 지리적 상황과 팔기제도에 대해 물어봤다(사료 24). 그 중에는 ‘旗下皆是滿人(팔기에 편입된 것은 모두 만주인)’이라는 엄밀하지는 않은 회답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기제도가 만주적인 사회조직이라는 이미지를 쿠사바에 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이 필담기록을 바쿠후에 제출하였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청조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부 바쿠후 관리들의 청조인식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바쿠후의 청조관이라기 보다는, 바쿠후의 청조인식의 도달점이라고 하는 편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18세기 환 동중국해 국제환경의 안정화를 배경으로, 바쿠후 내부의 청조에 대한 정치적 주목도는 전체적으로는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야시 줯사이가 언급한 대로, 세간에는 청조를 이적으로서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따라서 청조에 대한 문화적 관심도 비교적 열었다4).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청조의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를 행하였던 것은 주로 정무상 통상무역이나 안전보장을 담당한 관리(役人, 나가사키 부교, 마츠마에 부교 및 그 屬吏 등), 바쿠후의 정책제정에 관련한 정치가, 바쿠후의 명령을 받아 시정 참고자료를 조사한 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唐船風說書 등의 중국정보와, 중국 상선·네덜란드상선을 통해 수입된 한문서적·서양서적 등에 의거하여 청조에 대한 인식·이해를 높여갔다.

그들의 청조관에 강한 인상을 미친 것은 한족·몽골족을 포섭한 다민족연합정권의 구축과, 팔기라는 만주적 군사·사회조직의 유지, 유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중화문화에 대한 존숭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화이변태’와 같은 의식이 근세 일본인의 마음속에 강하게 남겨져 있기는 했으나, 많은 지식인이 일본·조선·유구와 함께 청조도 ‘文化之國’으로 간주하고 있었던5) 원인이었다. 한편, 청조의 중국 본토에 대한 통치방침, 동북 제민족 거주지역에 대한 지배방식, 조청간의 조공·무역관계, 러시아와 청 간의 경계분쟁·통상관계 등에 대한 인식은, 바쿠후의

唐船 무역 정책·대 조선정책·대 러시아정책·북방정책의 책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아직 본 보고는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우선 이용한 사료의 태반은 중국상인에 의한 정보와 서적의 요약이며, 이들 정보와 지식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어느 정도로 분석·총괄되어 개인의 인식으로 승화했는가에 대해서, 추측에 그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상에서 검토한 정보와 인식이 어떻게 정책의 책정으로 생명력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고찰이 필요하나, 현 단계에서는 그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들 과제는 다음 연구에서 조금씩 해명해가고자 한다.

※ 사료편과 표는 앞에 실린 일본어 논문 뒷부분에 첨부

(번역: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선임연구원 김경태)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조의 고증학(중국어로는 ‘考據學’이라 함) 등이 근세일본의 학술연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眞壁仁의 論文(2012)를 참조.

5) 室鳩巢 「北至朝鮮、南至琉球、又至堂々清朝、文化之國莫不同然」라 하고 있다(『新井白石全集』卷5, 90쪽). 또, 寺島良安 『倭漢三才圖會』卷62의 「中華地理」에는 청조를 중화의 정통왕조라 하였다.

徳川幕府の清朝認識—清朝の支配体制と對外關係への關心をめぐって—

彭浩

はじめに、

清朝は中國への支配を進める同時、明朝にならい自國中心の朝貢体制を築こうとした。朝鮮・琉球・安南が使節を派遣して清朝の朝貢体制に組み込まれていたことと異なり、日本の徳川幕府は清朝と外交關係を結ばなく、清朝中心の朝貢体制と距離を置く形で独自の外交戦略を展開していた。しかし、幕府にとって、海防・貿易などの需要から、清朝を對象とした情報収集と研究は不可欠であった。

では、これらの情報と研究を通じて、幕府はどのような清朝認識を持つようになったのか。この課題に関わる先行研究はおもに、漂流日本人の滿洲見聞（内藤湖南1936、園田一龜1939）、知識人の滿洲語研究（内藤湖南1936、神田信夫2005）、唐船風説書の伝來と内容（浦廉一1954、松浦章2009など）、享保期幕府儒者たちの清朝研究（大庭脩1971、楠木賢道1988・2009^①など）、「華夷変態」觀の形成と轉換（川勝守1993）などの課題をめぐって行われている。

ところが、これらの研究は、近世を通して幕府の清朝認識、とくに幕府の對外戦略の策定に影響を与えた可能性の高い、清朝の政治と外交に對する幕府の認識について系統的に検討するには至らない。そこで本報告は、幕府が清朝の支配体制と對外關係をどのようにそしてどの程度認識・理解できたかに焦点を当て、幕府の清朝認識に關する検討を深めていきたい。

なお、アヘン戦争以後國際情勢の轉換にともない幕府の清朝關心も一氣に高まったことがあり、これを近代移行期の狀況と理解できる。今回の報告は、清朝の支配も幕府の支配も安定的だった時代（17世紀後期～18世紀前期）に注目し、アヘン戦争後の幕府の清朝觀を今後の課題としない。

一、唐船風説書に伝えられた清朝像—17世紀後期—

まず注目したいのはやはり唐船風説書である。唐船風説書とは、長崎唐通事が整理した唐船商人への聞き取り記録であり、それは定期的に江戸に送られ、老中を中心とした幕閣の閲覽に供されていた。これらの唐船風説書は、幕府に仕える儒者林春勝（号鶯峰、1618～1680）・林信篤（号鳳岡、1645～1732）父子によって継続的に整理され、そして「華夷変態」という題名を

冠されたうえで編纂された。林春勝の序文（延宝2年6月8日＝1674年7月11日作成）では、清の中國支配について、中華が夷狄の状態に変わった（華變於夷之態）としている。これは、現在多くの學者が考えている、典型的な近世日本人の清朝観だった。ところが、ここで強調したいのは、この「華夷変態」観は当時の中國情勢に対する林春勝独自の判断・評価というより、反清勢力のスローガンや意識表明に付随した考え方と理解したほうが適切だとのことである。『華夷変態』には、序文執筆の直前に出された、反清の旗を挙げた吳三桂や台湾鄭氏の檄文（永曆28年4月1日＝1674年5月6日作成）の寫しが収録されている。それらの檄文には「中國變爲夷狄」（中國は夷狄に変わる）という文字及び、似ている表現が頻出している。これらの文字や表現は林春勝の「華夷変態」観の形成を促す触媒的要素だったといえよう。

林春勝が『華夷変態』の序文を執筆してから十年経たない内、清政權は「三藩の亂」を平定し、鄭氏勢力を屈伏させ、中國本土への支配を固めた。この時勢を見れば、同じ頃の日本には、鎌倉時代「蒙古襲來」（1274年「文永の役」・1281年「弘安の役」）のように北の騎馬民族である滿洲族の軍勢が日本列島に攻め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な危惧が生じたのは不思議ではない。陽明學者の熊澤蕃山（1619～1691）が著書『大學或問』で「北狄」侵入論を唱えたことは幕府の指示で古河に幽閉された原因となった（後藤陽一1971）。これを考えると、当時有識者の間に清の日本侵入への緊張感が漂っていたが、爲政者側はそれによる社會の混亂を避けるために清朝脅威論を閉じこもうとした。

しかし一方、この時期唐船風説の基調は一変した。それは清朝の中國支配の安定化と相表裏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貞享2（1685）年以後の唐船風説書では、康熙帝は「仁君」、その政治は「仁政」と褒め称えられる一方であり、老中をはじめとする幕閣は風説書をそのまま信じたと思われぬが、繰り返しの伝聞を受けた結果、康熙帝の「仁君」像と新たな清朝印象が定着したことは想像に難くない²⁾。【表1】と【表2】はそれぞれ、貞享3年と4年の唐風説書から抽出した康熙帝の治世に関する情報である。多くの唐船は、清朝が地方守備の士官を大幅に削減し、康熙帝が「武道」（兵學）より「文芸」（文學）を好むという情報を提供した。これらの情報は若干、清朝の台頭に警戒した幕府に安心感を与えたと思われる。また、清政權支配下における漢人の處遇と漢族文化に対する滿洲人支配者の態度も幕府の關心事だった。唐船風説書による幕府の清朝認識への影響としては、二つの可能性が感じられる。すなわち、康熙帝が儒學を尊崇する姿勢（史料1～3）が幕僚とくに儒官たちの好感を持たせた可能性と、漢族知識人を高官に起用する政策（史料4～7）が幕府の清政權の性格に対する認識の轉換（滿洲族の獨裁政權から滿漢連合政權へ）を促した可能性であった。

1) 同様な認識は、同人が作った漢詩にある「中華不可以慕、韃虜窃位兮」（『鶯峰林學士文集』上、243頁）という文からも読み取れる。

2) 近世中期の儒學者室鳩巢の隨筆『鳩巢小説』卷下には「康熙天子のコト、前書ニモ申遣候やウニ覺候へハ、何モノ申遣候トカク、唐太宗以後ノ英主ト見へ申候」とある（『新井白石集・室鳩巢集』463頁）。また雨森芳洲『多波礼草』には「康熙帝の事をもろこし人にたづねしに、聖主とこたへしを、さては聖人なるやと、此國の人はおもへり」とある（『日本隨筆録大成』第2期13、228頁）。

二、將軍吉宗周辺の儒官たちの清朝研究 – 18世紀20年代 –

第八代將軍徳川吉宗は、政治を刷新するため、倭漢古今の政治制度について寄合儒者に調べさせた。それらの研究成果は「名家叢書」という題名を付けて編纂された。それは後世の爲政者の施政参考になるためだったと考えられる。荻生北溪（1673～1754）・深見有隣（1691～1773）・林信篤の清朝制度をめぐる資料調査はその一環であった。楠木賢道氏（2009①）は、荻生北溪が『集政備考』（康熙9年版）・『則例全書』（康熙55年版）を参考にして享保7（1722）年に著した「明朝清朝異同」及び「明清異同ニ付テ料簡書」を紹介し、後者については逐條要約・分析した。楠木氏によれば、北溪の清朝理解は、滿洲族の皇帝を戴き、滿洲族が八旗という世襲身分を構成し、さらに八旗を率いる宗室の王公と歸順したモンゴル族を率いる外藩蒙古の王公が支配者を構成していたという清朝の持つ内陸アジア的な政權の特徴に到達したとされている。しかし、「明朝清朝異同」には、本報告の論点から見れば非常に重要であるが楠木論文で直接触れられていない箇所がある。以下、まずこれらの箇所を踏まえて北溪の清朝研究について補足説明をしたい。

「明朝清朝異同」礼部編（全21條）第21條（史料8）によれば、康熙帝は、西洋人が「聖化」（清朝の先進文化）に慕い、悪事を行ったことなく、曆の作成・火炮などの武器の製造に協力するため、「天主堂」（キリスト教會）を残すことを認めたという。つまり、幕府のキリシタン禁制と比べると、清の西洋人・キリスト教政策は比較的寛容的なものであった。そして刑部編（全26條）第4條（史料9）には、清朝が人身賣買を禁止したけれども、八旗の兵士・士官の人身賣買のみを許し、そして八旗のなかにも滿洲八旗・蒙古八旗に隸屬する人を漢軍八旗へ賣却することを禁ずるという内容があった。この條は、民人に對する旗人の特權と、漢人に對する滿洲人・モンゴル人の特權を示している。これにより、滿洲族の皇帝を頂点とするヒエラルキー的な社會構造のなかで漢人の社會的な地位が比較的低いという側面が露呈した。

つづいて、これまでその内容についてほとんど検討されていない、深見有隣（1718年儒者、1737年書物奉行）と林信篤（1691年大學頭）の『大清會典』（康熙29＝1690年版、全162卷）に關する研究を見てみよう。深見の研究は、卷數の順に沿って内容を略記するもの（109卷以後欠）。まず、内容はともかく、「内閣」・「吏部」・「礼部」などの書き出しからでも、清朝が内閣・六部制をはじめとする明朝の職制を大きく受け継いだことは一目瞭然。そして「先聖先師」・「先師孔子」・「闕里祀儀」（史料10～12）三條では、清皇宮の文華殿（皇帝・皇太子に經書を講釋するところ）東側の伝心殿で黄帝をはじめとする先王と孔子の神位が安置されたこと、北京の「文廟」（孔子廟）で孔子祭りと釋菜の儀式を催すことが定式化されたこと、康熙帝が曲阜に臨幸して自ら孔子を祭り、孔子・孟子らの子孫に書物・衣服を賜ったことなどを紹介した。これは、清朝が儒學を中心とする漢族文化を以て中國本土の支配に臨む姿勢とつながっている。「朝貢通例」では、清朝の朝貢國として「朝鮮國」・「土番國」・「琉球國」・

「荷蘭國」・「安南國」・「暹羅國」・「西洋國」の名を挙げた。これを見れば、清朝中心の朝貢体制が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はイメージできる。なかの「荷蘭國」（史料13）には、オランダが五年に一度朝貢使節を派遣すること、福建・廣東での貿易が許されたことを書いてある。中國とオランダがともに日本と通商関係を維持している國であり、戦略的な視野から考えれば、この兩國の外交関係に関する記事が幕府の目を引いたのは間違いないであろう。「八旗官制」の後ろには、比較的詳細な注釋（史料14）を付けてある。やはり、この會典のなかにはしばしば見られる八旗制が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は、内陸アジア遊牧民の社會組織によく知らない当時の日本人にとっては、分かりづらいところであった。逆に考えれば、八旗の頻出や詳細な注釋から、八旗制が清朝支配の滿洲的な要素だと読み手に意識させる可能性が高かった。ついでいえば、この注釋の内容は會典の該当箇所に見当たらない。言い換えれば、これは深見が會典及びほかの參考資料を通讀したうえで分かったこと＝深見の八旗制に對する理解であった。また、もう一つポイントは、各部の名称の後ろに付けた注釋（史料15）である。すなわち、尚書（長官）と侍郎（次官）に滿洲人・漢族人各々一人を任命するという。これを讀めば、清朝政府が滿漢連合政權という印象は強くなるであろう。

林信篤の會典研究は二種類あり、大庭氏が指摘した（1971）通り、それらは吉宗の關心に即した考察であった。吉宗は、「深見考」を讀んだ後、關心を持ってより詳しく知りたがるところ、または分かりづらいところを林に調べさせたと推測される。「林考 清會典朝鮮國」は、會典「朝鮮國」條の考察というより、漢文の讀み下しに近い形で「朝鮮國」條をまるごと翻譯したものである。この翻譯（譯文史料16、原文史料17）は「朝鮮國」條に書かれている、「朝鮮國王」の金印下賜、使節派遣の手續き、清朝の応接プロセス、漂流民の送還、朝貢品・下賜品の種類と數量などの情報をそのままに吉宗に伝えるものだった。朝貢諸國のなかで「朝鮮國」條のみ全文翻譯されたようであり、この点から、吉宗をはじめとする幕府が朝清關係に強い關心を持っていたことがほぼ確定できる。

「林考 清會典」は、吉宗の質問に応じて、會典の個別箇條に對する補足説明であった。たとえば、「内閣」條（史料18）によれば、滿洲人學士と漢人學士のほか、モンゴル人學士も設けられており、滿文の上奏文は大學士が皇帝に進呈し、漢文・モンゴル文の場合は侍讀學士が翻譯してから大學士が皇帝に進呈するという仕組みであった。また北溪と同じ、林も理藩院の設置に留意し、「理藩院」の條（史料19）では、モンゴルの一部が清政權成立の初め頃清の支配に歸服したため、清に厚遇され、諸部族がもともと持っている領地を保有しながら、清朝へ進貢しているという、清政權におけるモンゴル族の位置づけを明示した。この條から、モンゴル族の王公貴族も清朝の支配層に吸収されたことが分かる。林の考証を通じて、清朝支配層の多様な構成は、より鮮明に將軍の目に映されたと思われる。

三、東南沿海と東北辺境のクローズアップ —18・19世紀移行期—

寛政期（1789～1801）において、長崎奉行中川忠英（1753～1830）は、屬吏近藤重藏（1771～1829、1795長崎奉行手付出役）らを遣わし、唐船商人への問答の形で「清國」の風俗に関する情報を収集・整理し、それを『清俗紀聞』（寛政11年刊）と名付けて刊行させた。編纂の目的は、大學頭林述齋（1768～1841）の序で言及したように、「清國」の風俗を踏まえて來航唐人を適切に対応するため（宣我之政、服彼之心）であった。しかし、「清俗」とはいえ、記されたのはおもに、唐船商人の出身地である中國東南沿海地方（漢人が圧倒的多数を占める地域）の風俗であった。この書物を読む限り、滿洲族の風俗に影響されたのは滿洲風の官服と辮髪しかないように感じられる。とくに伝統的な道教信仰の城隍神（都市の守護神）も清朝地方官の官服を着させられたことが興味深い。これは当時日本で流行していた清朝印象と一致したのか。林の序には、ところがいまは、先王の礼文冠裳の風はことごとく一掃されてしまい、辮髪を結い生臭い獸を食べる夷狄の風俗にすっかりおかされてしまっているから、彼の地の風俗を聞くことをしなくていい（今也、先王礼文冠裳之風悉就掃蕩、辮髪腥膻之俗已極淪溺、則彼之土風俗尙置之不問也³⁾）と書かれている。すなわち、日本の人々は「清國」を夷狄化した國と見なして「清國」の風俗にあまり関心がなかった。しかし、こうした清朝観を持つ人が『清俗紀聞』を読むと印象が変わるという考えは、林と同様に『清俗紀聞』に序を寄せた儒者中井曾弘（1768～1803）と黒澤雪堂（1758～1824）が持っていた。中井は、北京・盛京間の民俗は完全に滿風化し、西南地方の大半も滿風化し、漢族的な部分は小さいであり、滿洲より漢族の文化が色濃く残り、唐宋以來の遺風が見られるのは「閩浙」（福建・浙江などの東南沿海地方）しかない（北京盛京之間民俗名物其爲滿也純矣、西南方或大滿而小漢矣、其小滿而大漢可以觀唐宋遺風者、獨有閩浙而已）という感想を残した。黒澤は、華が夷に変わったところは中國全体の十分の二・三しかなく、上古からの風儀が一掃されてしまったとは言えない（而今斯編所載清國風俗、以夏變於夷者十居二・三、則似不足以貴重、然三代聖王之流風遺澤延及於漢唐宋明者、亦未可謂蕩然掃地也）とした。『國書總目録』から確認できるように、寛政11（1799）年版『清俗紀聞』は、国立公文書館の内閣文庫（江戸時代の國家図書館に相当する紅葉山文庫原藏）をはじめ、日本各地の図書館・研究機関などに所蔵されている。これを考えると、『清俗紀聞』は当時広く讀まれていた。

『清俗紀聞』の編纂に携わった近藤重藏（1798年「松前蝦夷地御用取扱」、1807年松前奉行出役、1808年書物奉行）は、ロシア船の長崎來航及び蝦夷地での「紛擾」を背景とした北方危機のもとで、寛政10（1798）年後に數回にわたり蝦夷地を巡見し、それと共に北方の地理・民俗・國際情勢に関する資料を収集し、文化元（1804）年に『辺要分界図考』を完成した。近藤は、北方調査時の見聞から、山丹（黒龍江下流域）が清朝の支配下にあり、清朝が官吏を派遣し

3) この譯文は東洋文庫版刊本の解題（P146～147）の譯文を大きいに参考。

て山丹の貿易を監察していることを把握し、さらに清朝とロシアとの境界問題・貿易関係について露清双方の資料（史料20～23）を利用して考察を行った。清の山丹支配については、満洲人がなぜ山丹の地理を明らかにしていないかという自問に對し、その志が「中華」のみにありその關心は西北の「戎狄」の防ぎに引かれたと答えた（然ルニ滿洲人山丹ノ地明ニセザルハ何ゾヤ、蓋シ滿人ハ中華ノミヲ志シテ西北ノ戎狄ニ事トスレバ也）。また露清關係の記事を読むと、ロシアが幾度も北京に使者を派遣したこと、日露双方が境界付近で戦いを交わして戦後に條約を結んだこと、兩國の商人が境界地域で通商貿易を行っていることなどの情報が得られる。一方、關心をやはり日本の北方戦略に置いた近藤は、ロシアは領地が廣くて國力が強く、世界のなかにそれと對抗できる國がない（其地の廣大強盛なる事、世界にこれと争ふべき國なしといふ）とし、ロシアと交易を行わない國は日本しかない（ヲロシヤノ交易セザル國ハ日本ノミナリト云）という噂も耳にしたことを述べた。こうした認識は、林述齋が文化6（1809）年に幕府へ提出した意見書で、ロシアの南下に對し、滿洲との通商を認めて滿洲と良好な關係を持つべきと主張した（藤田覺2005）こととつながっていたと考えられる。

近藤の後、間宮林藏（1780～1844、1808年の時点、松前奉行支配吟味役の高橋三平の御雇同心格）や高橋景保（1785～1829、1804年天文方、1814年書物奉行兼天文方筆頭）は、蝦夷地・カラフト・「東韃」（清支配下の黒龍江下流地域）を中心とした北方地理の研究をさらに進めた。間宮林藏は松前奉行の指示を受けて、「東韃」に入り込み、「テレン」（黒龍江右岸の徳楞）の「滿洲仮府」（仮設役所）で清朝の滿洲人官僚と出會って筆談を交わした。日本に戻った後、調査報告書を幕府に提出したほか、その見聞も『東韃地方紀行』（文化8、1811年）などとして整理・編纂された。一方この時、高橋景保は天文方として、間宮林藏の調査成果を踏まえて、さらに清朝・西洋の地図や地理關係の書籍を参考にし、地理的な考証を行いながら、より精密な地図の作成に着手した。その研究成果としての著書『北夷考証』（文化6、1809年成立）のなかでも、康熙帝がロシアとの關係を念頭に置いて、北方の境界地域を巡查し、西洋人の學者に地図を作成させたことに触れている。このように、北方地理の研究が進むにつれ、幕府は清の辺境支配の様子及び露清關係の様相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た。

なお、朝鮮通信使との筆談も清朝の情報を日本にもたすルートであった。朝鮮使節が朝清關係に触れることは稀だったが、若干の言及があったことは確認される。文化8（1811）年、昌平坂學問所の儒官林述齋・古賀精里（1750～1817）は對馬に招聘された朝鮮通信使の応接に当たった。隨行した精里の弟子草場珮川（1787～1867）は、滿洲の地理的な狀況及び八旗制度について筆談の形で、朝鮮通信使節団の書記金善臣（号清山）にうかがった（史料24）。なかには「旗下皆是滿人」（八旗に編入されたのは皆滿洲人）という嚴密でない回答も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八旗制が滿洲的な社會組織であるというイメージを草場に伝えたといえよう。ちなみに、この筆談記録を幕府に提出したかどうかは、また確認する必要がある。

おわりに

以上見てきたのは、清朝に最も関心を持っている一部の幕吏の清朝認識に過ぎず、それは幕府の清朝観というより、幕府の清朝認識の到達点といったほうがよいかもしれない。18世紀において、環東シナ海国際環境の安定化を背景に、幕府内部の清朝への政治的な注目度は全体的には低かったといえる。そして林述齋が言及した通り、世の中には清朝を夷狄として輕蔑視する傾向があり、したがって清朝への文化的な關心も比較的薄かった⁴⁾。

そのような雰囲気の中で、清朝の情報を収集して研究を行ったのはおもに、政務上で通商貿易や安全保障を担当する役人（長崎奉行・松前奉行及びその屬吏など）、幕府の政策制定に携わる政治家、幕命を受けて施政の参考資料を調べる儒者たちだった。彼らは唐船風説書などの中國情報と、唐船・オランダ船を通じて輸入してきた漢籍・洋書などに依據して、清朝への認識・理解を深めていった。

彼らの清朝観に強い印象を与えたのは、漢人・モンゴル人を取り入れた多民族連合政權の構築と、八旗という滿洲的な軍事・社會組織の維持と、儒學を中心とする伝統的な中華文化への尊重だったと考えられる。これは、「華夷変態」というような意識が近世日本人の心に根強く殘されていたが、多くの知識人が日本・朝鮮・琉球と並べて清朝も「文化之國」と見なしていた⁵⁾原因であった。一方、清朝の中國本土に対する統治方針、東北諸民族居住地域への支配方式、朝清間の朝貢・貿易關係、露清間の境界紛争・通商關係などの認識は、幕府の唐船貿易政策・對朝鮮政策・對ロシア政策・北方政策の策定に影響を及ぼしたと考えられる。

また、本報告ははまだ多くの課題を殘している。まず、利用した史料の大半は中國商人による情報や書籍の要約であり、それらの情報や知識が人々の腦裏でどのように分析・總括されて個人の認識に昇華したのかについて、推測にとどまっているところが多い。そして、以上検討してきた情報や認識がどのように政策の策定に活かされたのかについてはより實証的な考察が必要であるが、現段階ではそこまで至っていない。これらの課題は、今後の研究で少しずつ解明していきたい。

4) それにもかかわらず、清朝の考証學（中國語で「考據學」と呼ぶ）などが近世日本の學術研究に影響を与え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眞壁仁論文（2012）を参照。

5) 室鳩巢「北至朝鮮、南至琉球、又至堂堂清朝、文化之國莫不同然」とある（『新井白石全集』卷5、90頁）また、寺島良安『倭漢三才図會』の卷62「中華地理」では、清朝を中華の正統王朝としている。

史料編

【史料1】『華夷変態』（上P588）貞享3年55番寧波船風説書

（前略）近來古之魯國山東より寧波に商賣之ため罷越申候者共之物語にて、朝廷より、山東に古より帝王勅建之孔子廟を修復有之、弥儒道繁榮仕之由にて、儒學に志し有之候者共は不及申に、黎民に至迄、別て喜悅たる儀に御座候（後略）

【史料2】『華夷変態』（上P631）貞享3年91番厦門船風説書

一、大清十五省共に別て太平に御座候故、少も変亂之沙汰無御座候、殊に康熙帝も平生儒道を用ひ有之候得ば、在朝之翰林學士、其外之諸官に勅命にて、四書之講釋を致させ有之候に付、近年四書經筵日講と申外題有之候書をあみ出し候故、於大清に官民共に專此書を重宝に存申儀に御座候、尤此書之儀、御貴國えも持渡り可申と致推察候、就之唐國において、古へより今に至迄、尤儒釋道三教之外は、別に用ひ申候道も無御座候得共、就中儒道を尊敬仕儀に御座候、然ば私共本國之福建も、上下によらず皆儒を專一と重、幸靜謐之時節に逢申候得ば、大方儒學に趣申候者計にて御座候（後略）

【史料3】『華夷変態』（上P740）貞享4年72番福州船風説書

（前略）就中只今者康熙帝別て儒道專に御用被成、（中略）殊に所々聖廟一字宛有之候、頽敗仕候は、從公儀修復有之候、扨康熙帝之勅額今度も下り申候、則勅筆にて万世師表と申文字四つ宛、何れも聖廟之分同前にて御座候、是以儒道御用之大意にて御座候、其外種々仁政之儀計にて、官民共に安堵仕申候（後略）

【史料4】『華夷変態』（上P656）貞享4年2番南京船風説書

（前略）兩三年已前迄は、權位之官之分、康熙帝之本國韃靼人共、權柄を司り申候得共、近年は中華之官清廉之及沙汰に申候に付、諸高官執權旁大分は中華之者を被選申事に御座候、依夫弥清官多、山海共に太平之沙汰計に御座候（後略）

【史料5】『華夷変態』（上P680）貞享4年24番南京船風説書

（前略）惣て已前は滿洲之官位多御座候得共、今程者滿洲之者不宜候とて、大方官位高官・諸國之守護に至迄、漢人を用被申事に御座候、夫故上壹人之賢明故、諸官役不賢に可有之様無御座候と、官民共に申事に御座候（後略）

【史料6】『華夷変態』（上P682）貞享4年25番福州船風説書

（前略）大清之本國滿洲より之諸官は只今は大方被相除、漢人を官職に御用之事に御座候、滿洲は元より夷狄之儀に御座候得ば、官民共に夷風多、殊に盛世之補助に難成由に御座候によ

り、弥漢人専任官多罷成申候（後略）

【史料7】『華夷変態』（上P777）貞享4年103番福州船風説書

（前略）以前は帝都之北京、其外之國々、大清之本國滿洲人高官に備り、政道を司取申候得共、元より漢人程之器量無之に付、只今は大分權柄之官皆々漢人を御用にて御座候、今程北京帝都之執權は滿洲人・漢人共に五人にて御座候（後略）

【史料8】荻生北溪「明朝清朝異同」（『名家叢書』原本第66冊）礼部編第21條

一、西洋國ノ人ハ聖化ヲ慕テ來リ、別ニ惡事モナク、曆ヲ造リ軍器・火炮ナドヲ作ル故、天主堂ヲモ其儘ニ存留シ、參詣ヲサスルト云コト、康熙三十一年ノ議准ニアリ、

【史料9】荻生北溪「明朝清朝異同」（『名家叢書』原本第66冊）刑部編第4條

一、人ヲ買コト制禁ナレドモ、八旗下ノ官兵バカリハ人ヲ買コトヲ許ス、又同ク八旗下ノ内ニテモ、滿州・蒙古下ノ人ヲ漢軍へ賣与スルコトヲ許サズ、

【史料10】深見有隣「深見考」（『名家叢書』原本第50冊）「先聖先師」條

一、先聖先師は古代の聖帝・聖人を後世帝王の師と尊敬して云なり、此條には康熙廿四年初て文華殿の東方伝心殿の内に伏羲・神農・黃帝・唐堯・虞舜・禹王・湯王・文王・武王・周公・孔子の神位を安置して皇帝自身に祭り給ふ、其儀式を記せり、文華殿ハ皇帝及皇太子經書の講釋を聞給ふ所なり、

【史料11】深見有隣「深見考」（『名家叢書』原本第50冊）「先師孔子」條

一、先師は孔子を尊敬して云なり、万代まで王者の師といふ意なり、但し孔子廟は安定門の内に入り、是を文廟といふ、正殿・後殿・東西兩廡・廟門等結構なり、正殿には先師孔子の神位正面に安置して顔子・子思・曾子・孟子及び十哲の神主を配し、毎年二月・八月上丁の日官人を以釋奠の礼を行ハル、其儀式を此條に記せり、又啓聖祠とは孔子の父叔梁紇を祭る祠堂にして、則文廟の後殿を云なり、後殿の内に叔梁紇の神主を正面にして、孔鯉の神主及び顔子の父、曾子の父、孟子の父の神主を配せり、東西の兩廡ニハ周子の父、程子の父、朱子の父、蔡沈の父等の神主を配し、是又二月・八月官人を以祭るの儀式を記せり、又釋菜儀とは二月・八月釋奠の外に、毎月朔日・十五日文廟及び啓聖祠を祭らせ給ふ、并三年に一度殿試の節、其礼式相濟、進士の面々文廟に拝謁して釋菜の礼を行ふ、其儀式等なり、

【史料12】深見有隣「深見考」（『名家叢書』原本第50冊）「闕里祀儀」條

一、闕里ハ山東曲阜縣の地名にて、則孔子旧宅の地なり、今以其地に孔子の廟あり、大成殿・奎文閣・東西の兩廡・啓聖堂祠等隨分結構の事なり、此廟を祭る儀式を闕里祀儀といふ、此條には康熙廿三年皇帝闕里に臨幸有て、自身に孔子を祭り給ふ、又啓聖祠は官人を以祭る、其儀

式等を記せり、又其祭禮終りて、孔子の子孫、并顔子・曾子・孟子・仲由等の子孫に書物・衣服等を賜ひ、并曲阜縣の年貢公役廿三年壹ヶ年の分を免許せらる等の事有り、

【史料13】 深見有隣「深見考」（『名家叢書』原本第50冊）「荷蘭國」條

一、荷蘭國は清朝より東南の海中に當れり、其國五年に一度使を遣し、貢物を獻せり、其貢物の員數有之、并其國の人福建・廣東此兩省に於て、買賣する事を免許せり、其外貢使一切之法式を記せり、

【史料14】 深見有隣「深見考」（『名家叢書』原本第50冊）「八旗官制」條注

（前略）滿洲とは清朝本國祖生の者を云、蒙古とは韃子の地の名にして、順治帝中華に初て入り給ふ時、蒙古ニ兵を借る、其兵遂ニ清朝ニ歸服せし者の子孫を云、漢軍とは遼東の地、其以前明朝の地内なりしに、中頃より滿洲に攻取らる、其節滿洲に歸服せし中華祖生の者の子孫を云、三様共に順治帝引率して中華に入り給ひ候故、是を譜代の者とす、其外一切中華祖生の者を漢人と名付く、漢人の内武官及兵卒を綠旗と名付て外様に備へ置なり、

【史料15】 深見有隣「深見考」（『名家叢書』原本第50冊）「吏部」條注

吏部・戸部・禮部・兵部・刑部・工部、是を六部と云、皆大役所なり、天下の政事、此六部にかからざるはなし、此吏部則其一なり、此内滿漢吏部尙書各一人有、惣領なり、又滿漢左右侍郎各一人有、（後略）

【史料16】 「林考 清會典朝鮮國」（『名家叢書』原本第31冊）

朝鮮ハ即高麗國ナリ、諸外國ノ内康熙帝へ最初ニ歸服シ、年貢ヲ奉ツリ、時々ノ貢物アリ、毎歲カワラス、貢物ノ道ハ鳳凰城ヨリ出入ス、崇德[康熙帝ノ祖父、文皇帝ト号す]（割注）二年ニ朝鮮國主ヲ封シテ、朝鮮國王トシ金印[龜ノ形ヲ刻ムシルシアリ]（割注）賜フ（後略）

【史料17】 康熙29年勅撰『大清會典』卷72「朝貢一 朝鮮國」（P3～4）

按朝鮮、即高麗國、於諸番中効順最先、有年貢、有節貢、歲以爲常、貢道由鳳凰城、（改行）崇德二年、（改行、台頭）詔封朝鮮國主爲朝鮮國王、賜龜鈕金印（後略）

【史料18】 「林考 清會典」（『名家叢書』原本第31冊）「內閣」

（前略）軍旅ノタメ滿[韃ノ事]漢ノ學士ヲ設ク、定マレル數ナシ、蒙古ノタメニモ學士官ヲ設ク、（中略）滿文ハ大學士進呈シテ旨ヲ請フ、漢文・蒙古文ハ中書省ニテ文字ヲ侍讀學士コレヲ作り大學士進呈ス、

【史料19】 「林考 清會典」（『名家叢書』原本第31冊）「理藩院」

大清國ヲ開クノ始メ、蒙古ノ一族先達テ歸服シ、悉ク土地ヲ獻ス、其ヨシミヲ以テ厚ク遇ス

ル事、一体ノ如クス、其後外夷部類ヲ率ヒテ來服ス、地廣ク人多キユヘニ、各ソノ地ニ歸リ守ラシメ、年貢ヲ捧ケ出サシム、土地廣大ニシテ、遠方マテ歸服スル事、往古以來イマダコレアラズ、コレニヨリテ理藩院ヲ設ケテ、尙書・左右侍郎ノ官ヲ置キ、惡キ者ヲ退ケ、善キ者ヲ升シテ、賞罰ヲ嚴ニシ、朝會往來ノ事ヲタゝス（後略）

【史料20】近藤重藏『辺要分界図考』卷2（刊本P11）。

（前略）又黒龍江ノ上流ニ雅克薩ト云地アリ、魯西亞ヨリ此地ニ城ヲ築テ、滿洲ヲ侵擾ス、康熙二十五年兵ヲ發シテ、ロシアヲ伐チ、其城ニ克ツ、二十八年大臣ヲ遣シ、魯西亞ト約シテ格爾必齊（コルヒセ）河ノ東ニ分界ノ碑石ヲ立ツ、[格爾必齊河ハ黒龍江城ノ西北ニアリ、川源ハロシア境ノ興安嶺ヨリ出テ、東流シテ黒龍江ニ入ル]（割注）又此辺ニ於テ滿洲ト魯西亞ト通商交易シ、且諸蛮ノ凶ノ魯西亞トノ分界ヲ以テ見ルトキハ、コノ川カラフトト・山丹・唐山・ロシアノ分界ト云トモ可ナランカ（後略）

【史料21】近藤重藏『辺要分界図考』卷4（刊本P61）「魯西亞ノカムサスガ諸島ヲ併呑蚕食セシコト」

（前略）蛮書セオカラヒイ云、一千六百八十九年[貞享十二年]*（割注、以下同）ネルトシキンスコイノ内ネルトシキト云所ニ城ヲ築キ、支那ノ境ヲ堅ム、此所ニ關ヲ居ヘテ、使幣ヲ交ユ[韃靼ノ古國ナリ]、一千七百十三年[正徳四年]カムサスカヲ伏従ス、一千七百二十四年[享保十年]センスコイニ城ヲ築テ清朝ノ境ヲ堅メ、交易シテ大ニ利ヲ得タリ（後略）

* 正しいは元祿2年である。

【史料22】近藤重藏『辺要分界図考』卷4（刊本P74）「カムサスガ地方」

（前略）唐國ノ境ニゼワフタト云所アリ、アモルト云大河ヲ境トシテ北京ト交易ヲナス、兩國ヨリ番所ヲ立テ境ヲ守ル、北京ノ交易ノ値段荒増下ノ如シ、獵虎皮[一枚代紺木綿百五十反ホド]（割注、以下同）、獺皮[一枚代同十反ホド]、狐皮[一枚代同三反ホド]、貂皮[一枚代同二反ホド]、白海豹皮[一枚代同二反ホド]（後略）

【史料23】近藤重藏『辺要分界図考』卷7（刊本P110）「魯西亞考」

（前略）清滿洲ヨリ興リ、遠ク北塞ヲ開拓スルニ及テ、遂ニ其國境界ヲ接スルニ至ル、初メ滿洲黒龍江ノ上流ニ雅克薩（ヤクサ）ト云ヘルアリ、魯西亞人此地エ城ヲ築テ境界ヲ侵擾ス、又呼麻拉（フマル）ノ地ヲ蚕食ス、康熙二十三年寧古塔（ニングダ）ノ副都統薩布素（サブス）命シテ[布素後ニ黒龍江將軍トナル]（割注、以下同）舟師ヲ率ヒ、黒龍江ニ遡テ之ヲ伐タシム、二十八年其城ニ克ツ、則チ大臣ヲ遣シ魯西亞ト約シテ黒龍江城ノ西北格爾必齊河ノ東ニ分界ノ碑石ヲ立ツ、之ヲ界碑ト云[其約束ノ文下ニ見エ]、此辺ニ於テ毎年交易互市ノ事アリト云、其使聘ハ順治十二年ヲ以テ初トスベキカ[三朝實録・池北偶談ニ順治十二年・十七年並ニ使チシテ進貢ト云、魯西亞本紀ニ康熙二十八年支那北京使節ヲ通ト云、未知孰是]其レヨリ以來時ニ相往來シテ

初テ其國事ヲ詳スルコトヲ得タリ[康熙五十一年凶理琛（トリチン）トルコ國エ使セシトキロシヤ國內ヲ經テ其山川風土ヲ著セシコト統志ニ見エ]（後略）

【史料24】 「對札余藻」六月二十四日客館筆語（『精里全書』卷26、刊本P522～523）

珮川

山丹人与貴城通邪、

清山

山丹之号未聞指何方爲問乎、

珮川

兀良哈東方浜海地、我國呼曰山丹、

清山

兀良哈指黑龍江之夷、自長白山以北皆呼兀良哈、今皆爲清朝臣屬、僕嘗至瀋陽、見所謂吉林胡者、獐狍異常、似是兀良哈遺種耳、

珮川

壯矣行也、瀋陽育黎氏所嘗據、今何等光景、聞寧古塔是与鄂羅斯分界地、榮衰如何、

清山

（手書き繪図あり、略）寧古塔即响囉氏肇基之地、在長白山下、前臨沙漠一支、僕至遼野、從者指示其界、云距此不過五・六百里云、

珮川

八旗或在京城或在塞堡、其制可概聞邪、

清山

民家皆是漢人、旗下皆是滿人、亦有以民竄名旗下者、則皆是牟利卑微之流耳、八旗之号、僕不能書記、而有黃・赤・白・黑・鑲黃・鑲赤等号、隸旗之下者、俱是兵、臣民不隸於其下云、

【表1】 『華夷変態』収録の唐船風説書（貞享3年分）に見える清朝支配の関連情報

船	情報
55番寧波船	孔子廟修復、「儒道」（儒学）繁栄。*
60番福州船	帝都北京で「文学」を奨励。
65番普陀山船	専ら「儒道」・仏教を尊崇。「大清十五省」・「東西韃靼之地」安定。
88番泉州船	北京静謐。康熙帝「政事」正しく、専ら「儒道」を尊崇。
89番福州船	康熙帝、万機の暇に近臣と専ら「詩辞歌舞」で気休めとする。
91番厦門船	「大清十五省」太平。康熙帝をはじめ、官民とも「儒道」尊崇。*
96番南京船	「大清十五省」静謐。康熙帝「仁愛」。課役免除。隠遁「賢士儒者」に官位授与。
99番南京船	康熙帝平民を憐れみ、「万姓」安堵。

【表2】『華夷変態』収録の唐船風説書（貞享4年分）に見える清朝支配の関連情報

船	情報
2番南京船	近年、専ら「中華之者」を高官に登用。*
8番南京船	康熙帝専ら「仁政」を施し、士民上下法令を守る。
19番南京船	康熙帝「賢君」、官吏「廉直」、人民安堵。
21番南京船	康熙帝「賢君」、皇太后「淑徳」など。
22番南京船	康熙帝「賢君」、皇太后「賢君」補佐など。
23番寧波船	康熙帝「賢君」の風聞。「西韃靼之乱」。
24番南京船	以前満洲の官多し。今ほど中央・地方の高官に漢人を任用。*
25番福州船	康熙帝「漢学」通達。官員清廉。漢人の任官多し。*
29番南京船	大清盛世。「政道」正しく、官民とも素直の風儀。
45番福州船	福建総督清廉、巡撫忠誠・勤勉。康熙帝、愛民を「治道之第一」とす。
47番福州船	科挙制度の再興。
56番南京船	康熙帝「漢土之遺俗」を取り入れ、「儒釈道」以外禁止。「聖諭十六条」刊行。
59番福州船	康熙帝「賢君」、「政道」正しく、諸官の忠誠・勤勉を励ます。
62番南京船	康熙帝「文学王道」重視。兵士半減、人材選抜。「聖諭十六条」刊行。
64番南京船	各地の守備軍を大幅削減。清の地方官制。
69番福州船	年貢減免。「仏法」繁盛。各地で孔子廟・寺院・先賢祠などを修復。
71番南京船	康熙帝「賢君」。各地で学校を設立。
72番福州船	康熙帝文化教育・「儒道」を奨励、「聖廟」に「万世師表」勅筆。*
78番福州船	康熙帝文化教育・「儒道」を奨励。
79番福州船	康熙帝文化教育を奨励。
81番福州船	康熙帝「儒道」を尊崇。朱熹之祠に「道統儒宗」勅額を賜る。*
87番南京船	地方官「忠孝」を励まし民を愛護し清廉を守る。康熙帝博学「詩文」愛好など。
88番福州船	康熙帝「仁愛」・博識、孔子廟に「万世師表」勅筆など。
90番南京船	各地兵士半減。「文学理学」の風儀。
91番厦門船	全国「文芸」奨励。兵士半減。康熙帝博識、漢詩得意。
94番福州船	士卒削減。
103番福州船	高官に「漢人」に登用。「執権」は「満州人」・「漢人」5人。
116番福州船	康熙帝、山東孔子廟参詣。

参考文献A (論文・著作) 氏名發音順

- 伊東貴之「明清交替と王權論——東アジアの視角から」(『武藏大學人文學會雜誌』39-3、2008)。
- 上杉允彦「江戸時代の日本人の中國觀」(『高千穂論叢』52-2、1977)。
- 浦廉一「唐船風説書の研究」(『廣島大學文學部紀要』6、1954)。
- 浦廉一「『華夷変態』の解説」(『華夷変態』東洋文庫、1958~1959)。
- 大庭脩「徳川吉宗と大清會典—享保時代における日清交渉の一斑」(『法制史研究』21、1971)。
- 小島康敬「江戸期の中國認識」(日中歴史共同委員會『日中歴史共同研究：第一期報告書：日中原文』、2010)。
- 華立「江戸期日本に諸伝の清代史料—唐船風説書を中心に—」(大阪經濟法科大學『東アジア研究』22、1998)。
- 川勝守「韃靼國順治大王から大清康熙大帝へ」(同『日本近世と東アジア世界』吉川弘文館、2000) 初出は1993。
- 神田信夫「荻生徂徠の『滿文考』と「清書千字文」」(同『清朝史論考』山川出版社、2005)。
- 楠木賢道「『清朝探事』の滿州語彙と『大清會典』考究和譯作業」(筑波大學『日本史學集録』7、1988)。
- 楠木賢道「大田南畝が抄寫した『平定準噶爾方略』江戸時代知識人の海外情報攝取の一側面」(『歴史人類』33、2005)。
- 楠木賢道「江戸時代知識人が理解した清朝—日清關係の一側面—」(『清朝とは何か』別冊『環』16、2009) ①。
- 楠木賢道「『二國會盟録』からみた志筑忠雄・安部龍平の清朝・北アジア理解—江戸時代知識人のNew Qing History?—」(『社會文化史學』52、2009) ②。
- 後藤陽一「熊澤蕃山の生涯と思想の形成」(『日本思想大系30 熊澤蕃山』岩波書店、1971)。
- 園田一龜『韃靼漂流記の研究』(南滿州鐵道株式會社鐵道總局庶務課、1939)。
- 園田一龜編著『韃靼漂流記』(平凡社、1991)。
- 高遠拓兒「荻生北溪と清朝の則例集」(『東洋法制史研究通信』21、2012)。
- 田中梓都美「台湾情報から台湾認識へ—江戸幕府の収集した台湾情報と人々の台湾認識—」(『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4、2011)。
- 内藤湖南「昔の滿洲研究」(『内藤湖南全集』第8卷「東洋文化史研究」、1969) 初出1936。
- 中村質「初期の未刊唐蘭風説書と關連史料—幕府の海外情報管理をめぐって—」(『近世對外交渉史論』吉川弘文館、2000)。
- 西田元子「『續清朝探事』について—寛政年間における清國文物への關心—」(『參考書誌研究』34、1988)。

- ・藤井保『江戸幕府編纂物 解説編』（雄松堂出版、1983）。
- ・藤田覺『近世後期政治史と對外關係』（東京大學出版會、2005）。
- ・松浦茂「高橋景保『北夷考証』の成立と北方地理學の進展」（『アジア史學論集』5、2012）。
- ・松浦章『海外情報からみる東アジア—唐船風説書の世界—』（清文堂出版、2009）。
- ・山本巖「清俗紀聞考」（『宇都宮大學教育學部紀要、第1部』44-1、1994）。
- ・ロナルド・トビ「双眼鏡で見る世界—動搖する東アジアにおける幕府の情報活動と日本の安全—」（同『近世日本の國家形成と外交』、創文社、1990）。

参考文献B（史料）内容関連順

- ・林春勝・林信篤『華夷変態』（東洋文庫、1958～1959）寫本内閣公文書内閣文庫など藏。
- ・林鶯峰著『鶯峰林學士文集』（元祿2年序刊本の影印、ペリかん社1997）。
- ・國田兵右衛門・宇野与三次郎口述『韃靼漂流記』、園田一龜『韃靼漂流記』（前掲）に収録。
- ・寺島良安『倭漢三才図會』（日本隨筆大成刊行會、1926年）。初版（大坂・杏林堂）正徳5＝1715年跋。
- ・伊桑阿等奉勅撰『大清會典』8帙64冊（康熙29年刊本、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藏）。
- ・嵇永仁『集政備考』全18冊（康熙9年刊本、國立公文書館藏）。
- ・荻生北溪「清朝探事」（大庭脩編『享保時代の日中關係資料二〈朱氏三兄弟集〉』關西大學出版部、1995）。
- ・荻生觀ほか『名家叢書』（影印）全三冊（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編、關西大學出版部、1981～1982）。原本は國立公文書館内閣文庫藏（全78冊）、編纂時期不明、享保・元文間成立。
- ・新井白石『新井白石全集』全6卷（國書刊行會、1977）。
- ・新井白石・室鳩巢『大日本思想全集第六卷：新井白石集・室鳩巢集』（大日本思想全集刊行會、1932）。
- ・室鳩巢『鳩巢小説』（近藤瓶城編『續史籍集覽』卷3、近藤活版所、1984）。
- ・室鳩巢『近世儒家文集集成：鳩巢先生文集』（ペリかん社、1991）。
- ・雨森芳洲『多波礼草』（『日本隨筆録大成』第2期13、吉川弘文館、1974）。
- ・近藤重藏『辺要分界図考』（『近藤正齋全書』卷1、國書刊行會、1905）。
- ・間宮林藏述、村上貞助編『東韃地方紀行』（洞富雄・谷澤尙一編注『東韃地方紀行他』平凡社、1988）。
- ・古賀精里ほか「客館筆話」（寫本、東京大學史料編纂所藏、江戸末期寫）。
- ・古賀精里『精里全書』（ペリかん社、1996）。

청조와 몽골의 상호인식-청조 궁정의례를 단서로-

나카무라 아츠시(中村篤志)

시작하며

중국 최후의 왕조인 청조는, 역대의 중화왕조에 비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는 ‘이적’인 주변민족(만주족)에 의해 세워졌다는 점, 또 하나는, 번부(藩部)라고 불리는 티벳과 위구르, 몽골 등의 광대한 영역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통치했다는 점이다. [자료1]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이들 번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구역자치’로 적용되고 있으나, 청조 번부통치의 특징은 단순히 특별구역으로서 자치를 허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번부의 사람들을 청조중앙에서 연결시키는 제도가 중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번부 중에서도 청조가 건국이전부터 동맹관계를 맺고, 군사적으로도 중요시했던 곳이 몽골이다. 여기서 본 발표는, 청조가 몽골을 어떻게 위치 지었던 것인지, 선행연구의 성과를 근거로 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청조궁정의례를 예로 들어, 청조가 몽골 왕공(王公)에 어떻게 대응했던 것인지, 양자의 관계를 상호인식으로 검토해보고싶다.

청조에서 몽골 왕공의 지위

청조(만주)와 몽골의 관계는, 청조건국이전부터 연결되었던 군사동맹에 유래한다.¹⁾ 만주의 종실 왕공과 몽골왕공은 빈번한 혼인을 거듭하는 것으로 관계를 계속 강화했다. 청조붕괴까지 만주종실에서 몽골왕공으로 시집간 여성은 432명, 반대로 만주종실로 시집간 몽골왕공 여성이 163명에 달한다.²⁾ [자료2]

그리고, 이 양 왕공의 강한 결합과, 멀리 떨어진 지위의 높음은, 궁정의례 중 석차(席次)에 따라 가시화되었다. 만주왕공이 궁정 내에서 높은 지위를 점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청조의 예제(禮制)에서는, 몽골 왕공도 궁정의 최상위에 착석하도록 규정되어있었다.³⁾ 예를 들면, 태화전(太和殿)에서

1) 楠木賢道 『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汲古書院、2009年.

2) 杜家驥 『清朝滿蒙連姻研究』 人民出版社、2003年、pp.258-259.

3) 岡洋樹 「清朝國家の性格とモンゴル王公」 『史滴』 16、1994年、pp.54-58 ; 片岡一忠 「朝賀規定からみた清朝と外藩・朝貢國の關係」 『駒澤史學』 52、1998、pp.240-263 ; 杉山清彦 「大清帝國の政治空間と支配秩序—八旗制下の政治社會・序論—」 『大阪市立大學東洋史論叢 別冊特集号 文獻資料學の新たな可能性』 2007年、pp.245-270.

석차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3]

또 몽골왕궁에 있어서 궁정석차 이상으로 중요했던 것이, 황제와 빈번히 접촉하는 것이었다. 몽골왕궁은, 입관 전부터 빈번하게 성경(盛京)의 내정(內廷) (주로 청령궁)에 초대되어 연회에 참가하고4) 있었고 이는 북경 천도 후에도 계속되었다.

제도상, 몽골왕궁이 황제와 접하는 기회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유력왕궁의 자제를 어릴 때부터 궁중에서 양육하는 ‘내정교양’, 또 하나는 시위(侍衛)로서 황제의 시종을 시키는 ‘행주(行走)’, 마지막이 ‘조근(朝覲)’이다. 순서대로 살펴보자

① 내정교양(內廷教養)

내정교양은 유력왕궁의 자제를 어릴 때부터 내정으로 들여와, 만주의 황자들과 공부시키는 제도이다. 상세한 것은 불명확하나, 예를 들어 막북 하루하((喀爾喀) 토세토한(土謝圖汗) 부중우기(部中右旗)의 군왕 윤덴도르지(雲丹多爾濟)는, 어릴 때부터 궁중의 상서방(上書房)에서 공부하고 어린 가경제(嘉慶帝)와 책상을 함께 썼다.5)

호르친(科爾沁) 부의 세부텐발주르(色布騰巴勒珠爾)는 9살부터 내정의 상서방에서 황자들의 ‘반독(伴讀)’을 맡았다.6) (상서방의 위치는 [자료5] 참조)

이러한 왕궁은, 성인이 되어 종실의 딸을 신부로 삼아, 아래에 보이는 어전대신(御前大臣)과 어전시위(御前侍衛), 번부통치의 요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② 행주(行走)

행주는, 왕궁 중 일부를 선발하여 시위(侍衛)로 황제의 곁에서 시종 들게 하는 제도이다. 몽골왕궁은 주로 어전시위(御前侍衛)와 건청문시위(乾清門侍衛)에 임명되었다. 청조에서는, 훈척세신(勳戚世臣)을 시위에 등용하고, 후에 황제의 복심으로서 요직을 담당하게 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나, 시위 중에서도, 어전대신에 의해 관리된 어전시위와 건청문시위는 특별했다. 그들은 내정에 들어오는 것도 가능했고, 황제의 곁에 가까이 위치하여 경호를 담당하는 것 외에도, 건청문에 있는 관리의 접견과 상주(奏摺)의 수리(受理)를 관할하고 있었다.7) [자료5]

이상의 두 가지에 대해서 실제사료를 보자.8) 건륭(乾隆) 47년, 막북하루하에서 일어난 역참부정사용사건을 순회, 해결을 했던 만주대신인 늑보(勒保)는, 게자이도르지(格齋多爾濟)라고 하는 하루하의 왕궁을 요직으로 기용하도록 황제에게 진언한다. 그 이유를 ‘(게자이도르지는) 어릴 때부터 공주(公主)(고륜각정공주 固倫恪靖公主9)가 양육하여, 내정에서 교양을 쌓고 성인이 된 자로, 도리

4) 事例는 매우 많지만 예를 들면 『滿文老檔』崇德元(1636)年4月「21日에 外藩인 몽골의 右翼 巴林과 扎魯特, 敖漢, 奈曼, 阿爾, 喀喇沁, 土默特의 무리들을 성스러운 칸의 清寧宮으로 불러 크게 酒宴을 베풀었다」와 같다.

5) 杜, 前掲書 p. 142.

6) 章乃煒 『清宮述聞』卷4述內廷1上書房 (北京古籍出版社, 1988年, p. 201)

7) 常江・李理 『清宮侍衛』遼寧大學出版社, 1993年. 『大清會典(光緒朝)』卷82侍衛處.

8) 사건의 개요와 政爭의 구도는, 拙稿, 「乾隆48年諭旨とモンゴルの“社會変容”」(モンゴル語)、Northeast Asian Study Series, vol.8, 2006年, pp.31~39에서 참조하기 바란다.

를 알고 있다'10) 라고 말하고 있다. 만주대신도, 내정교양왕공에게 일정한 신뢰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 조카인 슌데부도르지(遜都布多爾濟)에 대해서도 '어릴 때부터 내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성격, 언동이 내지의 우리들과 같다'라고11) 말하고 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청조에 대항하는 유력자였던 토세-토한, 세첸칸(車臣汗)에 대해서, 황제는 두 명이 어전행주(御前行走)인 것을 들어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토세-토한) 세덴도르지(車登多爾濟)와 (세첸한) 세부덴자부(車布登扎布)는 공히 이전에 행주하는 자이고, 짐의 아이들과 같은 신복이 아닌가!(mini jusei adali aha kai)"12)

이 파선부(波線部)는 같은 부분의 한문(漢文) 『실록』에는 써 있지 않으나,13) 만문(滿文)으로는 확실히 '친자'라고 비유하고 있는 관계라고 쓰여 있다. 게다가 '(세덴도르지들은) 어릴 때부터 어전에서 행주했고, 법을 모른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14) 되어 있어, 황제는 행주를 통해서 몽골왕공에게 청조 중앙의 의례와 정무를 경험시킴으로써 군신관계와 몽골통치의 강화에 관련된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③조근(朝覲)

앞의 두 가지가 선택된 일부 왕공에게 부여된 특별대우라고 한다면, 조근은 모든 왕공을 정기적으로 불러내어 면회하는 제도이다. 조근은, 정월전후로 북경에 참내(參內)시키는 '연반(年班)'과, 여름에 열하순행에 참내(參內)시키는 '위반(圍班)'이 있다.

황제의 열하순행은 조선사절과 영국사절의 기록이 일본에도 번역되어 있다.15) 대몽고포연(大蒙古包宴)이라고 일컬어지며, 거대한 몽골식 텐트의 연회는 청조의 다민족성을 상징하는 사례로 다루어진다. 16) [자료6] 다만, 열하순행은 가경(嘉慶) 연간이후 폐지된다.

타 지역의 연반은 청말까지 거의 매년 계속되었다. 몽골각지의 왕공은 수년에 한 번의 빈도로 내정의 의무를 진다. 연반에 해당하는 해는, 연말 12월25일까지 북경으로 모여, 다음 년 1월 하순까지, 제석(除夕) 및 원단(元旦)의 의례 등의 궁정의례와 연회에 참가하는 외에, 다양한 하사품을 받는다.17) 이하, 몽골왕공의 사문서에서 행주의 실태와, 청조 = 몽골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검토한다.

9) 康熙帝의 第6女. 계자이도르지의 父 돈도프도르지(敦多布多爾濟)에게 시집갔다.

10)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滿文錄副檔 마이크로番号126 (1956-1963) 乾隆48年2月19日.

11) 同滿文錄副檔 마이크로番号125 (0903-0906) 乾隆48年9月5日.

12) 同滿文上諭檔3-47(1)乾隆48年7月13日.

13) 『高宗實錄』卷1184同日條에는 「…朕如此曲爲施恩、而伊等俱係御前行走之人。僅呈駐劄庫倫大臣、轉奏謝恩、卽屬了事。車登多爾濟、雖未出痘、不當來熱河乎」라고 되어 있다.

14) 同滿文上諭檔3-46(3) 乾隆48年2月29日. 『實錄』에는 해당 記事가 採錄되어 있지 않다.

15) 朴趾源 (著), 今村 与志雄 (翻譯) 『熱河日記 1, 2—朝鮮知識人の中國紀行』平凡社、1978年. マカートニ一著; 坂野正高譯注 『中國訪問使節日記』平凡社、1975年.

16) 커다란 몽골식의 원형으로 된 주거용 케르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宴會를 연다. 그 政治性에 대해서는 岩井茂樹 「乾隆期の「大蒙古包宴」—アジア政治文化の一齣—」(河内良弘編, 『清朝治下の民族問題と國際關係』, 平成2年度科研費總合研究(A)成果報告書, 1991年), pp. 22-28. 熱河 이외에도 北京의 圓明園과 紫光閣, 內廷中正殿 등에서도 개최된다(杉山, 前掲論文).

17) 『理藩院則例』卷16朝覲、卷18宴賚上、卷19宴賚下.

2. 왕공의 일기·편지사료로 본 청말의 행도(行走), 연반(年班)

① 광서(光緒) 9년말, 건청문행주일기(乾淸門行走日記)

이 일기는, 몽골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18) 작자는 세첸한부 이루덴왕기(中右旗)의 보국공품급2등태길 바보-도루지로, 그는 광서9(1883)년 11월 29일에 북경에 도착하여, 12월 8일부터 이듬해 1월 19일까지 건청문행주로서 근무한 날들의 모습을, 전부 몽골어로 쓰고 있다.

이 일기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그들 건청문행주로 뽑힌 몽골왕공은 건청문시위로서 문지기(扈從)와 황제의 호종(扈從)을 담당하고, 연회와 의례에도, 연반으로 내경한 일반왕공과는 다르고, 시위로서 참여하고있는 것이다.19) 그 외, 태묘제사와 대고전에서 기우 등 한지(漢地)의 제례에도 시위로서 황제에 호종하고 있다.

두 번째로, 몽골왕공을 대상으로 하는 연회가, 거의 『이번원칙례(理藩院則例)』 등의 규정대로 행해진 것이다. 바보-도루지가 참가한 주된 연회·의례가 말미[표: 참가의례·연회표]에 있다. 규모와 장소에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대몽고포연(大蒙古包宴)등과 거의 규정대로 개최되고 있다.

세 번째로, 광서제(光緒帝)가 몽골어로 인사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村田雄二郎에 따르면20), 청 멸망까지 황제에의 만주어교육은 실행되었고, 대외적공용어와 궁정의례의 장소에서는 만주어가 사용되고 있었으나, 몽골어도, 청 말까지 궁정교육과 궁정의례에서 사용된 것 같다.21)

이 일기에서도, 당시 불과 12세의 광서제(光緒帝)가 몽골어를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12월)초 8일... 성주는 몽골어로 ‘향리의 기후는 좋구나, 구름은 있고, 가축은 좋고 살찌었을까’라고 하셨다

(12월)초 9일... 성주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인신(印信)의 두명의 호토쿠토(活仏)이 도의 동쪽에 꿇배(跪拜)하고있고, (성주가) 몽골어로 ‘호토쿠토, 고개를 들어라’라고 하셨다.

이러한 궁중에서의 짧은 인사를 하기 위한 회담집이 지금도 고궁박물관에 존재한다. 『몽고화』는, 세로 15.7cm, 가로 10cm의 얇은 책자로, ‘티벳승을 소견할 때의 질문’, ‘호토쿠토(活仏)에의 질문’ 등, 분명히 황제가 궁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자료7]22)

18) 日記의 紹介는 拙稿「北京值班モンゴル王公の日記について」(原文モンゴル語) C N E A S Report, vol.2, 2011年, pp.84-89 참조.

19) 예를 들어 12月 16日, 23日, 28日條 등에서는 「乾淸門たち (kiyen cing men-uud)」라고 표현되어 그 행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 行走의 最終日인 1月 19日, 皇帝에게 귀환의 인사를 한 후 御前侍衛·乾淸門侍衛가 서로 이별의 인사를 한다고 적혀있는 것이 상징적이다.

20) 村田雄二郎「ラスト・エンペラーズは何語で話していたか——清末の「國語」問題と單一言語制」『ことばと社會』3, 2000年, pp.6-31.

21) 春花『清代滿蒙文詞典研究』(遼寧民族出版社, 2008年) p.52, p.176, p.183.

22) 故宮博物院編『同文之盛——清宮藏民族語文辭典』紫禁城出版社, 2009年, pp.90-91.

어린 광서제에게로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으나, 서태후가 내경한 몽골왕공을 알현할 때 몽골왕공 나얀토(那彥圖)에게 통역을 부탁하고 있다는 사료도 있어서²³⁾ 청조제실의 자세가, 청말에도 청조를 지지하고 있는 왕공 쉰케린친(僧格林沁)과 같은 ‘충신’을 배출하는 소지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②도광17 (1837)년, 내경왕공(來京王公)의 서간

마지막으로, 몽골국립중앙공문서관소장의 도세토한부 좌익후기(左翼後旗)의 왕공보국공 바루다르도르지(巴勒達爾多爾濟)가 향리에 써서 보낸 서간을 소개한다. 그는 친부의 기장직(旗長職)을 잇기 위해 내경했고, 조부가 가지고 있던 베이세(貝子) 위의 부활을 의망한다. 처음에는 이번원(理藩院)의 대관과 주경(駐京) 라마를 의지했지만 잘 되지 않자, 같은 부의 왕공 데레쿠도르지(德勒克多爾濟)에게 상담한다. 그는 먼저 서술한 친청과왕공 스텐부도르지의 손자로, 종실의 딸을 받아 당시 어전행주로 임명되어 있었다.²⁴⁾

데레쿠도르지는 ‘연반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떠한 소원의 일도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모처럼 북경에 온 것이니, 연반의 행렬에 들어가도록 조언했다. 바루다르도르지는 즉시 이번원에 700냥의 뇌물을 지불하고, 무사히 연반왕공의 행렬에 들어갔으나, 결국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또 이 서간에서는, 데루쿠도르지가 ‘반과 왕과 동등으로 자금성내 기마(紫禁城內騎馬)의 은전을 주셨다’ 등 다른 몽골왕공이 받은 은전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연반의 기회에 무엇을 받는가는 왕공들의 중대한 관심사였다.

마치며

청조는 몽골의 왕공에 대해서, 황실의 왕공과 같은 작위와 의례상의 대우를 부여했다. 그것은 궁정의례의 석차 등으로 가시화되고, 확인되었으나, 그 이상으로도, 일부의 왕공을 내정하여 교육, 행도 등 황제의 가까이에서 시종들게 하여 더욱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가경 연간이후에 위반(圍班)이 폐지된 후도 연반제도는 규정대로 운용되어, 몽골왕공에의 극진한 연회와 사여(賜與), 황제에 의한 몽골어에의 인사 등은 청말까지 유지되었다. 몽골왕공에 있어서, 연반은 청조중앙에의 유일한 청원루트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 제실과 혼인관계를 겹친 황제와 큰 파이프를 가진 도루쿠도르지와 같은 유력 몽골왕공이, 황제와 일반왕공과의 사이의 매개가 되는 것으로, 청조의 구심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청조붕괴 후의 외몽골독립의 논리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번역: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상임연구원 김상규)

23) 祺克泰、孟允昇「蒙古親王那彥圖」(『大清王府』中國文史出版社、2004年) p.318.

24) 杜, 前掲書、p.138.

[표:참가의례·연회표]

			청조의 규정※
12月9日	中正殿	라마·호트트라가瞻觀 라마·호토쿠토들이 침근(瞻觀)	規定無し
12月23日	中正殿	大蒙古包。相撲などを 觀賞。	中正殿賜宴:12/23。蒙古王公・라마。大蒙古包宴。
12月28日	中正殿	中正殿でツァムを觀 賞。	中正殿看跳布扎克:日時不明。蒙古王公・라마。
12月30日	保和殿		保和殿・歲除筵宴:12/30。外藩王公、外国来使、大臣
1月1日	太和殿		元旦儀禮
1月10日	紫光閣		紫光閣筵宴:元旦後。外藩王公、라마、外国来使。
1月15日	保和殿		正大光明殿筵宴:正月15日。外藩王公、라마、外国来使、大臣。
			看放烟火(円明園山高水長):正月14、15日。外藩王公、라마、外国来使。大蒙古包。
1月19日	中正殿	皇帝に帰還の挨拶。	(円明園)山高水長跪安:正月19日。年班朝覲行走の蒙古王公。大蒙古包。

※ 『理藩院則例』 卷16 朝覲, 卷 18宴賚上, 卷 19下の 것 외에도 『欽定大清會典(光緒朝)』 卷28, 禮28, 燕饗1의 각 연회 규정을 참고했다.

※ 資料는 일본어 번역문 뒤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清朝とモンゴルの相互認識 - 清朝宮廷儀礼を手がかりに -

中村篤志

はじめに

中国最後の王朝である清朝は、歴代の中華王朝と比べて二つの特徴を持つ。ひとつは「夷狄」である周辺民族（満洲族）によって立てられた点、もうひとつは、藩部と呼ばれるチベットやウイグル、モンゴルなどの廣大な領域を長期間、安定的に統治した点である。【資料1】現在の中華人民共和國では、これら藩部に当たる地域は「区域自治」が適用されているが、清朝の藩部統治の特徴は、単に特別区域として自治を許容しただけでなく、藩部の人々を清朝中央につなぎとめる制度が重層的に作られていた点にある。

特に藩部のなかでも清朝が建國以前から同盟関係を結び、軍事的にも重要視していたのがモンゴルである。そこで本発表では、清朝がモンゴルをいかに位置づけていたのかを、先行研究の成果をふまえて紹介し、併せて清朝宮廷儀礼を例に、清朝がモンゴル王公にいかに対応していたのか、両者の関係や相互認識について検討してみたい。

1. 清朝におけるモンゴル王公の地位

清朝（満洲）とモンゴルの関係は、清朝建國以前から結ばれていた軍事同盟に由来する¹⁾。満洲の宗室王公とモンゴル王公は頻繁に婚姻を重ねることで関係を強化し続けた。清朝崩壊まで、満洲宗室からモンゴル王公に嫁いだ女性が432人、逆に満洲宗室に嫁いだモンゴル王公の女性が163人にも及ぶ²⁾。【資料2】

そして、この兩王公の強い結びつきと、隔絶した地位の高さは、宮廷儀礼における席次によって可視化された。満洲王公が宮廷内で高い地位を占めるのは当然だとしても、清朝の礼制では、モンゴル王公も宮廷の最上位に着席する規定であった³⁾。例として、太和殿における席次

1) 楠木賢道『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汲古書院、2009年。

2) 杜家驥『清朝滿蒙連姻研究』人民出版社、2003年、pp.258-259。

3) 岡洋樹「清朝國家の性格とモンゴル王公」『史滴』16、1994年、pp.54-58。片岡一忠「朝賀規定からみた清朝と外藩・朝貢國の關係」『駒澤史學』52、1998、pp.240-263。杉山清彦「大清帝國の政治空間と支配秩序—八旗制下の政治社會—序論一」『大阪市立大學東洋史論叢 別冊特集号 文獻資料學の新たな可能性』2007年、pp.245-270。

を確認する。【資料3】

また、モンゴル王公にとって宮廷席次以上に重要だったのが、皇帝と頻繁に接触することであった。モンゴル王公は、入關前から頻繁に盛京の内廷（主に清寧宮）に招かれ宴會に参加している⁴⁾が、これが北京遷都後も継続することになる。

制度上、モンゴル王公が皇帝と接する機会は大きく3つあった。ひとつは有力王公の子弟を幼い頃から宮中で養育する「内廷教養」、もうひとつが侍衛として皇帝に近侍させる「行走」、最後は「朝覲」である。以下、順に見ていく。

①内廷教養

内廷教養は有力王公の子弟を幼い時から内廷に入れ、滿洲の皇子たちと勉學させる制度である。詳細は不明な点もあるが、例えば、漠北ハルハ（喀爾喀）トシェートハン（土謝圖汗）部中右旗の郡王ユンデンドルジ（雲丹多爾濟）は、幼少から宮中の上書房で學び幼少の嘉慶帝と机を並べた⁵⁾。ホルチン（科爾沁）部のセブデンバルジュル（色布騰巴勒珠爾）は9歳から内廷の上書房で皇子たちの「伴讀」を務めた⁶⁾（上書房の位置は【資料5】参照）。

このような王公は、成人して宗室の娘を嫁にもらい、以下にみる御前大臣や御前侍衛、藩部統治の要職を任されることも多かった。

②行走

行走は、一部王公を選抜し侍衛として皇帝の側に近侍させる制度である。モンゴル王公は主に御前侍衛と乾清門侍衛に任じられた。清朝では、勳戚世臣を侍衛に登用し、後に皇帝の腹心として要職を担わせる事例が多く見られるが、侍衛のなかでも、御前大臣によって管理される御前侍衛と乾清門侍衛は別格であった。彼らは内廷に入ることもでき、皇帝に最も近い位置で警護に当たるほか、乾清門において官吏の引見や上奏（奏摺）の受理を管轄していた⁷⁾。【資料5】

以上の2つについて実際の史料を見てみる⁸⁾。乾隆47（1782）年、漠北ハルハで起きた驛站不正使用事件を巡り、解決にあたった滿洲大臣の勒保は、ゲジャイドルジ（格齋多爾濟）というハルハの王公を要職に起用するよう皇帝に進言する。その理由を

「（ゲジャイドルジは）幼少から公主（固倫恪靖公主⁹⁾）が養い、内廷にて教養し成年と

4) 事例は数多いが、たとえば『滿文老檔』崇徳元(1636)年4月「21日に、外藩モンゴルの右翼の巴林、扎魯特、敖漢、奈曼、阿爾、喀喇沁、土默特の衆貝勒たちを、聖ハンの清寧宮に招いて大酒宴を張った。」

5) 杜, 前掲書 p.142.

6) 章乃焯『清宮述聞』卷4述内廷1上書房（北京古籍出版社、1988年、p.201）

7) 常江・李理『清宮侍衛』遼寧大學出版社、1993年。『大清會典（光緒朝）』卷82侍衛處。

8) 事件の概要と政争の構図は、拙稿「乾隆48年諭旨とモンゴルの“社會変容”」（モンゴル語）、*Northeast Asian Study Series*, vol.8、2006年、pp.31~39で展望した。

9) 康熙帝の第6女。ゲジャイドルジの父ドンドブドルジ（敦多布多爾濟）に嫁ぐ。

なったので、道理を知っている。」¹⁰⁾

と述べる。またその甥のスデブドルジ（遜都布多爾濟）についても「幼少より内地で育ったのであらゆる性格・言動が内地の我々と同じである」¹¹⁾と述べている。

また、これとは逆に、清朝と對抗する有力者であったトシェートハン、セチェンハン（車臣汗）についても、皇帝は、二人が御前行走であることを取り上げ以下のように述べる。

「（トシェートハン）ツェデンドルジ（車登多爾濟）と（セチェンハン）ツェブデンジャブ（車布登扎布）は共に御前に行走する者であり、朕の子供のような臣僕ではないか（mini jusei adali aha kai）。」¹²⁾

この波線部は同じ箇所の漢文の『實録』には書かれていない¹³⁾が、満文でははっきりと「親子」に例えられる関係であると書かれている。さらに

「（ツェデンドルジらは）幼い頃より御前に行走しており、法を知らないとは言わせない」¹⁴⁾

とあり、皇帝は、行走を通じてモンゴル王公に清朝中央の儀礼や政務を経験させることで、君臣関係やモンゴル統治の強化につながると期待していたのである

③朝覲

前二者が、選ばれた一部王公に与えた特別待遇とするならば、朝覲は全ての王公を定期的呼び出し面會する制度である。朝覲には、正月前後に北京に参内させる「年班」と、夏期の熱河巡幸に参内させる「困班」がある。

皇帝の熱河巡幸については、朝鮮使節やイギリス使節の記録が日本でも翻譯されている¹⁵⁾。大蒙古包宴と言われる、巨大なモンゴル式テントでの宴會は清朝の多民族性を象徴する事例として取り上げられる¹⁶⁾【資料6】。ただし熱河巡幸は嘉慶年間以後廢れる。

他方の年班は清末までほぼ毎年繼續した。モンゴル各地の王公は數年に一回の頻度で來京の義務を負う。年班に当たった年は、年末12月25日までに北京に参集し、翌年1月下旬まで、除夕および元旦の典禮などの宮廷儀礼や宴會に参加するほか、様々な下賜品をもらう¹⁷⁾。以下、モ

10) 中國第一歴史檔案館、満文録副檔マイクロ番号126（1956-1963）乾隆48年2月19日。

11) 同満文録副檔マイクロ番号125（0903-0906）乾隆48年9月5日。

12) 同満文上諭檔3-47(1)乾隆48年7月13日。

13) 『高宗實録』卷1184同日條には「…朕如此曲爲施恩、而伊等俱係御前行走之人。僅呈駐劄庫倫大臣、轉奏謝恩、即屬了事。車登多爾濟、雖未出痘、不当來熱河乎」とだけある。

14) 同満文上諭檔3-46(3)乾隆48年2月29日。『實録』には該当記事は採録されていない。

15) 朴趾源(著)、今村 与志雄(翻譯)『熱河日記 1, 2—朝鮮知識人の中國紀行』平凡社、1978年。マカートニー著；坂野正高譯注『中國訪問使節日記』平凡社、1975年。

16) 巨大なモンゴルの円形住居ゲルを設営しそこで宴會を行う。その政治性については岩井茂樹「乾隆期の「大蒙古包宴」——アジア政治文化の一齣」（河内良弘編『清朝治下の民族問題と國際關係』平成2年度科研費總合研究(A)成果報告書、1991年）、pp. 22-28。熱河以外にも、北京の円明園や紫光閣、内廷中正殿などで開かれた（杉山前掲論文）。

17) 『理藩院則例』卷16朝覲、卷18宴賚上、卷19宴賚下。

ンゴル王公の私文書から行走の實態と、清朝＝モンゴル間の關係性について検討する。

2. 王公の日記・手紙史料からみた清末の行走・年班

光緒9年末、乾清門行走日記

この日記は、モンゴル國立図書館に所蔵されている¹⁸⁾。作者はセチェンハン部イルデン王旗（中右旗）の輔國公品級二等台吉バボードルジで、彼が光緒9（1883）年11月29日に北京に到着し、12月8日から翌年1月19日まで乾清門行走として勤務した日々様子を、全てモンゴル語で記している。

この日記からわかったことは、第一に、彼ら乾清門行走に選ばれたモンゴル王公は、乾清門侍衛として門衛や皇帝への扈從を担当し、宴會や儀禮においても、年班で來京した一般王公とは異なり、侍衛として參列していることである¹⁹⁾。その他、太廟祭祀や大高殿での雨乞いなど漢地の祭禮にも侍衛として皇帝に扈從している。

第二に、モンゴル王公を對象とする宴會が、ほぼ『理藩院則例』などの規定通り行われていたことである。バボードルジが參加した主な宴會・儀禮が末尾【表：參加儀禮・宴會表】である。規模や場所にやや違いはあるが、大蒙古包宴などもほぼ規定通り開催されている。

第三に、光緒帝がモンゴル語で挨拶を述べている点である。村田雄二郎氏によれば²⁰⁾、清滅亡まで皇帝への滿洲語教育は行われ、對外的公用語や宮廷儀禮の場では滿洲語が用いられたとすが、モンゴル語も、清末まで宮廷教育や宮廷儀禮で使われたようである²¹⁾。

この日記からも、当時わずか12歳の光緒帝がモンゴル語を喋った事實が確認できる。

(12月)初8日…聖主はモンゴル語で「郷里の氣候は良いか、雪はあるか、家畜は良く太っておるか」と仰った。

(12月)初9日…聖主がお歸りになる際、印信の二人のホトクト（活仏）が道の東側に跪拝していると、（聖主が）モンゴル語で「ホトクト、面を上げよ」と仰った。

このような宮中での短い挨拶をするための會話集が今も故宮博物院存在する。『蒙古話』は、縦15.7cm、横10cmの薄い冊子で、「チベット僧を召見する際の問いかけ」「ホトクト（活仏）への問いかけ」など、明らかに皇帝が宮廷で使用するために作られたと考えられる【資料

18) 日記の紹介は拙稿「北京值班モンゴル王公の日記について」（原文モンゴル語）CNEAS Report, vol.2, 2011年, pp.84-89。

19) 例えば12月16日、23日、28日條などでは「乾清門たち (kiyen cing men-uud)」と表現され、その行動が詳しく記されている。また行走最終日1月19日、皇帝に歸還の挨拶をした後、御前侍衛・乾清門侍衛らが相互に離別の挨拶したと記していることが象徴的である。

20) 村田雄二郎「ラスト・エンペラーズは何語で話していたか——清末の「國語」問題と單一言語制」『ことばと社會』3、2000年、pp.6-31。

21) 春花『清代滿蒙文詞典研究』（遼寧民族出版社、2008年）p.52、p.176、p.183。

7】22)

幼い光緒帝による挨拶は形式的であったが、西太后が來京のモンゴル王公を謁見する際モンゴル王公ナヤント（那彦図）に通譯を頼んでいたとする史料もあり²³⁾、清朝帝室のかかる姿勢が、清末にあっても清朝を支えようとする王公セングリンチン（僧格林沁）のような「忠臣」を輩出する素地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

②道光17（1837）年、來京王公の書簡

最後は、モンゴル国立中央公文書館所蔵のトシェートハン部左翼後旗の王公輔國公バルダドルジ（巴勒達爾多爾濟）が郷里に書き送った書簡を紹介する。彼は父親の旗長職を継ぐべく來京し、ついでに祖父が持っていたベイセ（貝子）位の復活を希望する。初めに、理藩院の大官や駐京ラマを頼るがうまくいかず、同じ部の王公デレクドルジ（德勒克多爾濟）に相談する。彼は、先に述べた親清派王公スンデブドルジの孫で、宗室の娘をもらい当時御前行走の任にあった²⁴⁾。デレクドルジは「年班に入らなければ、いかなる願い事も適うことはない」と言い、せっかく北京に來たのだから、年班の列に入るよう助言する。バルダドルジはさっそく理藩院に700兩の賄賂を拂い、うまく年班王公の列に加わったが、結局、請願は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

またこの書簡では、デレクドルジが「ハンや王と同等に紫禁城内騎馬の恩典を賜った」ことなど他のモンゴル王公が賜った恩典について細かく書かれている。年班の機會に誰が何を賜ったのかは王公たちの重大な關心事であった。

結び

清朝はモンゴル王公に對し、宗室王公と同じ爵位と儀礼上の待遇を与えた。それは宮廷儀礼の席次などで可視化され、確認されたが、それ以外にも、一部の王公を内廷で教育、行走など皇帝のすぐ近くに侍らせることで、さらに緊密な関係を築いていった。

嘉慶年間以後に圍班が廢れた後も年班制度は規定通り運用され、モンゴル王公への手厚い宴會や賜与、皇帝によるモンゴル語での挨拶などは清末まで維持された。モンゴル王公にとって、年班は清朝中央への唯一の請願ルートとして認識されていた。

また、帝室と婚姻関係を重ね皇帝と太いパイプを持つデレクドルジのような有力モンゴル王公が、皇帝と一般王公との間の媒介となることで、清朝の求心力は維持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

22) 故宮博物院編『同文之盛——清宮藏民族語文辭典』紫禁城出版社、2009年、pp.90-91。

23) 祺克泰、孟允昇「蒙古親王那彦図」（『大清王府』中國文史出版社、2004年）p.318。

24) 杜、前掲書、p.138。

このような両者の関係は、清朝崩壊後の外モンゴル獨立の論理として登場するのである。

【表:参加儀礼・宴会表】

			清朝の規定※
12月9日	中正殿	ラマ・ホトクトらが瞻観	規定無し
12月23日	中正殿	大蒙古包。相撲などを観賞。	中正殿賜宴:12/23。蒙古王公・ラマ。大蒙古包宴。
12月28日	中正殿	中正殿でツァムを観賞。	中正殿看跳布扎克:日時不明。蒙古王公・ラマ。
12月30日	保和殿		保和殿・歳除筵宴:12/30。外藩王公、外国来使、大臣
1月1日	太和殿		元旦儀礼
1月10日	紫光閣		紫光閣筵宴:元旦後。外藩王公、ラマ、外国来使。
1月15日	保和殿		正大光明殿筵宴:正月15日。外藩王公、ラマ、外国来使、大臣。
			看放烟火(円明園山高水長):正月14、15日。外藩王公、ラマ、外国来使。大蒙古包。
1月19日	中正殿	皇帝に帰還の挨拶。	(円明園)山高水長晚安:正月19日。年班朝覲行走の蒙古王公。大蒙古包。

※:『理藩院則例』卷16朝覲、卷18宴賓上、卷19下のほか、『欽定大清會典(光緒朝)』卷28、禮28、燕饗1の各宴会規定を参考にした。

[자료1] 清朝領域図(청조영역도)

茂木敏夫『変容する近代東アジアの国際秩序』山川出版社, 1997年p. 16より



[자료2] 만몽혼인관계통계 (杜家驥『清朝滿蒙連姻研究』人民出版社、2003年,pp.258-259)

滿蒙聯姻各階段嫁、娶數字對比表

嫁、娶數字		皇家女出嫁蒙古人數	年平均人數	皇家男性娶蒙古女人數	年平均人數	聯姻次數總計	年平均次數
階段及各朝							
入關前 (32年)	努爾哈齊時期 (15年)	2	0.13	14	0.9	16	1.1
	皇太極繼位後至天聰九年 (9年)	14	1.6	26	2.9	40	4.4
	崇德朝 (8年)	10	1.3	17	2.1	27	3.4
	小計 (32年)	26	0.8	57	1.8	83	2.6
入關初	順治朝 (18年)	22	1.2	23	1.3	45	2.5
	康熙朝中期以前(二十八年) (28年)	1.1	0.6	11	0.3	22	0.9

滿蒙聯姻高峯期	康熙朝中期以後(康熙二十九年 至六十一年) (33年)	44	1.3	12	0.5	56	1.7
	雍正朝 (13年)	26	2.0	1	0.1	27	2.1
	乾隆朝 (60年)	176	2.9	14	0.2	190	3.2
	小計 (106年)	246	2.3	27	0.3	273	2.6
嘉道時期	嘉慶朝 (25年)	27	1.0	4	0.2	31	1.2
	道光朝 (30年)	52	1.7	17	0.6	69	2.3
	小計 (55年)	79	1.4	21	0.4	100	1.8
咸豐以後至清末	咸豐朝 (11年)	4	0.4	4	0.4	8	0.7
	同治朝 (13年)	15	1.2	5	0.4	20	1.5
	光緒朝 (34年)	27	0.8	15	0.4	42	1.2
	宣統朝 (3年)	2	0.7	0	0	2	0.7
	小計 (61年)	48	0.8	24	0.4	72	1.2
	總計 300年	432	1.4	163	0.5	595	2.0

說明：以上年平均數均為約數(四舍五入)。

[자료3] 태화전사연석차(太和殿賜宴席次) (片岡一忠 「朝賀規定からみた清朝と外藩・朝貢國の關係」 『駒澤史學』 52, 1998、 pp.240-263).

- ① 皇帝の席（寶座）の東西兩側に、
「王公及入班大臣外藩王公台吉塔布囊伯克等東西各七行序座」の文字。
(七列にわたる宗室王侯、及び入班の大臣、そして外班の王公・台吉・塔布囊・伯克等の席)
- ② 一段下がって、
「三品世爵暨（相ヒ）侍衛東西各二行序座」の文字。
(三品世爵と侍衛の席)
- ③ 段下がった最下段に、
「三品以下滿漢文武百官丹墀下各按翼序座」の文字。
(三品以下の滿漢文武百官の席が丹墀〔太和殿の前庭〕に用意されている)
- ④ 西班の末席に、「外国來使」（朝貢國貢使）の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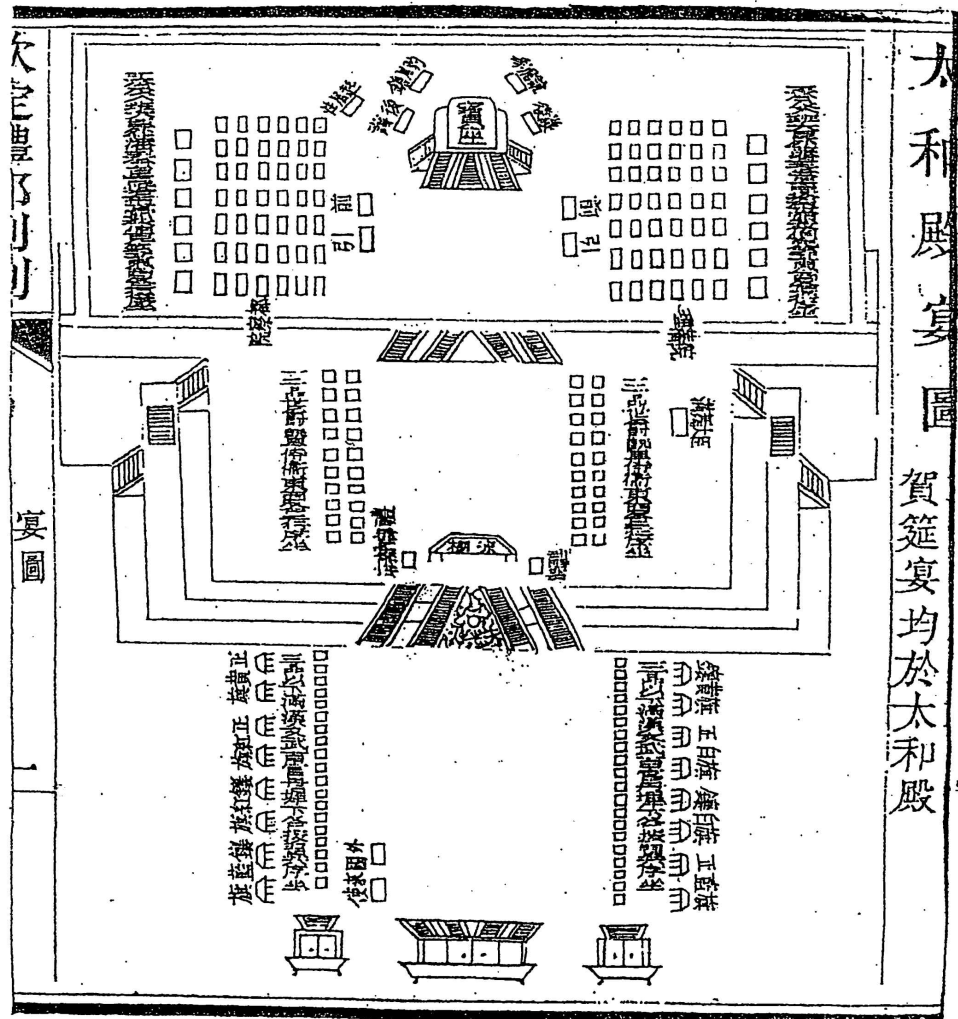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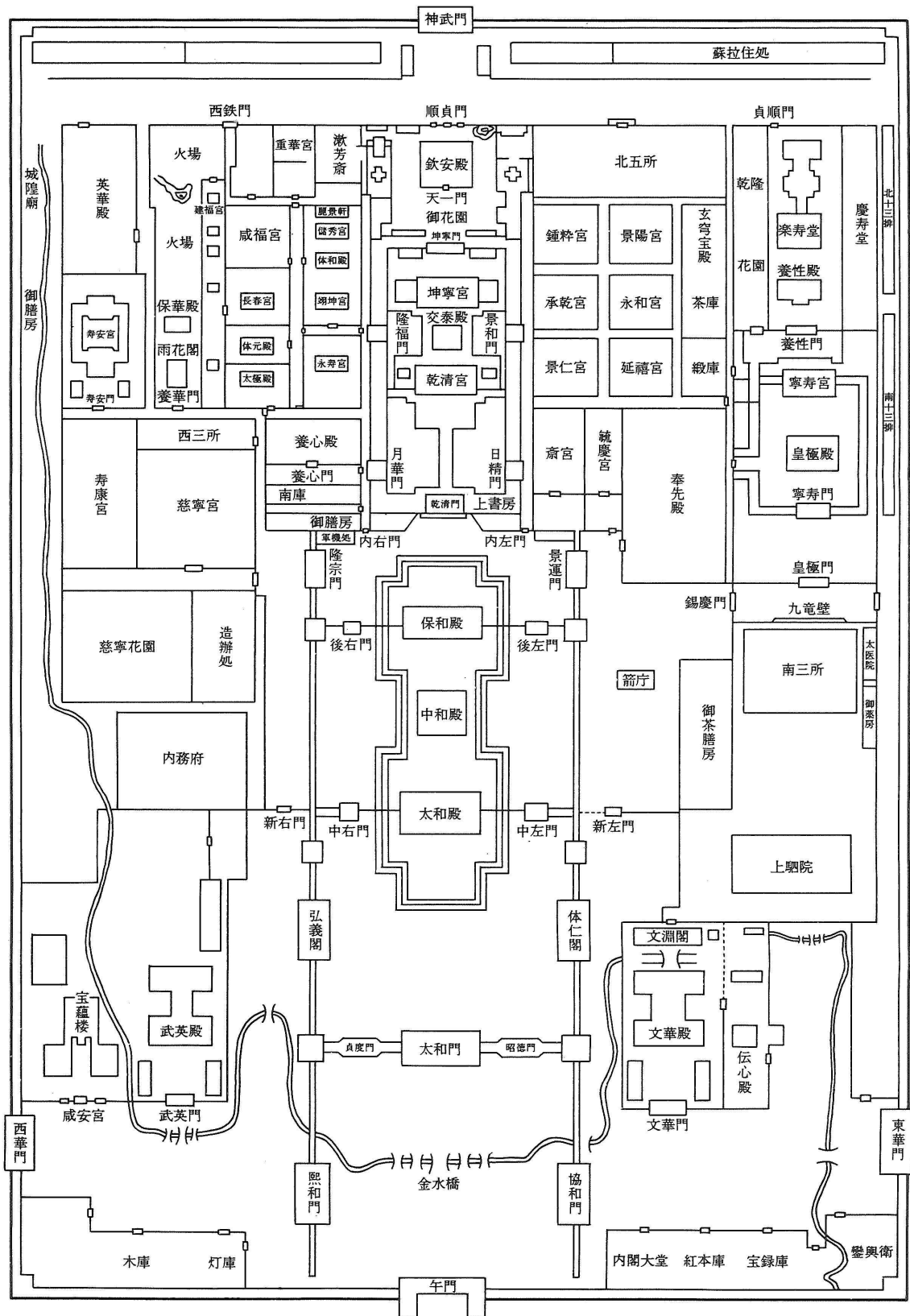


図1 太和殿賜宴図 (『欽定礼部則例』卷首)

[자료4] 자금성평면도 (愛新覺羅溥儀著、小野忍ほか譯 『わが半生「滿州國」皇帝の自伝 上』 筑摩書房、1977年、挿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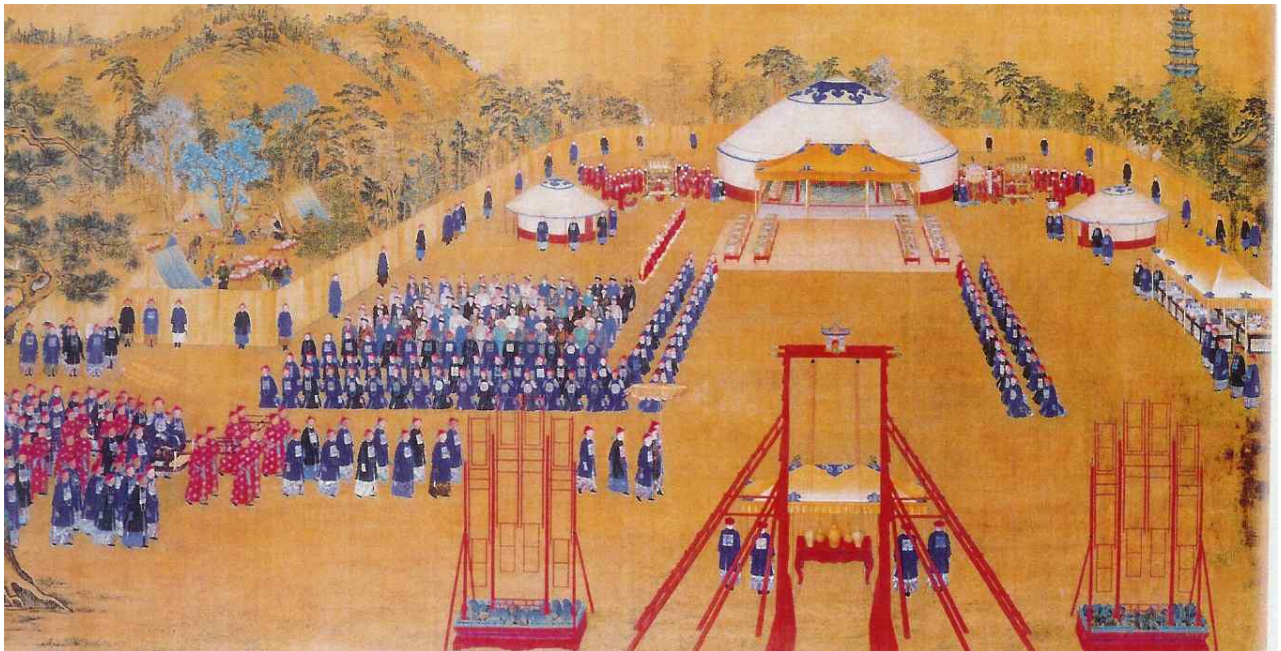


[자료 5] 대몽고포연(大蒙古包宴)

①平定伊犁回部戰圖冊·凱宴將士 (1761年、紫光閣。故宮博物院編『清史圖典 乾隆朝 上』紫禁城出版社、2002年、p.88)



②万樹園賜宴圖(1754年、熱河·万樹園。同上p.64)



[자료6] 『蒙古話』 (故宮博物院編 『同文之盛——清宮藏民族語文辭典』 紫禁城出版社、2009年, pp.90-91)。

	<p>達賴喇嘛今 年多大年歲</p> <p>達賴喇嘛身體好</p> <p>路上走了幾箇月</p> <p>何時由該處起程</p> <p>你們路上好</p> <p>西藏堪布進京呈遞丹書允君見時間此</p>
--	--

	<p>幾時上西藏去</p> <p>學甚麼經呢</p> <p>你幾歲了</p> <p>幾時到來的</p> <p>你路上好麼</p> <p>問呼圖克圖話條</p>
--	---

参考文献

『滿文老檔』

中國第一歷史檔案館，滿文錄副檔マイクロ番号126（1956-1963）乾隆48年2月19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滿文錄副檔マイクロ番号125（0903-0906）乾隆48年9月5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滿文上諭檔3-47(1)乾隆48年7月13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滿文上諭檔3-46(3) 乾隆48年2月29日。

『高宗實錄』

『大清會典（光緒朝）』

『理藩院則例』

楠木賢道 『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汲古書院，2009。

杜家驥 『清朝滿蒙連姻研究』，人民出版社，2003。

岡洋樹 「清朝國家の性格とモンゴル王公」 『史滴』 16, 1994。

片岡一忠 「朝賀規定からみた清朝と外藩・朝貢國の關係」 『駒澤史學』 52, 1998。

杉山清彦 「大清帝國の政治空間と支配秩序—八旗制下の政治社會・序論—」 『大阪市立大學東洋史論叢 別冊特集号 文獻資料學の新たな可能性』 2007。

章乃煒 『清宮述聞』 卷4述內廷1上書房（北京古籍出版社，1988）

常江・李理 『清宮侍衛』 遼寧大學出版社，1993。

中村篤志，「乾隆48年諭旨とモンゴルの“社會変容”」（モンゴル語），*Northeast Asian Study Series*, vol.8, 2006。

中村篤志，「北京值班モンゴル王公の日記について」（原文モンゴル語）*CNEAS Report*, vol.2, 2011。

朴趾源（著），今村 与志雄（翻譯）『熱河日記 1，2—朝鮮知識人の中國紀行』 平凡社，1978。

マカートニー著，坂野正高譯注『中國訪問使節日記』 平凡社，1975。

岩井茂樹，「乾隆期の「大蒙古包宴」——アジア政治文化の一齣」（河内良弘編『清朝治下の民族問題と國際關係』 平成2年度科研費總合研究(A)成果報告書，1991）

村田雄二郎 「ラスト・エンペラーズは何語で話していたか——清末の「國語」問題と單一言語制」 『ことばと社會』 3, 2000。

春花 『清代滿蒙文詞典研究』，遼寧民族出版社，2008。

故宮博物院編 『同文之盛——清宮藏民族語文辭典』 紫禁城出版社，2009。

祺克泰，孟允昇 「蒙古親王那彦圖」 『大清王府』 中國文史出版社，2004。